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5학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청년 니트(NEET)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과  
전이양상 :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전이 예측 분석

교 육 학 과

김 민 혜

2026

청년 니트(NEET)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과  
전이양상 :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전이 예측 분석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 년 12 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민혜

# 김민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오인수 \_\_\_\_\_

심사위원 김안나 \_\_\_\_\_

이선복 \_\_\_\_\_

최현주 \_\_\_\_\_

반지윤 \_\_\_\_\_

오인수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9
3. 연구모형	9
II. 이론적 배경	13
1. 청년 니트(NEET)	13
가. 니트의 정의 및 특징	13
나.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18
2. 진로성숙도	20
가. 진로성숙도의 개념 및 특징	20
나.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26
3. 자아존중감	29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특징	29
나. 청년 니트의 자아존중감	32
다.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	35
4. 구직효능감	38
가. 구직효능감의 개념 및 특징	38
나. 청년 니트의 구직효능감	40
다. 진로성숙도와 구직효능감	42
III. 연구방법	45
1. 연구대상	45
2. 측정도구	48
가. 진로성숙도	48
나. 자아존중감	50

다. 구직효능감 .....	51
라. 기타 측정문항 .....	53
3. 분석방법 .....	53
가. 분석 절차 .....	53
나. 주요 연구방법 .....	55
1)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	55
2)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 .....	58
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LR) .....	61
<b>IV. 연구결과</b> .....	<b>63</b>
1. 기술통계 분석 .....	63
2. 상관관계 분석 .....	64
3.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 및 특성 분석 .....	65
가.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 분석 .....	66
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 분석 .....	74
4.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전이분석 .....	76
5. 니트 상태 유지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잠재전이분석 .....	79
6. 청년 니트 진로성숙도 전이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구직효능감 예측 분석 .....	82
<b>V. 논의 및 결론</b> .....	<b>84</b>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	84
가.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 및 특성 .....	85
나.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전이분석 및 전이 예측 요인 .....	92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99
가. 연구의 의의 .....	99
나.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	105
<b>참고문헌</b> .....	<b>109</b>

# 표 목 차

<표 I-1> 주요 연구자(기관)별 니트의 정의 및 유형화 방식 .....	14
<표 III-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7
<표 III-2> 진로성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49
<표 III-3> 진로성숙도 측정 문항 .....	50
<표 III-4> 자아존중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51
<표 III-5> 자아존중감 측정 문항 .....	51
<표 III-6> 구직효능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52
<표 III-7> 구직효능감 측정 문항 .....	52
<표 IV-1> 기술통계 분석 결과 .....	63
<표 IV-2> 상관관계 분석 결과 .....	64
<표 IV-3>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66	
<표 IV-4>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분류율 .....	68
<표 IV-5>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모형 분류표 .....	68
<표 IV-6>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평균 및 프로파일 명명 ..	69
<표 IV-7> 청년 니트의 2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70	
<표 IV-8> 청년 니트의 2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분류율 .....	72
<표 IV-9> 청년 니트의 2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모형 분류표 .....	72
<표 IV-10> 청년 니트의 2차연도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평균 및 프로파일 명명 73	
<표 IV-11>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 .....	74
<표 IV-12> 잠재프로파일 평균동일성 검정 결과 .....	77
<표 IV-13> 청년 니트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확률 .....	78
<표 IV-14> 청년 니트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사례 수 .....	78
<표 IV-15> 니트 이탈집단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확률 .....	80
<표 IV-16> 니트 이탈집단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사례 수 .....	80
<표 IV-17> 니트 유지집단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확률 .....	81
<표 IV-18> 니트 유지집단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사례 수 .....	75

<표 IV-19>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 유형의 정의 및 이동 관계 .....82  
<표 IV-20>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구직효능감의 예측력 83

# 그림 목 차

[그림 I-1] 청년 니트의 1~2차연도(2021-2022)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분석모형	10
[그림 I-2] 청년 니트의 1~2차연도(2021-2022) 진로성숙도 잠재전이 분석모형	.....11
[그림 I-3] 청년 니트의 니트 상태 지속 여부별 진로성숙도 잠재전이 분석모형	.....11
[그림 I-4]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전이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구직효능감의 예측모형	12
[그림 IV-1] 1차연도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정보지수 비교	.....67
[그림 IV-2] 1차연도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69
[그림 IV-3] 2차연도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정보지수 비교	.....71
[그림 IV-4] 2차연도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73

## 논문개요

청년기는 성인으로의 사회적 이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달 시기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집단은 학교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이행 과정에서 이탈된 상태로 존재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동력 손실과 복지 지출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니트를 교육 및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각국의 청년정책 핵심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니트의 규모와 지속성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특히 진로성숙도의 수준과 변화 양상을 탐색하는 것은 학문적·실천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진로성숙도는 Crites와 Super의 이론에 기반하여 개인이 진로 선택과 준비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은 크게 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발달 과업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는 동태적 개념으로, 시기와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청년 니트의 경우 사회적 경험의 제한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진로성숙도가 낮거나 불안정하게 전이될 위험이 크며, 이는 장기적인 미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를 유형화하고 중단적으로 전이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원으로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강조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으나 방어적 자존감처럼 오히려 변화 가능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구직효능감은 구직행동의 실행과 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진로성숙도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과 전이 양상을 규명하고, 전이를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는 어떠한 잠재유형으로 구분되는가? 둘째,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떠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진로성숙도의 전이는 니트 상태 지속 여부(이탈/유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넷째, 자아존

중감과 구직효능감은 진로성숙도 전이확률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연구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21) 2021년과 2022년 2개 연도에 걸친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19세에서 28세 사이의 청년 중 니트 상태에 해당하는 874명이었다. 연구 절차로는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통해 두 시점에서 진로성숙도의 잠재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여 2021년에서 2022년으로의 유형 간 전이 양상을 확인하였다. 셋째, 니트 상태 이탈 집단과 유지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전이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LR)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진로성숙도 전이에 대한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는 세 가지 잠재유형, 즉 저성숙형, 결정유보형, 고성숙형으로 구분되었다. ‘유지’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상향 전이와 하향 전이가 동시에 나타나 진로성숙도의 변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저성숙형에서 결정유보형으로, 결정유보형에서 고성숙형으로 이동하는 상향 전이가 존재하는 동시에, 고성숙형에서 저성숙형으로 이동하는 하향 전이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니트 상태 이탈 집단과 유지 집단을 비교한 결과, 유지 집단에서 하향 전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진로발달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상향 전이에 부적인 예측을, 하향 전이에 긍정적인 예측을 보여, 높은 자존감이 항상 진로성숙도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였다. 이는 방어적 자존감이나 자기개념 왜곡 가능성과 관련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반면 구직효능감은 상향 전이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하향 전이를 덜 예측하는 경향을 보여, 진로 실행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심리적 자원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실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진로성숙도를 점수 기반이 아닌 잠재유형과 전이 과정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 진로발달 연구에 발달적·종단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둘째, 청년 니트 집단의 이질성과 전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니트 상태 이탈집단과 유지집단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전이에 서로 다른 예측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심리적 자원의 양면성과 실제적 함의를 제시한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청년 니트의 특성과 전이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니트 상태 유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구직효능감,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전이 분석, 청년 니트.

## Abstract

Career maturity represents a key developmental task during youth, as individuals prepare for independent adulthood and transition into the labor market. In recent years, however, the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population in Korea has become a major social concern, as these young people remain disengaged from education,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At the individual level, NEET youth experience identity confusion and social isolation, while at the societal level, their prolonged detachment contributes to labor shortages and increased welfare expenditure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fines NEETs as young people situated in the blind spots of education and labor market systems, and Korea has faced persistent policy attention regarding their prevalence and long-term disengagement. Within this context, understand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NEET youth—particularly their levels and transitions in career maturity—has become both an academic and practical priority.

Drawing on the theories of Crites and Super, career maturity refers to the attitudes and competencies individuals displa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reparation, encompassing subdimensions such as self-understanding, independence, career decision-making, and planning. Conceptually, it is a dynamic construct reflecting the degree of developmental task achievement rather than a fixed trait. For NEET youth, limited social experiences and resource constraints may lead to low or unstable levels of career maturity,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downward transitions and long-term detachment from the labor market. Therefore, identifying latent profiles of career maturity and tracing their transitions over time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this group. Psychological resources such as self-esteem and job search self-efficacy have been highlighted as important correlates of career development. Self-esteem refers to the extent of positive self-evaluation and, although traditionally regarded as a facilitator of career growth, may function defensively and hinder adaptive change when inflated or distorted. In contrast, job search self-efficacy is closely linked to active job-seeking behavior and expected to facilitate upward transitions in career maturity.

Based on these premis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1) identify latent profiles of career maturity among NEET youth, (2) examine their transition patterns over time, (3) compare transition probabilities between NEET leavers and stayers (i.e., short-term and

long-term NEETs), and (4) analyze the predictive roles of self-esteem and job search self-efficacy on these transitions. Data were drawn from the Youth Panel Survey 2021 (YP2021),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 2021 and 2022. The analytic sample consisted of 874 individuals aged 19 to 28 who met the NEET criteria. Latent Profile Analysis (LPA) was first conducted to derive career maturity profiles at each time point, followed by 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 to examine inter-temporal transitions between 2021 and 2022. Separate LTAs were then performed for NEET leavers and stayers to compare transition patterns. Finally,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LR) was employed to test the predictive effects of self-esteem and job search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transitions.

Results revealed three latent profiles of career maturity: low maturity, indecisive, and high maturity. While the ‘stable’ pattern was most prevalent, both upward and downward transitions were observed. Upward transitions commonly occurred from low to indecisive and from indecisive to high maturity, whereas downward transitions from high to low maturity were also notable. Compared with NEET leavers, NEET stayer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ownward transitions, reflecting the instability of their career development. Regarding predictors, self-esteem negatively predicted upward transitions and a positively predicted downward transitions, suggesting that higher self-esteem does not necessarily enhance career maturity and may sometimes reflect defensive self-concepts. In contrast, job search self-efficacy positively predicted upward transitions and reduced the likelihood of downward transitions, underscoring its role as an execution-oriented psychological resource.

The study offers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by analyzing career maturity through latent profiles and transitions rather than aggregate scores, it introduced a development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 into career research. Second, by empirically identifying heterogeneity and transition potential among NEET youth, it provided a basis for distinguishing between NEET leavers and stayers. Third, by revealing the contrasting roles of self-esteem and job search self-efficacy, it highlighted the dual nature of psychological resources in career development. Finally, at the policy level, the findings emphasize the need for tailored, phase-sensitive interventions for NEET youth, particularly specialized programs for long-term NEETs that strengthen psychological resources to support upward career transitions.

Key Word: Career maturity, Self-esteem, Job search self-efficacy, Latent profile analysis, Latent transition analysis, NEET youth.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하 ‘니트’로 칭함)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1999년 영국 정부의 사회배제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시된 이후 일본, 유럽, 한국 등으로 확산되며 대표적인 청년층 분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구혜경, 2024; OECD, 2016).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니트를 노동 시장과 교육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으로 정의하며, 각국 청년 고용정책의 핵심 통계지표로 활용하고 있다(OECD, 2016).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니트를 15~29세 사이의 청년 중 정규 교육, 고용, 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집단으로 정의한다(이정민, 2025). 이는 기존 실업률 지표로 포착되지 않는 소외된 청년층을 통계적으로 가시화하고 정책적으로 주목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청년 니트는 이러한 기본 정의 아래에서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니트 상태의 지속기간에 따라 단기 니트와 장기 니트로,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김재호, 2007; 전영창, 이선화, 2024). 이와 같은 분류는 청년 니트 집단의 이질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장·단기 니트 구분에서 자주 활용되는 ‘1년’ 기준은 니트 상태가 일시적·과도기적 상태인지, 혹은 구조적으로 고착된 상태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OECD,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1년 기준을 적용하여 니트 상태를 유지한 집단과 이탈한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며, 이 구분은 청년 니트의 향후 진로 변화 가능성과 개입 시기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청년 니트는 외형상 유사한 고용 상태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심리적 내적 요인의 관점에서는 진로에 대한 동기 수준, 심리적 자원, 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이질적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 즉, 니트 상태를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청년들이 지닌 심리·진로 특성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니트 집단의 내적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의 청년 고용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변화하며 니트의 수와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ILO, 2020; OECD, 2021), 개인별 진로발달 상태와 심리자원의 패턴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유형화를 통해 니트 집단을 이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29세 청년층의 니트 비율은 약 17.8%로 집계되었으며, 통계청(2023a, 2023b)은 약 65만 명이 니트 상태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1년 이상 상태가 지속되는 장기 니트로 파악되며, 구직의사조차 없는 ‘비희망형 니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는데, 국제노동기구(ILO, 2023)는 전 세계 청년의 니트 비율이 평균 20.4%에 달하며, 특히 여성의 비율이 28.1%로 13.1%인 남성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유럽연합(EU) 또한 2024년 기준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을 11.0%로 발표하였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니트 상태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Eurostat, 2024).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니트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생산성 저하 및 노동력 유향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자아정체성 약화, 사회적 배제, 미래 설계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통계는 니트 상태가 단기적·일시적 단계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인의 심리·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비용이 누적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국내외 니트 연구에서는 니트 상태의 지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1년’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한국은행, 2024; OECD, 2019), 이는 단기적 이탈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구조적으로 상태가 고착된 집단을 판별하는 데 실질적 지표로 기능한다.

즉, 니트 상태가 ‘유지’되는 집단과 일정 시점 이후 교육·고용·훈련 참여를 통해 ‘이탈’하는 집단은 그 특성과 향후 경로가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유지 집단은 낮은 진로준비도, 심리적 위축, 사회적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태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Eurofound, 2012; ILO, 2020). 반대로 이탈집단은 특정 심리·진로 자원을 활용해 노동시장이나 교육체계로 다시 진입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OECD, 2019). 따라서 니트 지속기간에 대한 ‘1년’ 기준은 유지형과 이탈형

을 구분하는 실증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청년 니트를 단일 집단으로 보지 않고 ‘유지형’ 과 ‘이탈형’ 으로 구분해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청년 니트는 취업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일반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우울감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청년 니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취업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청년 니트의 취업 불안이 실질적으로 구직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함을 보여준다(금창민, 이해은, 2023).

진로결정 경험의 부족과 미래 계획의 구체성 결핍은 장기 니트 집단과 고졸 비진학 니트 집단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단기적 고용지원정책이나 단기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와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김기현 외, 2018).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삶의 질 저하, 사회적 신뢰 약화, 정책 효능감 저하 등 부정적 과장이 확대될 수 있어, 심리 상담·진로상담·정서 지원 등 보다 정교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구혜경, 2024; 백윤영, 홍지선, 2024; 한국은행, 2024). 이처럼 ‘장기화’ 와 심리·정서적 취약성이 결합될 때 단순 고용정책만으로는 접근의 한계가 뚜렷하며, 청년 니트의 향후 진로 경로 변화를 발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들은 여전히 청년 니트를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학력 수준, 지역 격차 등과 같은 구조적 변수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단일 시점에서의 실업 상태로만 한정해 분석하는 제한점이 있었다(김기현 외, 2018; OECD, 2019). 실제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학력 수준, 비수도권 거주 여부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니트 진입과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노현주, 김운태, 2019; 박가열 외, 2023; 이민서, 김사현, 2021; 이정민, 2025; 황광훈, 2023).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청년 니트가 보이는 다양한 경로와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개인의 진로태도, 심리적 자원, 동기 수준에 따라 니트 상태의 유지·이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내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즉,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심리적·진로적 특성이 니트 상태의 전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는 접근이 보완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최근 연구들은 청년 니트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등 심리사회적 자원 수준, 진로 준비도, 개인적 동기 등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세분화한 뒤, 집단별 발달 경로와 특성을 분석하는 시도를 늘려가고 있다(김기민, 전지연, 2023; 윤소희, 김제현, 2023; 이로미 외, 2010; 이민서, 김사현, 2021; 전영창, 이선화, 2024; 조대연 외, 2018). 이러한 시각은 니트를 단순한 '문제 청년'이 아니라, 진로 이행기에 놓인 잠재적 전환자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진로경험, 심리적 회복력, 자기효능감 등 개인 심리자원의 차이에 따라 사회참여 이행 경로와 정책 개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청년 니트를 단순히 노동시장 이탈자로 규정하기보다, 그들의 진로발달 과정에 주목하는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니트 상태는 고용·교육 체계 밖에 위치한다는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진로 탐색 경험의 부족, 의사결정의 회피, 미래 계획의 결여 등 진로발달 과업 수행의 미완성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김기현 외, 2018; Eurofund, 2012; OECD, 2019). 이는 니트 상태가 고정적·영구적인 신분이 아니라, 진로발달 과업의 수행 정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과도기적 상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 니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요인을 전제로 하되, 그 속에서 청년들이 진로를 얼마나 탐색하고 계획하며 결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로발달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기민, 전지연, 2023).

이러한 점에서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는 진로 탐색,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의사결정, 실행 등 니트 청년에게서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결핍 양상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개념으로서, 청년 니트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진로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진로발달 과정의 준비 정도와 심리적 역량을 포괄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Crites(1971, 1978)는 진로성숙도를 진로선택 준비의 심리적 성숙도로 정의하며, 진로에 대한 태도와 능력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도 개발하였다. Super(1990) 역시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성숙도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며,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과업의 성취 여부를 진로성숙도의 주요 지표로 보았다. 이처럼 진로성숙도는 단순한 진로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의사결정, 실행 등 진로준비의 전 과

정을 반영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특히 진로 경로가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불안정한 청년 집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진로성숙도는 핵심적인 분석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동일한 니트 상태라 하더라도, 개인이 보유한 진로성숙도의 수준에 따라 진로에 대한 태도, 준비 정도,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로성숙도가 낮은 청년 니트는 진로 방향에 대한 혼란과 회피 경향이 두드러지며, 사회적 관계와 고용 기회에서 점차 멀어져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 위험이 높았다(김기민, 전지연, 2023; 채희원, 2023). 반대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년은 직업과 경력 목표에 대한 자기인식이 명확하고, 진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실행력이 높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거나, 교육·훈련을 통한 경력 개발로 전환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보고되고 있다(이정현, 서은희, 2024; 최솔, 장원섭, 202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진로성숙도가 단순히 현재의 진로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를 넘어, 청년 니트가 앞으로 어떤 경로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개입이 효과적인지를 예측하는 핵심적인 단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진로성숙도 수준에 따라 청년 니트의 변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수준별 맞춤형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성숙도가 낮은 집단에는 진로탐색과 자기이해를 증진하는 심층 상담과 동기 강화 프로그램, 반면 높은 집단에는 실질적인 구직기술 훈련과 경력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접근은 노동시장 재진입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구직효능감 등 심리·사회적 자원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매개·촉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금창민, 이해은, 2023; 김기민, 전지연, 2023; 김서현, 2025; 오탉희, 이해은, 2025; 채희원, 2023), 정책 설계 및 프로그램 기획 시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진로성숙도의 내적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이 활용되고 있다(Muthén & Muthén, 2000). LPA는 개인의 반응 패턴을 기준으로 동질적인 하위집단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이들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 청년 니트처럼 이질성이 큰 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다(Nylund et al., 2007; Pastor et al., 2007). 이러한 접근은 청년 니트를 단순히 ‘비활동’ 상태로 분류하는 것을 넘

어, 진로의식과 심리자원에 따라 상이한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진로성숙도의 잠재유형을 도출하는 것은,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유형이 어떻게 변화·전이되는지를 살펴보는 종단 분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청년 니트 집단의 이질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전영창과 이선화(2024)는 비경제활동 청년 니트를 유형화하고, 각 집단 간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윤소희와 김제현(2023)은 구직태도를 기준으로 청년 니트의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이민서와 김사현(2021)은 4년제 대학 졸업 청년 니트의 변화 유형을 종단적으로 탐구하였다. 박진원과 한창근(2024)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가 청년 니트의 취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청년 니트 집단 내부의 구조적 차이를 조명하였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은 진로발달 특성을 기준으로 청년 니트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집단별 심리적 특성과 진로 준비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로미 등(2010)과 조대연 등(2018) 또한 국내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니트 상태 탈출 가능성과 지원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청년 니트가 단일하고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자원, 진로 동기,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는 특정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하거나, 진로성숙도를 하나의 단일 차원 혹은 평균값으로 해석하는 접근을 사용했다. 이러한 접근은 니트 상태가 지니는 발달적 변화 가능성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심리적 요인의 작용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도 개인 내 이질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분석보다는 횡단적·평균 중심의 해석이 주를 이루어, 실제 청년 니트 집단이 지닌 복합적인 특성과 그 역동성을 세밀하게 조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 니트를 진로성숙도의 다차원적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유형(latent profiles)으로 유형화하고, 나아가 이들 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단면적 접근을 넘어선 동태적 관점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로성숙도의 절대적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니트 집단 내에서 상이한 진로성숙도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와 장기 니트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주 활용되는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각 유형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의 ‘잠재유형 간 전이(latent transition)’에 주목하였다. 이는 동일한 청년 니트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분석으로, 특정 시점의 정적인 프로파일 분석을 넘어 발달적·과정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유형으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 니트의 진로 개입 가능성을 보다 역동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진로성숙도의 전이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작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성숙도는 정서적 안정성과 행동 실행력이라는 두 축의 심리자원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며(Guan et al., 2013; Hirschi, 2009; Rudolph et al., 2017), 이러한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유형이 변화·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와의 연관성이 축적된 핵심 심리요인으로서, 정서적 자기개념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과 진로 행동 실행력을 나타내는 ‘구직효능감’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문세연, 2023; 이경희, 윤미현, 2011).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자기평가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진로 선택 과정에서의 자기결정성, 실패에 대한 회복탄력성, 외부 환경에 대한 태도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년은 자신의 가능성과 선택을 신뢰하며 진로 결정 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자신감은 진로문제 대처 능력 및 심리적 안정감과도 연결된다(고미나, 박재황, 2008).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의 형성 및 발달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구직효능감(job-seeking self-efficacy)은 개인이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채용정보 탐색 등 구직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을 뜻하며,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반한 하위 개념이다. 구직효능감은 구직활동의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 특히 진로 실행 단계에서 행동의 주도성과 일관성을 촉진하는 핵심 자원으로 간주된다(김상은 외, 201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구직효능감은 진로성숙도 가운데 계획 수립 및 실행 영역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실제 진로 행동의 실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천적 심리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은 각각 정서적 안정성과 행동 실행력을 대표하는 심리 사회적 자원으로, 진로발달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문세연, 2023; 박금남, 2018). 자아존중감은 진로에 대한 자기인식과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과 결정에 있어 내적인 동기와 주체성을 강화한다(고미나, 박재황, 2008; 류도희, 2021; 이경희, 윤미현, 2011). 그리고 구직효능감은 진로탐색 및 행동 실행 단계에서의 자기조절력과 실천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문세연, 2023; 여명숙, 2017)

국내 주요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은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진로에 대한 태도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 과정에서 자신감, 적응력, 주체성이 강화되며, 구직효능감은 진로 행동의 실제 실행력과 지속성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문세연, 2023; 한규철, 이현심, 2019). 이러한 특성은 진로성숙도가 단순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전이될 수 있는 발달적 개념임을 전제로 할 때, 두 요인이 진로성숙도 유형 간 전이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진로성숙도의 발달과 변화를 예측하고, 각 집단의 진로 적응력 및 행동 실천을 촉진하는 핵심 지표임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문세연, 2023; 한규철, 이현심, 2019).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은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론적·실천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청년 니트를 진로성숙도의 다차원적 지표에 따라 유형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성숙도 전이를 분석하며,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이 전이를 예측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니트를 ‘정체된 실업자’가 아닌 ‘진로전환기 청년’으로 새롭게 조망하고, 진로 개입의 방향성과 정책 설계에 있어 실질적이고 정교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년 니트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프로파일 간 전이 양상을 탐색하고, 이러한 전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진로성숙도에 따른 청년 니트의 잠재프로파일 유형 및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진로성숙도에 따른 청년 니트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진로성숙도에 따른 청년 니트의 잠재프로파일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이되는가?

연구문제 3.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확률은 니트 상태 지속 여부(이탈/유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4.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확률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 니트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에 대한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이 양상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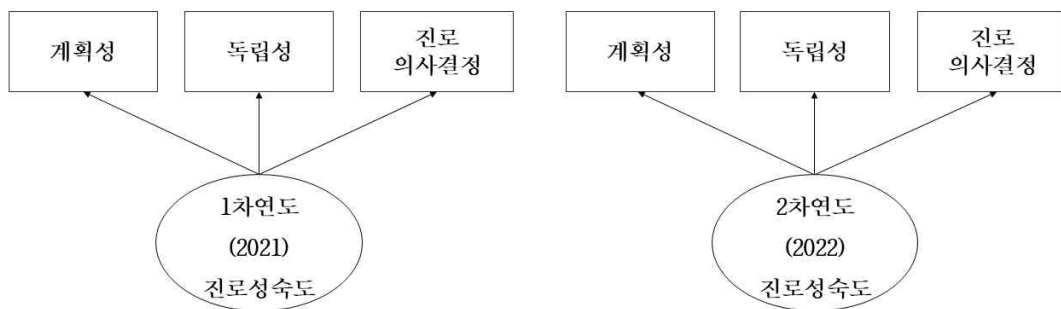
첫 번째 모형은 1차연도(2021년)와 2차연도(2022년) 두 시점에 걸쳐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성숙도의 세 하위요인(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을 지표변수로 하여 각 시점에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지표를 기반으로 한 시점별

진로성숙도 수준의 유형 구조를 파악하고, 각 유형 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모형은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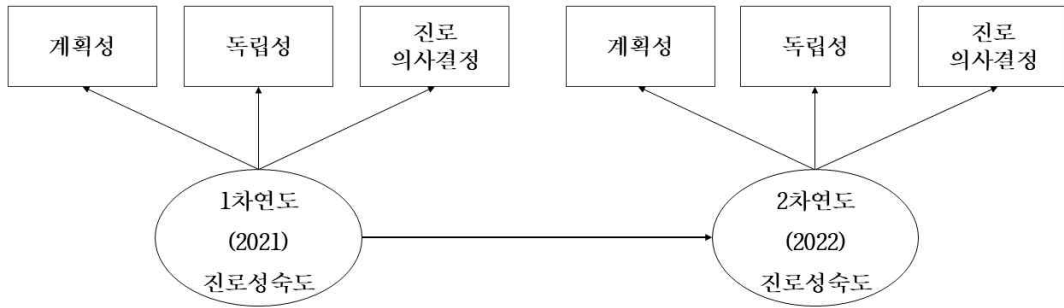
두 번째 모형은 1차연도(2021년)와 2차연도(2022년) 간 진로성숙도 잠재유형 간 전이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연도와 2차연도의 동일한 잠재유형 수를 전제로 조건부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였으며, 두 시점 간 진로성숙도 유형 간의 유지, 상향, 하향 전이 패턴과 전이확률을 파악하였다. 해당 모형은 [그림 1-2]와 같다.

세 번째 모형은 니트 상태 지속 여부에 따라 전이 양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차연도 니트 여부에 따라 니트 상태 이탈 집단(1년 미만 니트 상태 유지) 및 니트 상태 유지 집단(1년 이상 니트 상태 유지)으로 청년 니트 집단을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집단에 대해 동일한 LTA 모형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니트 상태 지속 여부에 따라 진로성숙도 전이확률 및 전이 방향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해당 분석모형은 [그림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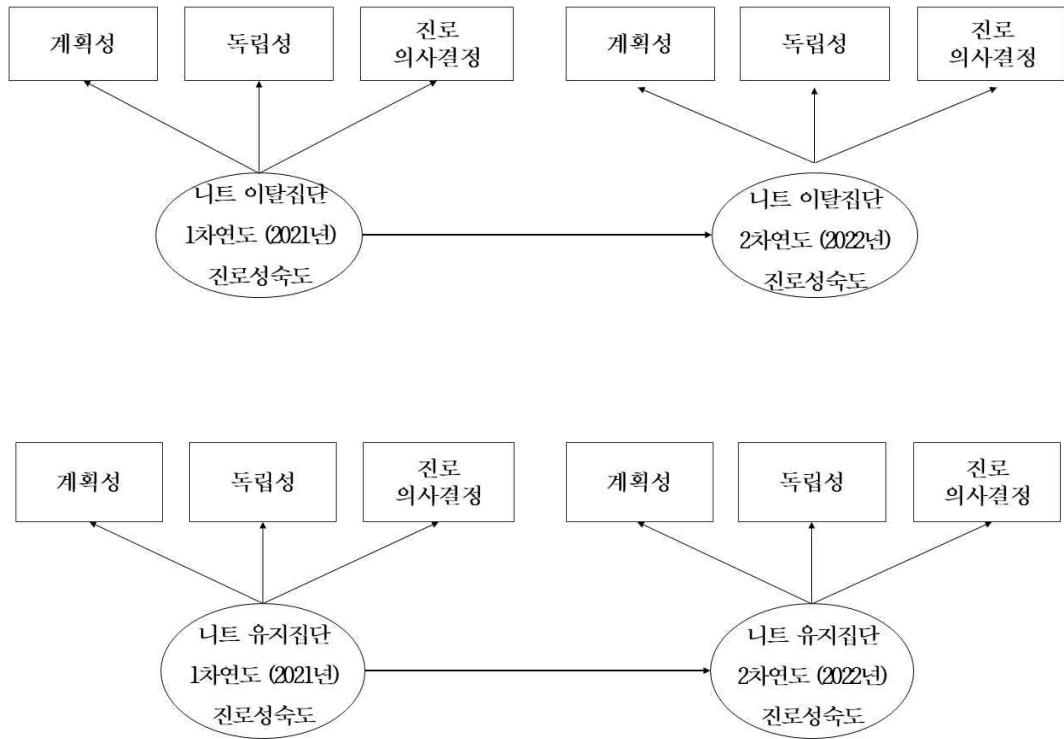
마지막 네 번째 모형은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진로성숙도 전이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연도에 측정된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전이유형(상향 전이, 유지, 하향 전이)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LR)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변화 양상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분석모형은 [그림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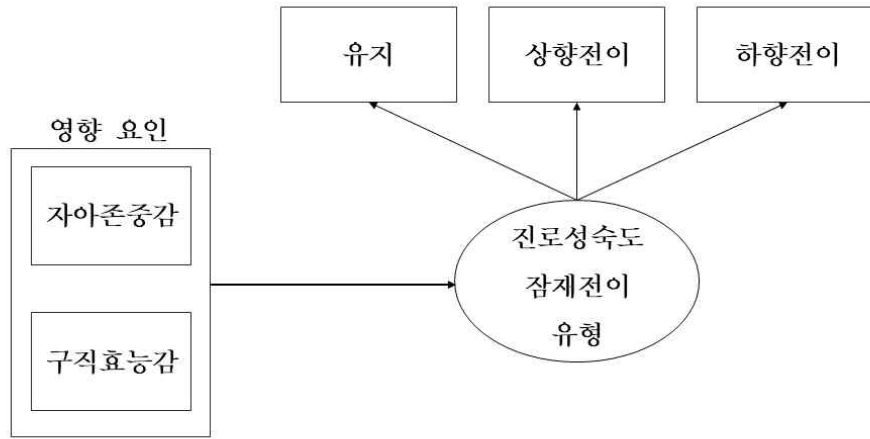
[그림 1-1] 청년 니트의 1~2차연도(2021-2022)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분석모형



[그림 1-2] 청년 니트의 1-2차연도(2021-2022) 진로성숙도 잠재전이 분석모형



[그림 1-3] 청년 니트의 니트 상태 지속 여부별 진로성숙도 잠재전이 분석모형



[그림 1-4]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전이에 미치는 자아존중감 및 구직효능감의 예측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청년 니트(NEET)

#### 가. 니트의 정의 및 특징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는 개념은 1999년 영국 사회배제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 SEU)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며, 당시에는 의무 교육을 마친 만 16~18세 청소년 중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고, 취업하지 않았으며,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였다(SEU, 1999). 일본 후생노동성(2004)은 15~34세 미혼 청년 중 학교를 졸업한 뒤 가사나 통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상태의 사람을 니트로 규정하며, 실업자·기혼자·가사 종사자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OECD(2014)는 15~29세 청년 중 교육, 고용, 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니트로 정의하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를 모두 포함하였고, 유럽연합은 니트를 구직형(실업자)과 비구직형(자발적, 기회추구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다(Eurofound, 2012; European Commission, 2020). 이처럼 국외 주요 기관 및 학자들은 니트를 단순한 고용 상태가 아닌, 교육과 훈련의 기회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간주하며,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청년 실업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니트가 정책 및 학문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니트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연구자, 조사기관, 정책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단일한 기준으로 합의되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조정되는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금재호(2007)는 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교육 재학생, 입시·취업 목적의 학원·기관 참여자를 제외한 청년을 니트로 정의하였다. 채창균 등(2008)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쉬었음’을 포함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미혼이고 가사·육아 등 생산적 활동을 주로 하지 않으며, 최근 1주일 동안 발령대기·취업 및 진학 준비·군입대 대기·결혼 준비 등의 사유로 활동

하지 않은 청년을 니트로 보았다. 이후 김종욱(2017) 또한 취업자, 정규 교육 재학생, 입시·취업 관련 학원·기관 참여자, 가사·육아 종사자, 기혼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 청년을 니트로 규정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도 기준을 달리한다. 이민서와 김사현(2021)은 만 19~29세 미혼 청년 중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고, 입시·취업학원에 다니지 않으며, 육아 또는 가사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을 니트로 정의하였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은 19~28세 비경제활동 청년 가운데 정규 교육, 고용, 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니트로 구분하였다.

국제 기준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존재한다. 영국 사회배제위원회(SEU, 1999)는 의무교육을 마친 16~18세 청소년 중 교육·고용·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니트로 처음 개념화하였다. Furlong(2003)은 니트를 고용·교육·훈련에서 이탈한 상태로 규정하며 이를 청년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 보았다. 일본 후생노동성(2004)은 15~34세 미혼 청년 중 학교 졸업 후 가사나 통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의 사람을 니트로 정의하며, 실업자·기혼자·가사종사자 등은 제외하였다. 한편 OECD(2014)는 15~29세 청년 중 정규 교육·고용·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자를 니트로 정의하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2020)은 교육·고용·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15~29세 청년을 구직(실업형)과 비구직형(자발형·기회추구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연구자 및 기관들은 니트 개념을 교육·고용·훈련 참여 여부(활동상태)뿐 아니라, 가사·육아 여부, 혼인 여부, 비경제활동 사유, 심리·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기준을 조합하여 정의하고 유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니트가 단일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이질적 군집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교 정리는 아래 <표 I-1>에 제시하였다.

<표 I-1. 주요 연구자(기관)별 니트의 정의 및 유형화 방식>

연구자/연구기관	니트 정의 및 유형화 방식
금재호 (2007)	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 교육기관 재학생, 그리고 입시·취업 목적의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한 자
채창균 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음’을 포함한 비경제활동 상태에

연구자/연구기관	니트 정의 및 유형화 방식
(2008)	있으며, 미혼이고 가사·육아 등 생산적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청년으로서, 지난 1주일 동안 발령대기·취업 및 진학 준비·군입대 대기·결혼 준비·기타 이유로 활동하지 않은 자
김종욱 (2017)	취업자, 정규 교육 재학생, 입시·취업 목적의 학원·기관 참여자, 가사·육아 종사자, 기혼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 청년
이민서, 김사현 (2021)	만 19~29세의 미혼 청년 가운데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 아니며, 입시·취업학원에도 다니지 않고, 육아나 가사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
김기민, 전지연 (2023)	19~28세 비경제활동 청년 중 정규 교육, 고용, 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자
사회배제위원회(SEU) (1999)	의무교육을 마친 16~18세 청소년 중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하지 않았으며,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인 자
Furlong (2003)	고용·교육·훈련에서 이탈한 상태로 정의하며, 이를 청년 배제(exclusion)의 한 형태로 간주
일본 후생노동성 (2004)	15~34세 미혼 청년 중 학교를 졸업한 뒤 가사나 통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의 사람. 실업자, 기혼자, 가사 종사자 등은 제외
OECD (2014)	15~29세 청년 중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고용되지 않았으며,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자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자 모두 포함
유럽연합(EU) (2020)	교육·고용·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15~29세 청년을 구직(실업자)과 비구직형(자발형, 기회추구형 등)으로 세분화

이처럼 니트에 대한 개념은 시기, 국가, 정책 목적, 연구자의 분석 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온 만큼, 단일한 범주로 고정하기보다 다양한 분류 기준과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니트 집단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입 방향과 정책적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첫째, 니트 상태의 지속기간에 따라 ‘단기 니트’와 ‘장기 니트’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니트는 일시적으로 비활동 상태에 놓인 집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장기 니트는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체계에서 장기간 이탈한 상태로, 심리적 위축과 진로정체감,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보다 집중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이 요구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둘째, 구직의지 여부를 기준으로는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나뉜다. 구직 니트는 니트 상태에 있으나 취업 의지를 가진 청년으로, 정보 접근성이나 기술 부족 등 외재적 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구직 니트는 구직 의지 자체가 낮거나 단념한 상태로, 이들은 취업의지 결여, 진로목표 부재, 낮은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향이 강하다(김영미, 2018).

셋째, 니트 상태에 이르게 된 경로와 주관적 선택성에 따라 ‘자발적 니트’와 ‘비자발적 니트’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발적 니트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일시적 유예 선택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를 미루는 경우로, 상대적으로 심리적 안정성과 자기통제감이 유지될 수 있다. 반면, 비자발적 니트는 고용기회의 부족, 건강 문제, 가정환경, 사회적 낙인 등 구조적 제약에 의해 원치 않게 니트 상태에 머무는 집단으로, 진로개입에서 더 심화된 심리적·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처럼 청년 니트는 지속기간, 구직의지, 선택의 자발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될 수 있으며, 각 기준은 진로개입의 방향성과 강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분류는 서로 중첩되거나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청년이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는지 혹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뜻하는 ‘니트 지속 여부(이탈/유지)’가 가장 핵심적인 분류 기준이자 정책 개입의 우선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교육·고용·훈련 참여 여부와 같은 외형적 기준을 넘어서, 진로발달 특성을 기반으로 청년 니트를 유형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은 정규 교육, 고용, 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19~28세 비경제활동 청년을 니트로 정의하고, 진로발달 및 심리·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여러 변인을 중심으로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니트 집단 내에서도 진로태도, 심리적 자원, 진로준비 수준 등에서 이질적인 하위 유형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니트의 내면적 역량과 개입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년 니트가 결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다양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집단임을 강조한다(김기민, 전지연, 2023; 윤소희, 김제현, 2023; 이로미 외, 2010; 이민서, 김사현, 2021; 전영창, 이선화, 2024; 조대연 외, 2018).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이나 고용과 같은 외형적 상태만으로 니트

를 정의하기보다는, 진로 동기, 심리적 고립, 근로 의지, 삶의 만족도 등 내면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한 분류와 정의가 필요하다는 학문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Lórinč et al.,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니트는 단순히 경제활동 참여 여부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청년기의 복합적인 삶의 조건과 구조적 맥락을 반영하는 사회현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청년 니트는 교육·고용·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라는 외형적 조건만으로 규정되기보다, 다음과 같은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특성들 속에서 다각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첫째, 니트는 공식적인 실업자나 재학생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배제나 정책적 소외의 위험이 크다(Lórinč et al., 2019). 국내외 연구에서는 니트 상태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경기침체, 노동시장 구조 변화, 복지제도의 미비 등 구조적 취약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현상임을 공통적으로 보고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장기 경기침체 이후 가계 부양에 의존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낮아진 청년 니트층이 증가하였고(김기현, 2005), 한국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이정민, 2025; OECD, 2019).

둘째, 청년 니트는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하고, 정서적 고립과 낮은 심리적 안정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니트 집단은 또래에 비해 외로움, 우울, 낮은 자존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는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된다(Bell & Blanchflower, 2011; Coles et al., 2010; Goldman-Mellor et al., 2016). 국내 연구에서도 청년 니트는 사회적 소외와 불신을 겪으며 심리적 고립이 심화된다고 분석된 바 있고, 국제 논의에서는 청년 니트가 교육, 고용, 가족 등 주요 사회적 관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주변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이로미 외, 2010; Goldman-Mellor et al., 2016; Paabort et al., 2023). 이러한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은 단순히 심리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기 삶의 질 전반과 미래 진로의 기대치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청년 니트는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으로도 사회적 통합 수준이 저조한 경향을 나타낸다. OECD(2016)는 니트 경험이 누적될수록 노동시장 복귀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Furlong 등(2003)의 종단연구 역시 니트 경험 청년들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직업의 안정성, 소득 수준, 시민참여와 같은 사회적 통합 영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높

음을 밝혔다.

이처럼 청년 니트는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상태에 속해 있더라도, 형성 배경, 지속 요인, 심리적 특성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이질적 집단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니트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 맥락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층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나.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청년기는 사회로의 이행과 진로정체성 형성이 집중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직업, 교육, 훈련 등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니트는 진로발달의 기회를 제한받기 쉽다(Arnett, 2000; Erikson, 1968). 단순히 경제활동에의 참여 여부를 넘어, 니트 상태는 청년의 진로목표 설정과 실행 과정, 진로정체성 형성 등 전반적인 진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노혜진, 2021). 이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을 단선적 경로가 아닌 다양한 배경과 변화 양상을 지닌 복합적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다(김기민, 전지연, 2023; 이민서, 김사현, 2021).

진로동기와 진로심리 특성을 중심으로 청년 니트를 유형화한 연구에서는, 니트 상태가 진로결정의 유예나 회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김기민과 전지연(2023)은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정규 교육·고용·직업훈련에서 모두 이탈한 19~28세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태도와 심리·사회적 특성을 포함한 다차원적 변인을 기반으로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한 결과, 일부 집단에서는 낮은 진로계획성과 미결정 상태가 두드러져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유예·회피적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니트 상태가 단순한 비경제활동이라는 외형적 조건을 넘어,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내적 취약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은 사회적 관계자원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혜진 등(2019)은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전문가·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지지, 그리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의 도전 경험이 진로탐색과 자아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혀냈다. 이는 청년 니트와 유사한 취약군의 진로발

달이 개인 내적 자원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의 질과 범위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니트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진로이행 과정의 유동성을 보여준다. 이민서와 김사현(2021)은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을 대상으로 집단중심 궤적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 GBTM)을 적용해 니트 상태의 변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니트 유지형, 비니트-니트 변동형, 빠른 니트 탈출형, 느린 니트 탈출형의 네 가지 궤적을 도출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거주, 부모와의 동거, 시험 준비나 사교육 경험과 같은 사회경제적·진로준비 요인이 각 궤적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의 배경과 진로준비 방식이 진로이행의 방향과 속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니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청년이 동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은 아니며, 변화의 가능성과 양상은 개인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심리적 요인과 삶의 태도 역시 청년 니트의 진로지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금창민과 이해은(2023)은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구직효능감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구직효능감을 보호하는 핵심 심리자원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로미 등(2010)은 질적 분석을 통해, 자기효능감·진로계획성·진로주도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취약한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머물거나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 환경 또한 청년의 진로이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맥락이다. 박진원과 한창근(2024)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니트의 취업 속도와 지속 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지원은 일부 유형에서는 조기 취업으로 이어지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여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청년의 진로이행 과정에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동시에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같이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은 심리, 관계, 삶의 태도, 가족 배경, 제도적 자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정태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청년 니트 집단에 대한 진로지원은

획일적인 처방이 아니라, 유형별 특성과 진로 경로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

## 2. 진로성숙도

### 가. 진로성숙도의 개념 및 특징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는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발달 과업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심리·사회적 개념이다(김봉환 외, 2007; Crites, 1973; Super, 1955). 여기서 말하는 ‘발달 과업’에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행위를 넘어서, 장·단기 목표 설정, 구체적 계획 수립, 자원 탐색, 실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능력,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를 탐색·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진로 행동을 실행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다면적 구조로 이해된다(Savickas & Porfeli, 2012).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주로 연령이나 발달 단계별 상대적 성취 수준이라는 정태적 지표로 보았으나, 이후의 이론적·실증적 탐구에서는 내적 심리자원과 외적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다차원적·유동적 발달 개념으로 확장·해석하고 있다(서우석, 2015).

이 개념의 학문적 기원은 Super(1957, 1980)가 제시한 생애진로발달(life-span, life-space)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Super는 진로발달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 하는 발달 과업의 수행 정도를 진로성숙도의 핵심 지표로 보았다(전태련, 2016). 구체적으로, 성장기(약 0~14세)는 자아개념이 발달하고 직업에 대한 태도와 기본적인 흥미가 형성되는 시기로, 미래의 진로 선택을 위한 심리적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탐색기(약 15~24세)는 직업적 자아개념을 구체화하는 시기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탐색과 시도가 이루어지며 직업적 선호와 능력 간의 조화를 찾는 것이 핵심 과업이다. 확립기(약 25~44세)는 선택된 직업에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쌓는 시기로, 직업적 정착과 승진을 통해 자아개념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유지기(약 45~64세)는 이미 확보한 직업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과를 강화하는 단계로, 직무 능력의 향상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

로 쇠퇴기(65세 이후)는 직업 활동에서 점차 은퇴하고 다른 삶의 역할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하고 자아의 가치를 재조정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최원석, 김표민, 2021).

이처럼 그는 연령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진로성숙도가 향상된다고 보는 단순 연령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개인의 진로발달 경로가 사회·경제·심리적 사건, 교육 및 경력 경험, 우연한 기회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순환·반복·역행할 수 있는 비선형적 과정임을 강조하였다(Super, 1990). 이러한 관점은 진로성숙도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정된 선형 경로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 변화에 따라 구조와 수준이 재편성될 수 있는 유동적·발달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한다. 다만, Super의 이론은 발달 과업의 성취 개념을 생애 전반의 장기적 틀에서 설명하는 데 강점을 지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행동적 요소들이 진로성숙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성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념적 수준에 머물렀다(Patton & Lokan, 2001). 이러한 점에서 Super의 거시적 이론 틀을 토대로, 진로성숙도의 구체적 구성요인과 하위 요소 간의 관계를 체계화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심리적 구조로 정립한 연구가 바로 Crites(1973, 1978)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Crites(1973, 1978)는 Super의 발달론적 틀을 계승하면서, 진로성숙도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그는 진로성숙도를 ‘태도(attitudes)’와 ‘능력(competencies)’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Savickas & Porfeli, 2011). ‘태도’ 영역에는 진로결정에 필요한 주체성, 독립성, 책임감, 계획성과 같은 심리·정서적 준비 요인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이 진로문제를 대하는 방식, 동기의 강도, 주도성 수준 등을 반영한다. 한편 ‘능력’ 영역에는 직업세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 진로정보의 탐색과 분석·활용 능력, 다양한 대안 중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력, 그리고 계획된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동 역량이 포함된다. Crites는 이 두 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균형(alignment)을 이룰 때 진로성숙도가 심리적·행동적으로 모두 강화된다고 보았다(전태련, 2016; Crites, 1973, 1978). 즉, 의욕과 방향성을 갖춘 태도가 있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능력이 부족하면 진로발달은 지연되며, 반대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했다라도 태도·동기의 부족은 행동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진로행동이 중단되거나 미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

적했다(Koen et al., 2012).

Crites(1969, 1978)는 또, 진로성숙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어려움을 진로미결정성(career indecision)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결핍·실패의 고착 상태라기보다 발달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역적 상태로 이해되며(Germeijs & De Boeck, 2002), 대표적으로 정보 부족, 자기이해 부족, 그리고 의사결정 회피 유형이 있다(Osipow, 1999). 특히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미결정성은 태도와 능력의 정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Hirschi, 2011). 이러한 세분화는 이후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간 연계와 불균형을 분석하고, 맞춤형 진단과 개입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측정적 틀을 제공하였다(Kelly & Lee, 2002). 무엇보다 Crites의 작업은 진로성숙도를 단일 연속선상의 고-저 개념이 아니라, 하위요인의 조합과 균형 상태에 따라 다양한 구조적 유형이 형성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립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Super, 1990).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은 이러한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이해를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층 확장해 설명한다(Lent et al., 1994; Lent & Brown, 2013). SCCT에 따르면 진로 목표의 설정과 실행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 진로 목표(goal setting)와 같은 인지적·동기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경제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신체적 건강 상태와 같은 외적 맥락 요인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Lent & Brown, 2013). 이는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 맥락에 적용한 결과로, 개인의 내적 심리자원과 외적 환경자원이 상호작용하며 진로발달을 이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Lent와 Brown(2013)은 개인의 실행력, 독립성, 자기조절력과 같은 내적 자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려면, 가족·교사·또래 등 사회적 지지망과 진로 관련 정보 접근성 같은 환경적 지원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합이 충족될 때 진로에 대한 계획과 결심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어느 한 요소가 결여될 경우 실행력 저하, 의사결정 지연, 목표 미달성 등 진로발달의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이처럼 진로성숙도는 발달적·구조적·맥락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Crites(1973, 1978)가 제시한 태도와 능력의 이원구조는 이후 연구들에서 가장 널리 활용된 개념적 틀로 자리 잡았다(전태련, 2016). Crites(1973, 1978)는 진로성숙도를 태도와 능력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진로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

되는 심리적 태도로서의 계획성과 독립성, 그리고 실제 진로선택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 능력을 핵심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틀은 진로성숙도를 단순히 발달 단계별 성취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내적 자원과 구체적 행동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후속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Westbrook(1983)은 진로성숙도의 주요 차원을 제시하면서 계획성, 독립성, 자기이해, 의사결정 능력을 중심에 두었고, 이는 진로 탐색과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 양상을 포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1991)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 척도를 개발할 때 계획성·독립성·의사결정을 중심축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 청소년 집단에서도 이 세 요인이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김소영 등(201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이론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로 계획성, 독립성, 정보활용, 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고 이를 12회기 활동으로 구조화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하위요인들이 실제 교육·상담 맥락에서 진로성숙도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계획성·독립성·진로의사결정은 진로성숙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 세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개인의 진로 준비성과 전환 가능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구체적 구조를 논의함에 있어, 이 세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요인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계획성(planfulness)은 개인이 미래 진로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는 역량을 뜻한다(김소영 외, 2013). 계획성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가장 이론과 임상 모두에서 중요성이 높게 군집되며(Crites, 1973; Savickas & Porfeli, 2012), 실제로 계획성이 낮을 경우 진로목표 도달률이 크게 저하되고 진로 행동의 지속성도 떨어진다는 실증 연구가 보고됐다(김봉환 외, 2007).

둘째로 독립성(independence)은 진로의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외부(부모, 친구, 사회)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탐색·결정하는 심리적 역량이다(양미란, 2008). Crites(1973)는 독립성을 ‘진로성숙의 동력원’으로 규정하며, 독립적 사고가 부족할 경우 역할정체(role diffusion)와 진로불안(career anxiety)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희(2013) 등은 독립성의 결여가 진로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정

보탐색을 회피하고, 비현실적 진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making)은 구체적인 직업 선택 및 행동 실행 역량이다(김소영 외, 2013). 진로성숙도 이론에서는 계획성·독립성·정보탐색이 갖추어져도 의사결정단계가 지체되거나 회피될 경우 실제 진로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의사결정력이야말로 진로성숙도의 행동적 완성(behavioral completion)을 의미한다(Crites, 1978).

Crites(1973, 1978)는 진로미결정성(career indecision)을 진로발달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심리적 현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핵심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과 밀접하게 연결지어 해석하였다. 진로미결정성은 단순히 진로선택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로계획과 목표 설정, 실행 전략 수립 등 진로성숙도 전반의 성취와 밀접한 상호작용 구조를 가진다(Priyashantha et al., 2023). 이에 따라 Crites는 진로미결정성을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Gati & Asher, 2001). 첫째, 정보 부족형(information-deficit)은 진로 관련 정보의 결여 또는 불완전함에서 비롯되며,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혼란을 경험한다. 둘째, 자기이해 부족형(self-knowledge-deficit)은 자신의 가치관, 능력, 진로정체감에 대한 내부적 성찰이 미흡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의사결정 회피형(decision avoidance)은 진로선택의 불확실성이나 부담을 과도하게 인식하여 결정 자체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로,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아 진로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Crites, 1973, 1978). 이러한 유형 구분은 이후 진로결정 곤란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Gati & Asher, 2001), 특히 정보 부족·자기이해 결여·회피적 결정 경향이 진로미결정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Kelly & Lee, 2002).

Crites의 진로미결정성 이론은 이 세 유형이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는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 개인의 진로성숙도 발달 단계에서 경직, 유예, 혹은 퇴행의 다양한 궤적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한다(Crites, 1978). 더욱이 이들 미결정성의 유형은 단순한 결함이나 고착이 아니라, 발달적 관점에서 잠정적이고 변동 가능한 특성임을 시사한다(Crites, 1978). 즉, 적합한 진로정보 제공, 자기탐색 활동의 강화, 실행전략 훈련 및 피드백 체계 도입 등 구조적·심리적 개입을 시행할 경우, 미결정성은 궁극적으로 극복 가능하며 진로성숙도의 핵심 역량—자기이해,

계획화, 실행력—의 통합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및 이행 과정 전반에 필요한 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 역량을 포함하는 발달적 개념으로 이해됨에 따라, 이러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진로성숙도가 단일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해 왔다(신성현, 전주성, 2020).

먼저, 개인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과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비롯해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진로탄력성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보고되어 왔다. Super(1957)는 진로성숙도가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국내 종단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송민경(2011)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성숙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학령 증가와 함께 진로결정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 증가가 반드시 진로성숙도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인의 경험과 맥락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도 함께 제시되었다(김예수, 조봉환, 2009).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진로성숙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심리·사회적 자원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태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서우석, 2017; 신성현, 전주성, 2020). 한편, 구직효능감은 구직 과정(예: 정보탐색, 면접 준비, 전략 실행)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신념을 의미하며, 진로 발달 단계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적 자원으로 제시되어 왔다(Saks & Ashforth, 1999). 특히 구직을 준비하는 초기 성인기나 대학생의 진로발달 맥락에서, 구직효능감은 진로성숙도 구성요인인 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핵심 변인으로 주목된다(문세연, 2023).

한편,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및 소득 수준, 부모지지, 진로지도 경험, 교사나 또래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진로상담 참여, 양육태도, 대화 빈도 등과 같은 변수들이 진로의사결정과

진로탐색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윤경, 최혜진, 2024).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경제적 배경보다는 자아개념이나 자기효능감 등 개인 내적 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도 보고되었다(서우석, 2017; 최인희, 2019).

요약하자면, 진로성숙도는 다양한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받으며 발달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진로문제에 주체적으로 접근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내적 자원으로 작용하며, 구직효능감 역시 진로성숙도의 핵심 하위요인인 계획성, 독립성, 의사결정 역량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성숙도는 단순히 진로에 대한 태도를 넘어, 개인의 자아 인식과 심리적 역량, 환경적 지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발달적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 나.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청년 니트 집단에서 진로성숙도는 사회적 이행과 노동시장 편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청년기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본격화하는 시기인데, 이때 진로성숙도가 낮으면 구직행동으로의 연결이 지체되거나 회피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니트 상태란 본래 교육, 고용, 훈련 등 사회적 경로에서 동시에 이탈한 상태를 의미하는 만큼, 진로성숙도의 결여가 장기적 미취업이나 비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특히 크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사회적 자립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도 노동력 손실과 복지 지출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 OECD(2016)는 니트를 단순히 ‘노동시장 비참여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에서 배제된 잠재 위험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진로성숙도 저하가 장기적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 연구 또한 청년 니트의 낮은 진로성숙도가 미취업 장기화와 맞물려 사회적 배제, 빈곤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구혜경, 2024),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발달과제가 아닌 정책적 차원의 핵심 과제를 시사한다.

한편,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는 진로발달, 진로결정, 진로의식, 진로정체감, 진로적응력 등 여러 진로 관련 개념과 맞닿아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나, 각각의 개념은 진로발달의 서로 다른 국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Savickas(1997)는 진로성숙도를 진로 선택 과정에서 요구되는 탐색·선택·결정 단계의 심리적 준비도와 의사결정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이후 Savickas와 Porfeli(2012)는 급변하는 직업환경에서 개인이 변화에 대응하고 경력 전환을 관리하는 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을 제시하였다. 진로적응력은 변화에 대한 대응과 조정 능력에 초점을 두는 반면(한정아, 2023), 진로성숙도는 진로 선택 이전의 준비성과 결정 과정의 성숙도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보적이지만 상이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 니트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특히 중요해진다. 청년 니트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지연되거나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어, 진로탐색·진로결정·진로준비 및 실행이라는 기본적인 진로이행 단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Eurofound, 2012; OECD, 2016). 선행연구에서도 니트 상태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 라기보다는, 교육에서 고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로 선택과 준비라는 초기 단계가 구조적으로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데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금재호, 2007).

실제로 국내 청년 니트 연구에서도 계획성 부족, 낮은 진로탐색 수준, 정보활용 능력 부족, 독립적 의사결정의 미성숙 등이 취업 지연과 니트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김기민, 전지연, 2023; 박진원, 한창근, 2024; 채희원, 2023).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진로성숙도의 핵심 구성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진로성숙도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태가 니트 상태 형성에 중요한 심리적·행동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 니트의 진로 문제는 이미 정착된 직업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진로적응력)보다는, 직업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도와 결정 역량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를 이해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Furlong, 2006). 이러한 점에서 진로성숙도는 니트 상태가 형성 및 지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청년 니트의 진로 문제는 ‘왜 적응하지 못했는가?’ 보다는 ‘왜 진로 선택·준비·결정 과정이 자리 잡지 못했는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 질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진로성숙도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성숙도가 단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은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잠재프로파

일 분석을 실시하여 ‘적극적 진로발달형’, ‘의사결정 부족형’, ‘자포자기형’, ‘소극적 진로발달형’의 네 집단을 도출하였다. 이 중 ‘자포자기형’ 집단은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관련 지표가 가장 낮고,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 수준도 유의하게 낮은 집단으로 나타나 진로발달의 심각한 침체를 보여준다. 반면 ‘적극적 진로발달형’ 집단은 니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로계획과 탐색, 향후 근로 의향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주체적인 진로발달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니트 집단 내부에 동기와 심리적 자원 측면에서 뚜렷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한편, 윤소희와 김제현(2023)은 비경제활동 청년 니트를 잠재계층분석(LCA)으로 분류한 결과, ‘취업준비형’, ‘진로결핍형’, ‘기회추구형’의 세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성에 근거한 차별적 청년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민서와 김사현(2021)은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을 대상으로 집단중심 궤적모형(GBTM)을 적용하여 니트 경험의 변화 양상을 ‘비니트-니트 변동형’, ‘비니트 유지형’, ‘빠른 니트 탈출형’, ‘느린 니트 탈출형’으로 구분하고, 거주 지역, 가구 소득, 부모와의 동거 여부,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사교육 경험 등이 유형 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수준과 니트 경험의 궤적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개인·환경 요인에 따라 상이한 위험·자원 프로파일을 형성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단일 시점의 횡단적 분석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요인이 상향 또는 하향 전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망되지 못했다(이민서, 김사현, 2024). 또한, 진로성숙도를 단순히 고·저 수준으로 구분하는 접근은 하위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성숙도를 진로미결정성, 낮은 진로계획성, 자기효능감, 실행력 부족 등 심리·행동적 요인과 연결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채희원, 2023; 황광훈, 2023).

진로성숙도는 공통적으로 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Crites, 1978). 이들 요인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특정 요인이 결핍될 경우 진로발달 과정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니트 집단에서는

특히 진로의사결정 요인의 결핍이 두드러지며, 이는 진로미결정성(career indecision)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자기이해와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유보형’ 집단은 전형적인 진로미결정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반대로 모든 하위요인이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은 진로발달 초기 단계에서 이미 자원이 결핍된 상태이며, 이러한 경우 장기적인 니트 고착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는 진로성숙도의 저수준이 장기 미취업과 결합할 때 사회적 배제 위험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김기민, 전지연, 2023; 이민서, 김사현, 2024).

이러한 논의는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를 단순히 정태적 지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종단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보유한 심리사회적 자원과 환경적 조건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발달적 개념이므로, 니트 집단의 전이 양상을 포착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즉, 진로성숙도를 기반으로 한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유형으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이러한 전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면,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개입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자아존중감

####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특징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 심리학적 개념으로, 수십 년간 심리학과 교육학, 상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 왔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 정의하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을 단순한 정서적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한 것이다. Rosenberg(1965) 또한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심리적 기반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정의

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행동, 정서, 사회적 적응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 학업 성취,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심리적 태도로 이해되며(민성혜, 유영미, 2006), 삶의 만족, 진로결정, 사회적 관계와 같은 주요 영역에서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자아존중감은 단순히 개인 내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형성된 자기평가가 종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구조적 성격을 가진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의 원천을 가족의 수용 경험, 학교 및 또래 관계에서의 성취, 그리고 개인이 중시하는 규범과의 일치 여부에서 찾았다. Harter(1993)는 자아존중감을 다차원적 자기개념의 통합적 평가로 보고, 사회적 수용, 학업 성취감, 신체적 능력, 외모에 대한 자기평가 등이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Marsh와 Craven(2006)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과 전반적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경험이 전반적 심리적 안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맥락적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자아존중감은 영역별 자기평가의 총합으로 형성되며,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 나아가 학업적 성취뿐 아니라 진로 탐색과 결정 과정에서의 성취 경험, 구직 시도의 성공과 실패, 직업적 역할 수행에서의 인정과 같은 진로 관련 경험 역시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적 맥락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rikson(1968)은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이 긴밀히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안정화에 결정적인 시기로 설명하였다. 이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학업 성취, 또래 관계, 사회적 인정 경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정체감 혼란이나 대인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성인기의 정신건강과 진로적응을 강력하게 예측한다(Trzesniewski et al., 2003). 국내 성인기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사회적 경험에 따라 상이한 변화 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창민, 2017). 이는 자아존중감이 단일한 특질이 아니라 발달 단계

에 따라 그 형성과 안정성이 달라지는 심리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발달적으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개인이 겪는 사회적 기회와 환경적 자극에 따라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달적 맥락은 자아존중감의 안정성과 변동성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Heatherton과 Polivy(1991)는 자아존중감을 특성적 자아존중감(trait self-esteem)과 상태적 자아존중감(state self-esteem)으로 구분하였다. 특성적 자아존중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자기개념의 핵심으로, 개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영한다. 반면 상태적 자아존중감은 구체적 사건이나 사회적 피드백에 의해 단기적으로 변동하며, 실패나 사회적 거절, 성취 여부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 Trzesniewski 등(2003)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단기간 내에 급락하거나 회복되는 패턴이 사회적 사건과 긴밀히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을 이해할 때 안정성과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사회적 과도기 단계에 있는 청년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높은 자아존중감이 항상 긍정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어적 자아존중감의 개념이 주목받아 왔다. Kernis(2003)는 표면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보이나 실제로는 내적으로 불안정하여 외부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적하며 이를 방어적 자아존중감이라 개념화하였다. 방어적 자아존중감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자기과시적 행동을 보이는 등 불안정한 행동 양상을 유발할 수 있다(Robins & Beer, 2001). Kernis(2003)는 외현적으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취약성이 큰 방어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이 평가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불안정한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방어적 자아존중감과 진로 관련 변인 간의 직접적인 경험적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다만 방어적 자아존중감은 회피적 행동이나 소극적 대처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연구에서는 회피적 대처 전략인 체념과 위축이 심리적 안녕과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Brandstätter & Herrmann, 2015), 이는 방어적 자아존중감을 지닌 개인이 진로 탐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기보다 회피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아존중감을 단순히 ‘높다/낮다’라는 양적 차원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자아존중감의 질적 속성—안정적 내면화인지, 아니면 방어적 과잉 보상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자원이 취약한 청년 집단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높은 자존감을 보고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내적 기반을 가진 방어적 자존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진로성숙도의 지속적 향상보다는 정체나 하향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Haddock & Gebauer, 201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과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 형성되고 사회적 맥락에 의해 강화 또는 약화되며, 안정성과 변동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Orth et al., 2018). 나아가 자아존중감은 항상 긍정적 자원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성과 내면화 여부, 방어적 속성에 따라 상반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Kernis, 2003). 이는 자아존중감을 단순한 수준적 지표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조적 구성과 발달적 맥락, 질적 속성과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적 이행기의 청년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내면화된 자기확신으로 작용할 경우 진로성숙도의 발달을 촉진하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방어적 기제로 작용할 경우 오히려 변화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하향적 경로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ernis, 2003).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그 다차원성과 맥락적 조절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청년 니트와 같이 사회적 이행에서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진로성숙도 전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 나. 청년 니트의 자아존중감

청년기는 자아정체성과 진로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발달 시기로,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rikson(1968)은 청년기를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의 단계로 설명하면서, 자기 자

신에 대한 긍정적 정체감과 안정된 자아존중감의 확립이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직업적 적응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Arnett(2000)이 제시한 발달적 과도기(emerging adulthood) 개념 또한 청년기의 특성을 강조하는데, 이 시기는 교육, 고용, 가족 형성 등 사회적 전환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며,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 역시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청년 니트는 이러한 발달적 과도기의 특징이 극대화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교육, 고용, 훈련이라는 사회적 경로에서 동시에 이탈한 상태는 사회적 역할의 결여와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곧 자아존중감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반복된 구직 실패, 진로목표 부재, 사회적 낙인 경험 등은 자기효능감과 자기가치감의 약화를 불러오며, 이는 결국 자아존중감 저하로 귀결된다(금창민, 이해은, 2023; 전영창, 이선화, 2024).

청년 니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심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금창민과 이해은(2023)이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해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연령별 다집단분석에서 경로 차이를 보고하였다. 이는 구직 과정의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행동적 효능감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을 구직 지원의 우선적 개입 표적으로 설정할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노현주와 김운태(2019)는 학력 수준별 비교 분석에서 일부 학력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니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취약성이 니트 위험과 맞물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을 넘어, 구직역량과 사회적 통합 가능성에도 간접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자원임을 뒷받침한다.

자아존중감은 니트 상태의 지속성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단기적 니트 상태는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저조한 경우 환경적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구직이나 진로탐색에 나서지 못해 장기 니트 상태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김기현, 2017). 최근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니트를 비교한 결과, 구직중단형 니트 집단의 심리적 위기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의 취약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지은주 외, 2024).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는데, 일본의 니트 및 히키코모리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은둔과 장기적 고립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Saito,

2013), 유럽 청년실업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 수준이 장기 실업을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지표임이 확인되었다(Feinstein & Hammond, 2004).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은 단순한 정서적 지표를 넘어 청년 니트의 행동 패턴과 대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회피, 수동적 대처, 우울·불안으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금창민과 이해은(2023)은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경우 구직효능감이 현저히 약화되고, 이는 다시 구직 행동의 동기와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완전매개 구조를 확인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할 수 없다’는 신념이 강화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한 탐색이나 시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아존중감이 항상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존중감을 이중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Kernis(2003)는 방어적 자아존중감(defensive self-esteem) 개념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나 내적으로는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외부의 인정과 성취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작은 실패에도 쉽게 흔들리며, 자기개념을 과도하게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또한 방어적 자아존중감을 지닌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공격적 태도나 자기과시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년 니트의 맥락 볼 때 이러한 방어적 자아존중감이 현실적 진로계획이나 구직행동보다는 심리적 회피와 자기합리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을 단순히 ‘높다/낮다’로 평가하는 것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며, 내적으로 안정적이고 내면화된 자존감인지 아니면 외부적 보상에 의존한 취약한 자존감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은 또한 청년 니트의 구직의지와 행동 변화 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는 행동 실행 신념과 결합할 때 실질적 변화를 촉진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구직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구직효능감은 다시 구직행동을 매개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금창민, 이해은, 2023). 이는 자아존중감이 단순한 정서적 지표가 아니라 행동적 변화를 촉진하는 기반임을 보여준다. 다만 방어적 자존감의 경우 구직효능감과 정렬되지 못하면서 오

히려 구직 회피나 실패의 반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Robins & Beer, 2001).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그 수준뿐 아니라 질적 특성에 따라 청년 니트의 행동 양상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개인 내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맥락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부모-자녀 관계, 가족의 경제적 지원,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낙인 경험 등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매개하여 청년의 진로 행동과 사회참여를 설명할 수 있다(Vanhalst et al., 2013). 특히 한국의 청년 니트는 높은 학력 기대와 경쟁적 교육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진입장벽에 직면하면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고정된 성향이 아니라 발달과정 속에서 변동 가능한 심리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개입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유연하며, 상담·심리적 지원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실제로 금창민과 이혜은(2023)은 청년 니트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구직효능감 및 구직행동에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동함을 실증하며, 진로지원 현장에서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심리적 개입이 핵심적임을 제안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단순히 개인 성격 특성에 그치지 않고, 환경적·상담적 개입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자원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청년 니트 집단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단순한 개인 심리 특성을 넘어 진로 탐색, 구직행동, 정서적 안녕, 사회적 참여와 밀접히 연관된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기능과 영향은 개인의 심리적 구조, 대처 양식, 환경적 자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방어적 자존감처럼 변화 가능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진로지원 개입과 정책 수립 시에는 자아존중감의 ‘수준’ 뿐 아니라 ‘기능적 성격’과 ‘역동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는 진로와 관련된 태도, 계획, 의사결정 능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개인이 진로발달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Crites, 1978). 이때 진로성숙도는 단지 진로 선택의 준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기결정능력 등 심리적 자원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안성식, 박인숙, 2019). 특히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심리 변인으로서, 진로발달의 과정 전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최윤미, 이문희, 2011).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내적 동기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개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적 배경에 기반한다. 즉,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수록 진로탐색과 계획, 선택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며, 이는 진로성숙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적 태도로 인해 진로결정 과정에서 소극적이거나 미결정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김봉환 외, 2007).

이와 같은 이론적 전제는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도 지지를 받아왔다. 예를 들어 유준상과 서우석(2013)은 진로성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을 메타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와 중간 이상의 효과 크기를 나타내며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진로태도,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지표들과 안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진로성숙을 촉진하는 기반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의 기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양상이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민혜, 오인수, 2025).

이동욱(2023)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진로성숙도가 단순한 진로정보의 축적이나 의사결정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개인 내면의 정체성과 자기평가의 안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문세연(2023)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의 시간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의 증가율이 높고, 초기 진로성숙도가 낮더라도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면 진로성숙도 역시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대한 고정된

예측지표가 아닌, 변화 가능성을 지닌 조절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자아존중감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특정 상황이나 집단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진로불안을 경험하거나 진로결정에 대한 혼란이 높은 집단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민성혜와 유명미(2006)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독서치료 개입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결과, 진로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고 진로계획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의 증진은 진로성숙도 향상의 간접적 수단이자, 내적 자원의 회복을 통해 진로이행을 지원 하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진로발달의 특정 시점뿐 아니라,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변화를 설명 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심리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진로성숙도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특성을 지니며, 그 변화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확인되었으며(박혜숙, 전명남, 2014), 이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진로 태도와 결정 과정이 촉진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진로성숙도가 단순히 발달 단계에 따른 정태적 지표가 아니라, 심리적 자원과 맥락적 경험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역동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결국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효능감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며, 자아존중감은 그 과정에서 긍정적이거나 때로는 회피적인 태도로 작용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Pignault et al., 2023). 특히 변화의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청년기의 진로이행 과정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진로발달의 경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기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다 개인화된 진로개입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4. 구직효능감

### 가. 구직효능감의 개념 및 특징

구직효능감(job search self-efficacy)은 개인이 구직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을 의미한다(김상은 외, 2017). 이 개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에 근거를 둔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뜻하며, 이는 실제 행동의 선택과 지속성, 실패에 대한 회복탄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구직효능감은 이러한 자기효능감 개념을 구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여, 개인이 일자리 탐색, 지원서 작성, 면접 등 각종 구직 단계에서 스스로의 역량과 의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평가하게 한다(김상은 외, 2017).

구직효능감은 단순한 태도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각 구직 단계(채용정보 탐색, 글쓰기, 지원 서류 준비, 면접 응시, 네트워크 활용 등)에서 자신이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 자기역량 인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정우진, 정승철, 2021). 김현동과 한용석(2012)은 구직효능감은 구직자는 자신이 일자리를 찾는 다양한 활동(채용정보 탐색, 서류 준비, 면접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역량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이는 구직 목표 달성에 대한 내적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즉, 구직효능감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구직계획 수립, 문서작성 및 지원, 면접 대처, 사회적 상호작용 등 여러 인지·정서·행동이 결합된 복합적인 구성요인으로 이해된다.

Kanfer 등(2001)은 구직행동 자체가 일회적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자기조절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구직효능감은 실패 후 회복, 새 전략 채택, 목표 지속의 원천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구직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채용정보를 탐색하고, 이력서 준비 및 자기소개서 작성, 다양한 취업활동에 더욱 능동적으로 임하며, 실패나 거절을 경험하더라도 쉽게 낙담하지 않고 구직행동을 지속한다(이상무 외, 2017). 이러한 개인은 구직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실질적인 구직 성과에서도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구직효능감은 구직동기와 행동 지속력, 실패 후 회복탄력성까지 아우르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구직효능감의 구성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왔다(김상은 외, 2017). 첫째, ‘구직계획 수립’에 대한 자신감이 대표적이다. 이는 구직 목표 설정, 일정 관리, 전략적 접근에 대한 자기지각을 포괄한다. 둘째, ‘문서 작성 및 지원 준비’ 자신감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온라인 채용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 셋째, ‘면접 대처 능력’으로, 면접장에서 긴장 조절, 논리적 응답,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등이 중요한 세부 측면이다.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맥 형성, 구직정보 탐색, 멘토링 활용 등이 포함된다(김도희, 2022). 이외에도 구직행동에 따른 ‘정서조절과 실패 극복력’, ‘동기 유지·행동의지’가 하위요인으로 제시된다. 이는 구직효능감이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 심리지표임을 의미한다.

구직효능감(job search self-efficacy)은 청년의 구직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심리자원으로, 그 영향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우선 구직효능감은 구직 과정의 행동적 측면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발휘한다. 구직효능감이 높은 청년일수록 채용정보 탐색, 지원서류 준비, 면접 응시 등 구직의 각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며, 실제로 구직행동의 빈도와 지속성이 높게 나타난다(김현동, 한용석, 2012; 오현주, 오성욱, 2022). 이들은 취업 목표 달성에 대한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실패나 거절을 경험하더라도 쉽게 낙담하지 않고 행동을 반복하거나 전략을 수정하며 구직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구직효능감은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구직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구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며, 부정적 감정에 압도당하기보다는 해결방안 모색과 자기조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지혜 등(2017)은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구직효능감의 상승과 함께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구직효능감이 구직 스트레스의 완충 요인으로 작동하며, 실패 경험 이후에도 긍정적 자기평가와 목표지향적 태도를 유지하는 기제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구직효능감의 영향은 단순한 행동 동기와 심리적 대응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적응력에도 확장된다. 구직효능감이 높은 청년은 또래 집단, 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을 보인다(서경희 외, 2015). 이는 구직정보 탐색, 인맥 구축, 취업 후 직장 내 적응 등에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직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구직 성공 이후에도 조직 적응,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전반적인 사회참여와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기적 긍정 효과를 경험한다(최경미, 박지원, 2022).

구직효능감의 높은 수준은 삶의 만족도 및 미래 전망과도 직결된다. 구직효능감이 자신의 역량과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강화하면서, 청년은 취업 과정뿐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이행과제에서 더 높은 만족과 자기 존중감을 얻기 쉽다. 실제로 구직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적 개입, 상담, 집단 지원 등은 성공 경험의 반복, 자기효능감 강화, 사회적 자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전반적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지혜 외, 2017).

구직효능감은 진로성숙도를 비롯한 진로심리 변수들과도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우예영과 박현정(2024)은 청년 취업자의 진로성숙도·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직효능감이 핵심적 매개 기능을 수행함을 보고했는데, 이는 실제 진로계획과 행동 실행에 구직효능감이 정서적 기반이 되며 실행의지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김현동과 한용석(2012)은 구직효능감이 구직강도(job search intensity), 즉 행동의 빈도와 강도에서 긍정적 상관을 보이며, 실제 취업 성공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지혜 등(2017)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구직효능감이 상승한 집단에서 구직 스트레스 감소, 행동 지속, 삶의 만족 증가가 동반됨을 보고하였다. 즉 구직효능감은 심리적 태도이자 실천적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으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적 개입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요컨대 구직효능감은 개인의 구직행동, 진로탐색과정, 실패 후 재도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심리적 요인이다. 최근에는 취약집단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진로교육, 심리상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각종 실천적 개입에서 구직효능감의 정밀한 측정과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이승진 외, 2024). 구직효능감은 청년 니트와 같은 고위험군의 진로 전략 수립과 직업개입 정책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할 심리·사회적 준거틀임을 시사한다.

## 나. 청년 니트의 구직효능감

청년기는 사회진입기적 특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기로, 개인의 진로목표 설

정과 실행에 있어 심리적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은 교육, 고용, 훈련 등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진로개발에 있어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노혜진, 2021). 이때 구직효능감은 청년 니트의 진로활동을 재구성하고 구직 과정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심리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구직효능감은 청년 니트의 구직행동을 동기화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금창민과 이해은(2023)은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직효능감이 구직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 반응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심리적 무기력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직효능감이 행동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구직효능감이 높은 청년일수록 구직 과정에서 좌절을 견디고 전략을 조정해나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니트의 구직효능감은 단순한 개인 특성의 결과가 아닌,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고용상태 및 지원 수준, 지역 내 취업 인프라, 진로교육 경험 등의 요인은 청년 니트의 구직효능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전영창, 이선화, 2024). 또한, 채희원(2023)은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교육 경험이 구직효능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단순히 ‘구직 의향’이 아니라 ‘구직을 할 수 있다’는 자기신념의 회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직효능감은 니트 집단 내에서도 이질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창민과 이해은(2023)은 청년 니트를 구직형, 구직단념형, 준비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 간 구직효능감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직단념형은 구직효능감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심리적 탈락(disengagement) 상태에 있는 청년 니트에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진로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구직형이나 준비형 니트는 구직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진로전환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 세분화된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직효능감은 청년 니트의 진로행동과 정서적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지만, 그 기능은 다른 심리적 자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자기결정성 동기 등의 심리적 자원

이 구직효능감과 함께 청년의 진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지혜 등(2017)의 연구에서는 역량 프로그램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함께 구직효능감을 강화시킨다고 밝혔으며, 이는 개별 변인의 단선적 영향보다 복합적 맥락에서 구직효능감을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청년 니트의 구직효능감은 진로행동의 활성화와 이행 준비도의 지표로 기능하며, 이는 구직 기회의 실제화뿐 아니라 진로의지와 자기정체성 회복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니트의 구직효능감은 낮은 경우가 많고, 그 수준은 니트 유형 및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구직효능감의 고취를 위한 개입은 집단별 세분화된 전략과 심리적 맥락 고려가 필수적이다. 특히 구직효능감은 단일한 예측변인이라기보다 진로개입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정서적 촉진 요인으로 기능하며, 자아존중감 등 타 심리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영향력이 발현될 수 있다.

#### 다. 진로성숙도와 구직효능감

진로성숙도와 구직효능감은 진로행동의 준비성과 실행력을 대표하는 핵심 심리적 요인으로, 두 변인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진로성숙도가 개인의 진로 태도, 계획성, 의사결정과 같은 준비된 심리적 자원을 의미한다면, 구직효능감은 이러한 준비 상태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과 기대를 반영한다. Super(1990)의 생애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진로발달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발달적 과업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개념과 준비된 태도가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태도적 준비에 머물러서는 실제 진로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진로 맥락에 적용한 구직효능감이 진로성숙도의 실질적 실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부각된다.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 또한 진로발달에서 자기효능감을 중심적 기제로 설명하며, 개인이 직면하는 진로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행동적 선택, 노력, 지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Lent et al., 1994). SCCT에서는 효능감이 과업의 성격에 따라 영역 특수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데(Lent et al., 1994), 진로 탐색·결정·구직과 같이 서로 다른 진로과업은 상이한 형태의 효능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자

기효능감과 구별된다(Lent & Brown, 2013).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구직효능감은 구직이라는 특정 진로과업에 초점을 둔 영역 특수적 효능감으로서, 진로성숙도가 지닌 태도적 준비성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동기적 매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진로성숙도가 ‘준비된 태도’를 의미한다면, 구직효능감은 SCCT가 제시하는 자기효능감-결과기대-행동 경로를 통해 이러한 태도가 구체적 행동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실행적 자원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 진로성숙도와 구직효능감은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상호의존적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두 변인의 밀접한 관련성이 다수 확인되어 왔다. 김현동과 한용석(2012)은 구직효능감이 구직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핵심적 요인임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계획적 행동과 실행의지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예영과 박현정(2024)은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구직효능감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즉, 단순히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직효능감이라는 심리적 매개가 있을 때 진로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지혜 등(2017)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이후 구직효능감이 향상되면서 진로결정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적 개입을 통해 구직효능감을 강화하는 것이 진로성숙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김도희(202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불안이 진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관계에서 구직효능감이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직효능감이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완충하면서 진로계획과 준비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정서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외 연구 또한 효능감이 진로발달의 핵심적 동력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다. Blustein(1989)은 자기개념의 안정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 행동을 예측한다고 보고하며, 준비된 태도와 자기신념이 함께 진로발달을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Creed 등(200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이 진로 관련 태도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 자기기대와 신념이 진로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Lent 등(1994)은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 모형을 확장하여 진로태도, 자기효능감, 성취기대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함

으로써, 효능감이 진로행동의 핵심 예측요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는 특정 효능감의 종류(일반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에 따라 세부 맥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효능감이 진로 관련 행동을 촉발·유지시키는 핵심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구직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중심의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구직효능감은 기존 효능감 연구에서 확인된 작동 원리가 구직 맥락에 특수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지닌 태도적 준비성을 실제 구직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업 특수적 효능감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진로성숙도와 구직효능감의 관계는 정태적인 상관에 그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와 전환 과정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진로성숙도는 발달 단계마다 새로운 과업과 요구에 직면하면서 증진되거나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는 역동적 개념이다(Crites, 1978; Savickas, 2012).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구직효능감은 개인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도전을 극복하고, 계획된 진로 태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청년기의 진로이행 과정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과 높은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데(Arnett, 2000), 이 시기에 구직효능감은 진로성숙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심리적 방어벽이자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와 구직효능감을 상호보완적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청년기의 진로개입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청년패널조사 2021(YP2021)’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YP2021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표하는 전국 표본을 바탕으로, 교육과 훈련, 노동시장 경험, 진로 및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종단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응답자를 해마다 반복 조사하는 패널 구조라는 점에서 청년기의 진로이행과 전이 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평가된다(김기민, 전지연, 2023).

본 연구는 니트 상태의 ‘지속’과 ‘이탈’을 판단하는 경험적 기준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활용되는 1년 단위에 근거하여(OECD, 2019), ‘청년패널조사 2021(YP2021)’의 1차(2021년)와 2차(2022년)의 1년 간격 자료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의 측정 문항 구성이 1·2차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어, 1년 간의 변화와 전이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 양상과 심리적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니트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 대상을 설정하였다. 특히 김기민과 전지연(2023)의 연구를 기반으로, 니트를 ‘정규 교육, 고용, 직업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태의 청년’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를 YP2021의 조사 항목에 적용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응답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첫째, 현재 학생이 아닌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상태는 여전히 제도적 이행 경로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고용과 훈련에서도 이탈한 상태를 의미하는 니트와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니트의 정의에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금재호, 2007; 김종욱, 2017; 이민서, 김사현, 2021; 채창균 외, 2008; OECD, 2014).

둘째, 경제활동 상태가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된 청년만을 포함하였다. YP2021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류 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과 비경

제활동은 소득 유무가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통계청, 2023a). 이에 따라 입사 지원, 면접 등과 같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우는 실업자로, 이러한 활동이 없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

셋째,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28세로 설정하였다. 만 19세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로, 정규 교육과정의 이행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진로 탐색과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해당한다. 또한, 만 28세는 청년기 후반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이며, 진로 결정 및 성숙도 수준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의 연구에서도 만 19세 이상 28세 이하를 중심으로 니트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진로발달과 심리적 요인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연령대임을 시사한다.

넷째, 최근 1주일간 직장 또는 일거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고용 상태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소득이나 직업적 역할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니트 상태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준은 실업과 무업을 구분짓는 실증적 구분으로도 활용된다.

다섯째, 지난 1주일간의 주 활동이 ‘취업 준비’, ‘진학 준비’, 또는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류 기준에서 모두 비경제활동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하위 유형으로, 정규 교육·고용·직업훈련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통계청, 2023a). 특히 ‘취업 준비’는 자격증 준비, 공부, 포트폴리오 제작 등과 같이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준비 단계의 활동으로, 입사지원이나 면접과 같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준비 단계의 청년 역시 니트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정의와 부합하며(금재호, 2007; 김종욱, 2017; 이민서, 김사현, 2021; 채창균 외, 2008; OECD, 2014), 교육·고용·훈련에서 이탈해 있으면서도 진로 복귀를 시도하거나 유예하는 전이적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쉬었음’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사회적 고립과 진로유예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Lórinç et al., 2019), 니트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혼인상태는 ‘미혼’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는 결혼 여부에 따라 생계 책임과 경제활동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기혼자의 경우 진로발달보다는 가족

생계를 위한 고용 참여가 우선시될 수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구혜경(2024)은 기혼 청년이 진로개발보다는 생계형 노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진로성숙도에 대한 심리적 영향 요인을 해석함에 있어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규 교육기관 통학’, ‘학원 수강’, ‘군입대 대기’, ‘가사 및 유아 돌봄’, ‘심신장애’, ‘발령 대기’ 등과 같이 교육·훈련·고용 참여가 제도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는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은 진로유예라기보다는 환경적·제도적 조건에 의해 경제활동이 제한된 상태로 분류되어야 하며, 자발적 진로탐색의 부재 또는 심리적 요인과는 다른 구조적 해석이 필요하다(Lórinç et al., 2019).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정제 및 결측값 처리를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874명의 청년 니트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니트 상태 지속 여부에 따라 다시 1차연도에만 니트 상태였던 니트 이탈 집단 545명과, 1차연도와 2차연도 모두 니트 상태를 유지한 니트 지속 집단 329명으로 구분되었다. 최종 선정된 874명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1>와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874)

구분		사례 수(명)	비율(%)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성별	남성	437	50.0	거주 지역	서울	142	16.2
	여성	437	50.0		경기	175	20.0
최종 학력	고졸미만	5	0.6		인천	46	5.3
	고졸	365	41.8		세종/충청권	144	16.0
	전문대졸	131	15.0		강원	10	1.1
	대졸	367	42.0		제주	18	2.1
	석사학위 이상	6	0.7		전북	40	4.6
연령	19~21세	184	21.1		광주/전남	67	7.7
	22~25세	417	47.7		대구/경북	74	8.5
	26~29세	273	31.2		부산/울산/경남	158	18.1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각각 437명(50.0%)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22~25세가 417명(47.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6~29세가 273명(31.2%), 19~21세가 184명(21.1%) 순이었다. 이는 전체 분석대상자 중 다수가 20대 중후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367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365명(41.8%)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전문대졸은 131명(15.0%)이었고, 고졸 미만과 석사학위 이상은 각각 5명(0.6%) 및 6명(0.7%)으로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였다. 전체적으로 학력 분포는 고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경기 지역이 175명(2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58명(18.1%), 서울이 142명(16.2%), 세종/충청권(세종·대전·충북·충남)이 144명(16.5%)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구·경북 74명(8.5%), 광주·전남 67명(7.7%), 전북 40명(4.6%), 인천 46명(5.3%), 제주 18명(2.1%), 강원 10명(1.1%) 순으로 분포하였다. 이처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의 비중이 전체의 약 41.5%로 높은 편이었으며, 이외의 지역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가.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청년패널조사(YP2021) 1차 및 2차연도에 수록된 진로발달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준비도 검사’의 일부 항목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계획성(4문항), 독립성(4문항), 진로의사결정(4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신뢰도 분석 결과, 계획성(Cronbach's  $\alpha = .875$ )과 독립성(Cronbach's  $\alpha = .870$ )은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진로의사결정의 경우, 정방향 문항(문항 9번)을 포함했을 때 Cronbach's  $\alpha$ 는 .688로 낮게 나타났으나,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역문항 3개(문항 10~12번)만으로 구성했을 경우 신뢰도는 .840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하위요인은 역문항 3개만으

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획성·독립성·진로의사결정의 3요인 구조를 가정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III-2>와 같이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robust CFI = .951, robust TLI = .935, robust RMSEA = .085[90% CI = .075~.096], SRMR = .045). 하위요인별 문항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모두 .70 내외의 양호한 값을 보여, 계획성과 독립성 문항은 각각 .76~.84, .74~.83 범위에서 유의하게 적재되었다. 진로의사결정 요인 역시 역문항 3개 모두 .71~.85 수준의 유의한 부하량을 보여 단일 요인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요인 간 상관은 계획성과 독립성 간에 비교적 높은 관련성이 나타난 반면(표준화 상관 = .78), 진로의사결정 요인은 두 요인과의 상관이 약하게 나타나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 진로성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Estimate		S.E.	C.R.	
		B	$\beta$			
진로성숙도	계획성	계획성1	1.000	.838	-	-
		계획성2	1.017	.823	0.027	37.953***
		계획성3	0.870	.773	0.042	20.544***
		계획성4	0.842	.763	0.043	19.641***
	독립성	독립성1	1.000	.787	-	-
		독립성2	1.049	.831	0.041	25.680***
		독립성3	1.024	.812	0.048	21.344***
		독립성4	0.893	.741	0.041	21.641***
	진로의사결정	진로의사결정1	1.000	.710	-	-
		진로의사결정2	1.157	.749	0.065	17.735***
		진로의사결정3	1.117	.838	0.058	19.401***

\*\*\*  $p < .001$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표 III-3>과 같이 계획성(4문항), 독립성(4문항), 진로의사결정(3문항)으로 구성된 총 11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세 하위요인을 각각 독립된 진로심리 요인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I-3〉 진로성숙도 측정 문항

변인	문항	역문항	신뢰도	
진로성숙도	계획성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875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	
	독립성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	.870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	
	진로 의사 결정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작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	.840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	
		지금까지 나는 진로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	

##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청년패널조사(YP2021) 1차 및 2차연도에 수록된 ‘구직동기’ 문항 중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구직준비도 검사’에 기반하며, 선행연구에서도 청년층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도구로 활용된 바 있다(정여주, 권정숙, 2019). 모든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역채점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96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아존중감의 측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단일 요인 구조를 가정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III-4〉와 같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FI = .996, robust TLI = .992, RMSEA = .048[90% CI = .018~.078], SRMR = .011). 모든 문항은 비표준화 계수 기준으로 유의한 요인적재량을 보였으며(C.R. = 24.829~27.895,  $p < .001$ ), 표준화 요인적

재량 또한 .77~.85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척도가 단일 요인으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모형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III-4> 자아존중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Estimate		S.E.	C.R.
		B	$\beta$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1.000	.846	-	-
	자아존중감2	1.006	.770	0.040	25.368***
	자아존중감3	1.013	.804	0.036	27.895***
	자아존중감4	1.011	.781	0.041	24.829***
	자아존중감5	0.995	.782	0.036	27.817***

\*\*\*  $p < .001$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III-5>와 같이 해당 5문항을 자아존중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I-5> 자아존중감 측정 문항

변인	문항	역문항	신뢰도
자아존중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해낼 자신이 있다	-	.896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	-	
	나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꼭 이루는 편이다	-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	

## 다.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은 청년패널조사(YP2021) 1차 및 2차연도에 수록된 ‘구직동기’ 문항 중 구직효능감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구직준비도 검사’에 기반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구직행동과 진로 관련 태도에 대한 자기효능 신념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금창민, 이혜은, 2023). 모든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2개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5문항의 Cronbach' s  $\alpha$ 는 .5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문항이 포함된 자기보고식 단일요인 척도에서 보고된 바 있는 신뢰도 범위에 해당하며, 탐색적 연구에서는  $\alpha = .50\sim.60$ 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Hinton et al., 2004; Nunnally & Bernstein, 1994; Schmitt, 1996).

구직효능감의 측정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 요인 구조를 가정한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III-6>과 같이 모형 적합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 = .830, TLI = .659, RMSEA = .201, SRMR = .110), 특히 역문항 2개는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낮게 나타났다(.06~.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직효능감의 개념적 타당성과 원척도의 구조, 선행연구의 활용 사례(금창민, 이해은, 2023; Kanfer et al., 2001; Saks & Ashforth, 2000)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 III-7>과 같이 5개 문항 전체를 단일 척도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I-6> 구직효능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Estimate		S.E.	C.R.
		B	$\beta$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1	1.000	.746	-	-
	구직효능감2	0.162	.093	0.092	1.769
	구직효능감3	1.009	.775	0.065	15.489***
	구직효능감4	0.104	.060	0.086	1.209
	구직효능감5	1.032	.771	0.062	16.649***

\*\*\*  $p < .001$

<표 III-7> 구직효능감 측정 문항

변인	문항	역문항	신뢰도
구직효능감	나는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593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0	
	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다	-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 답답하다	0	
	어떻게 하면 나의 적성에 잘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	

## 라. 기타 측정문항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간 특성 차이를 탐색하고, 전이 유형별 배경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변수들을 함께 활용하였다.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경제적 지원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구직활동 여부, 향후 근로 의향은 청년패널조사 문항 중 사회인구학적 및 진로행동 특성과 관련된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대부분 명목 또는 서열척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별은 남/녀, 경제적 지원 여부는 있음/없음,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음’부터 ‘매우 좋음’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프로파일 간 비교 및 전이 양상 분석의 설명변수로 활용되었다.

## 3. 분석방법

### 가. 분석절차

본 연구는 청년 니트(NEET)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시점 간 전이 양상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청년패널조사(YP2021) 1차연도(2021년) 및 2차연도(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김기민과 전지연(2023)이 동일 패널자료를 기반으로 설정한 청년 니트 정의를 참고하여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필터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은 만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 중 현재 ‘학생이 아니고’, ‘비경제활동 상태’이며, ‘최근 1주일간 직장 또는 일거리를 보유하지 않았던’ 자로 한정하였다. 여기에 더해, 미취업자 중에서도 지난 1주간 주로 한 일로 ‘취업준비’, ‘진학준비’, 또는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만을 포함하였다. 해당 문항에 ‘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또는 직업훈련기관 통학’,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발령대기’ 등을 응답한 자는 제외하였으며, ‘기타’, ‘응답거절’ 항목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혼인상태는 ‘미혼’인 청년으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21년(1차연도)과 2022년(2차연도) 모두에서 니트 상태가 확인된 청년 874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1차연도에는 모두 니트 상태였지만 2차연도 니트 상태 지속 여부에 따라 ‘니트 상태 이탈집단’ (545명)와 ‘니트 상태 유지집단’ (329명)로 구분되었다.

이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첫째,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 간 중복성 및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이후 분석모형 설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1에 따라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수준에 따른 이질적 하위집단을 탐색하기 위해 1차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Mplus를 사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 문항이 활용되었으며, 잠재유형의 수 결정은 AIC, BIC, entropy 지수, Lo-Mendell-Rubin 검정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동일한 절차로 2차연도 데이터에도 Mplus를 활용하여 LPA를 실시하였으며, 두 시점 간의 잠재유형 구조를 비교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2에 따라 1차연도 LPA로 도출된 잠재유형 간 인구사회학적 및 심리행동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한 교차표 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경제적 지원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구직활동 여부, 향후 근로 의향 등의 변인이 활용되었다. 본 분석은 청년 니트 집단의 초기 상태를 중심으로 각 잠재유형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반하였으며, 모든 분석대상이 동일한 조건(1차연도 니트 상태) 하에 있는 시점에서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차연도 시점에서는 일부 청년이 니트 상태를 벗어난 상황이 포함되므로, 동일 조건에서의 특성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성 분석은 1차연도 데이터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설계는 선행연구들(Collins & Lanza, 2010; Nylund et al., 2007)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으로, 초기 상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후 전이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를 검토하기 위해 1차연도와 2차연도에 도출된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결과를 바탕으로 수동 3단계 접근(manual 3-step approach)에 따라 잠재전

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였다. 각 시점에서 최고 사후확률 (posterior probability)에 따라 분류된 집단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동일한 개인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전이확률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은 시점 간 동일한 집단 수와 측정구조를 가정한 동형모형(invariant model)을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전이빈도 및 전이확률 산출과 데이터 전처리에는 R 프로그램의 dplyr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3에 따라 니트 상태 지속 여부(이탈/유지)에 따른 진로성숙도 전이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을 1차연도와 2차연도 모두 니트 상태를 유지한 ‘니트 유지’ 집단과 2차연도에는 니트 상태를 벗어난 ‘니트 이탈’ 집단으로 사전 분류하였다. 이후 각 집단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잠재전이분석(LTA)을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 및 해석하였다. 분석에는 앞서 도출된 1차연도 및 2차연도 잠재프로파일 구조(3개 유형)가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니트 지속기간에 따라 진로성숙도 전이 경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연구문제 4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진로성숙도 전이를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전이유형(유지/상향/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1차연도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LR)을 R 프로그램의 nnet 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진로성숙도 전이유형은 도출된 잠재유형 간 상대적 수준과 각 하위요인(진로계획성과 실행역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잠재유형 간 위계를 ‘고성숙형 > 결정유보형 > 저성숙형’의 순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지’는 1차연도와 2차연도에 동일한 유형에 속한 경우, ‘상향 전이’는 진로계획성과 실행역량 수준이 더 높은 유형(예: 결정유보형에서 고성숙형)으로 이동한 경우, ‘하향 전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유형(예: 고성숙형에서 저성숙형)으로 이동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진로성숙도의 질적 변화 방향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 나. 주요 연구방법

### 1)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연구대상자의 잠재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소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 혼합모형 기법(mixture modeling techniques)의 하나로, 연속형 지표변수를 바탕으로 모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잠재집단을 탐색하는 데 활용된다(McLachlan & Peel, 2000; Muthén, 2001; Pastor et al., 2007). 이는 기존의 변수 중심 접근방법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나 영향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사람 중심 접근방법(person-centered approach)은 개인의 응답 패턴을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함으로써 개인 간 이질성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Bergman & Magnusson, 1997; Bergman & Trost, 2006).

LPA는 전체 모집단이  $K$ 개의 잠재집단(latent classes)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관찰된 연속형 변수 벡터  $y_i$ 가 잠재집단  $k$ 에 속할 확률은 다음과 같은 확률혼합모형 형태로 표현된다.

$$f(y_i) = \sum_{k=1}^K \pi_k \cdot f_k(y_i | \theta_k)$$

여기서  $\pi_k$ 는 개인이 집단  $k$ 에 속할 확률(class membership probability),  $f_k(y_i | \theta_k)$ 는 집단  $k$ 에서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  $\theta_k$ 는 집단별 모수를 의미한다. 이때 각 집단의 확률  $\pi_k$ 는  $\sum_{k=1}^K \pi_k = 1$ 을 만족해야 하며, 분석 결과로 각 개인이 각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산출된다.

LPA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Information Criteria),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등의 통계적 기준을 활용한다. 정보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다.

$$AIC = -2\ln(\hat{L}) + 2k$$

$$BIC = -2\ln(\hat{L}) + k \cdot \ln(n)$$

$$\text{SABIC} = -2\ln(\hat{L}) + k \cdot \ln\left(\frac{n+2}{24}\right)$$

여기서  $\hat{L}$ 은 최대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at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k$ 는 추정된 모수의 수,  $n$ 은 표본의 크기이다. 정보지수는 로그우도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형의 단순성을 보장하려는 개념으로,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다고 해석된다(Nylund et al., 2007). 특히 BIC는 표본 크기가 작을 경우 과대추정의 경향이 있어 SABIC이 함께 활용되며, 모형 비교 시 절대값뿐 아니라 감소폭의 변화, 즉 꺾인 지점(elbow point)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eiser, 2012).

두 번째 기준인 엔트로피(Entropy)는 각 개인이 특정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의 명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80 이상일 경우 약 90% 이상의 분류 정확도를 가진다고 보며, .60 이하일 경우 약 20% 이상의 분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Clark & Muthén, 2009; Muthén & Muthén, 2007). 엔트로피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text{Entropy} = 1 - \frac{\sum_{i=1}^N \sum_{k=1}^K P_{ik} \ln(P_{ik})}{N \cdot \ln(K)}$$

여기서  $P_{ik}$ 는 개인  $i$ 가 잠재집단  $k$ 에 속할 조건부 확률,  $N$ 은 전체 표본 수,  $K$ 는 잠재집단 수를 나타낸다(Dias & Vermunt, 2006).

세 번째 기준은 우도비 통계적 검증 방법으로,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MRT)와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BLRT)가 활용된다(Lo et al., 2001; McLachlan & Peel, 2000). 이 검정들은 서로 인접한 두 모형(예:  $K$  vs.  $K-1$ 집단)을 비교하여 보다 적합한 모형을 통계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K$ 개의 집단을 가정한 모형이  $K-1$ 개 집단을 가정한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적합도를 가진다면( $K-1$  모형 대비  $p < .05$ ),  $K$ 집단 모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Nylund et al., 2007).

한편, 모형의 통계적 적합성뿐 아니라 집단 해석의 가능성과 각 잠재집단의 비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의 최소 5% 이상이 하나

의 집단으로 형성되어야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Hipp & Bauer, 2006; Jung & Wickrama, 2008),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도출된 집단 중 구성 비율이 5% 미만인 집단은 실질적 비교와 해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종 모형 결정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모형의 분류 정확성과 해석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 잠재집단별 평균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이 .80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권장된다. 평균 사후확률이 .800 이상이면 분류가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며, 모형의 해석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Bray et al., 2014; Clark & Muthén, 2009; Nagin, 2005). 사후확률이 낮은 경우 분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집단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정보지수, 엔트로피, 우도비 검정 결과, 평균 사후확률, 집단별 분포 비율 및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각 잠재유형의 진로성숙도 응답 패턴과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석적 의미를 부여하여 집단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 2)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속한 잠재집단(latent class) 또는 잠재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person-centered) 혼합모형이다(Collins & Lanza, 2010). 한 시점에서 추정된 잠재집단이 다음 시점에 어떤 집단으로 이동(전이)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집단 간 이동 경로와 변화 양상을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LTA의 분석 논리는 잠재마르코프모형(Hidden Markov Model; HMM)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한다. 여기서 마르코프 과정(Markov process)이란 각 시점의 잠재상태가 과거 모든 상태가 아닌 직전 시점의 상태에만 의존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확률적 전이 구조를 의미한다(Collins & Lanza, 2010). LTA는 이러한 마르코프 과정의 원리를 활용해, 시간  $t$ 에서 특정 잠재집단에 속한 개인이  $t+1$  시점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각 시점에서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수행하여 잠재집단의 수와 특성을 규정한 후, 이를 연결하여 시점 간 전이확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전이확률은 전이확률 행렬(transition probability matrix)로 표현되며, 이는 특정 시점의 집단에서 다음 시점의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을 요약한다. 개인의 변화 양상은 이 전이확률 행렬을 통해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

$$\lambda_{c_{t+1}|c_t} = P(c_{t+1} = m | c_t = k)$$

이는 시점  $t$ 에서 잠재집단  $k$ 에 속한 개인이 시점  $t+1$ 에서 집단  $m$ 으로 전이될 조건부확률을 의미하며,  $m$ 에 대한 전체 집합의 합은 1이 되어야 한다(Nylund et al., 2007).

LTA는 특정 응답 패턴  $y$ 가 관찰될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전체 모형의 가능도를 계산하며, 이때 잠재집단 수를  $S$ , 공변인을  $\Sigma$ , 문항 수를  $J$ , 문항별 응답 범주 수를  $R_j$ 라 할 때 전체 확률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Dias & Vermunt, 2006).

$$P(Y=y|X=\Sigma) = \sum_{s_2} \sum_{s_2} \cdots \sum_{s_T} \delta_{s_1}(\Sigma) \cdot \lambda_{s_2|s_1}(\Sigma) \cdots \lambda_{s_T|s_{T-1}}(\Sigma) \cdot \prod_{t=1}^T \prod_{j=1}^{R_j} \prod_{i=1}^{r_{j,t}|s_t} \rho$$

여기서  $\delta$ 는 초기 집단 비율,  $\lambda$ 는 집단 간 전이확률,  $\rho$ 는 문항반응 확률,  $I$ 는 지시 함수이다.

LTA의 모형 적합도는 정보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시점 간 동일 잠재프로파일 구조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측정 동일성(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 LMI)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Collins & Lanza, 2010). 측정 동일성이 성립하면 각 시점의 잠재유형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모형에서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LTA에서는 실제 전이분석에 앞서 시점 간 프로파일 구조가 유지되는지(즉,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전통적인 요인모형(CFA) 기반의 부하량·절편 동일성 검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LTA에서 권고되는 연속형 지표 기반의 ‘프로파일 평균동일성(mean-level invariance)’ 검정을 통해 시점 간 잠재프로파일 구조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Muthén & Asparouhov,

2011).

한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지수 간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혼합모형 연구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널리 보고된 BIC를 우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권고된다(Nylund et al., 2007). 또한 혼합모형에서는 통계적 지표뿐 아니라 연구 목적과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잠재유형 해석의 이론적 정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제시된다(Collins & Lanza, 2010; Masyn, 2013).

이러한 검정에서는  $\chi^2$  기반의  $-2\Delta LL$  차이검정이 표본 크기와 지표 수에 민감해 동일성 모형을 과도하게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성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뿐 아니라 정보준거치(BIC)의 개선과 프로파일 평균 패턴의 질적 유사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권고된다(Nylund-Gibson et al., 2014; Ryo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두 시점 간 프로파일 구조의 동일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연도와 2차연도 각각 LPA를 수행한 결과, 모두 동일한 3개 유형이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도출되어 동일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해 측정 동일성 제약을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으며,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기반으로 전이확률을 추정하였다. 분석에는 수동 3단계 접근법(manual 3-step approach)을 적용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잠재유형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각 개인별로 가장 높은 평균 사후확률을 기준으로 유형을 부여하며, 3단계에서 분류오차를 보정하여 전이분석을 수행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2010; Wang & Wang, 2020). 수동 3단계 방식은 자동 3단계보다 유연하며, 공변인이 여러 개이거나 결과변수 분석이 필요한 복합모형에 적합하다고 권장된다. 특히, Mplus의 자동 3단계는 공변인이 하나만 있을 때 지원되므로, 본 연구처럼 시점 간 동일 유형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이만 분석하려는 경우 수동 방식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년 니트 집단 내 진로성숙도 유형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상승, 하락)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전이확률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구조적 전환의 존재 여부 및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LR)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LR)은 종속변수가 세 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된 명목척도(nominal scale)일 때,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기법이다(홍세희, 2005). 이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의 확장된 형태로, 종속변수의 각 범주 중 하나를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로 설정한 후, 나머지 범주에 속할 상대적 확률을 추정함으로써 각 독립변수의 영향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LTA)을 통해 도출된 진로성숙도 전이 유형(예: 유지, 상승, 하락)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1차연도에 측정된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을 주요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 전이유형은 세 개의 명목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유지’ 유형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상승’ 유형과 ‘하락’ 유형 각각에 속할 가능성을 기준범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변인을 LTA 모형에 직접 포함하는 one-step 접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유형 구조 변형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manual three-step 절차를 적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2010). 구체적으로, Mplus에서 산출된 LTA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전이경로를 확인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잠재전이유형을 ‘상향/유지/하향’의 세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이후 재분류된 잠재전이유형 변수를 R 프로그램(nnet 패키지)에 불러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추정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기반하며,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관찰된 자료가 주어졌을 때 특정 매개변수 하에서 그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로 해석된다. 미지수의 추정치는 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값으로 결정된다(채구목, 2018).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은 각 종속범수  $j$ 에 대해 기준범주  $r$ 과의 로그오즈(log-odds)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log\left(\frac{P(Y=j)}{P(Y=r)}\right) = \beta_{0j} + \beta_{1j}X_1 + \beta_{2j}X_2 + \dots + \beta_{pj}X_p$$

여기서  $P(Y=j)$ 는 개인이 범주  $j$ 에 속할 확률이며,  $X_1$ 부터  $X_p$ 는 독립변수,  $\beta_{ij}$ 는 각각 독립변수가 범주  $j$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이다. 기준범주  $r$ 에 대한 식은 생략되며, 나머지 범주들의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의 모형 적합도 평가는 -2 로그우도값(-2LL),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 , 그리고 전체 분류 정확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각 계수에 대한 Wald 검정통계량과  $p$ -값을 통해 확인되며, 회귀계수를 지수화한 오즈비(odds ratio)를 통해 해석의 직관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변수의 수는 총 2개로 절편을 포함한 최소 표본 수 기준(‘독립변수 수 + 절편’  $\times 10 = 30$ )을 상회하는 874명의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통계적 안정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전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전이유형에 속할 상대적 가능성 및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해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표 IV-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인	시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진로 성숙도	계획성	1차	4.166	0.838	1.000	6.000	-0.546	0.481
		2차	4.331	0.776	1.000	6.000	-0.719	0.812
	독립성	1차	4.290	0.785	1.250	6.000	-0.361	0.253
		2차	4.469	0.699	1.000	6.000	-0.533	1.044
	진로 의사 결정	1차	3.611	1.027	1.000	6.000	0.279	-0.513
		2차	3.533	1.176	1.000	6.000	0.394	-0.849
자아존중감	1차	4.086	0.756	1.200	6.000	-0.476	0.595	
구직효능감	1차	3.424	0.637	1.600	6.000	0.782	1.287	

주요 연구문제인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 및 전이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진로성숙도는 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1차연도(2021년)와 2차연도(2022년)의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은 1차연도 기준으로만 측정되었다.

먼저, 진로성숙도 중 계획성의 평균은 1차연도에 4.166( $SD = 0.838$ ), 2차연도에 4.331( $SD = 0.776$ )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상승하였으나 왜도는 각각 -0.546, -0.719로 음(-)의 왜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첨도는 각각 0.481과 0.812로, 모두 정규분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독립성의 평균은 1차연도에 4.290( $SD = 0.785$ ), 2차연도에는 4.469( $SD = 0.699$ )로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왜도는 각각 -0.361과 -0.533으로, 평균보다 낮은 값을 갖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첨도는 각각 0.253과 1.044로 나타났다.

진로의사결정은 평균값이 1차연도에는 3.611( $SD = 1.027$ ), 2차연도에는 3.533( $SD = 1.176$ )으로, 두 시점 간 평균이 다소 감소하였다. 1차연도에는 왜도가 0.279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 반면, 2차연도에는 왜도 0.394로 오른쪽 치우침이 다소 더 커졌다. 첨도는 각각 -0.513과 -0.849로, 전반적으로 정규분포와 큰 차이는 없었다.

자아존중감은 1차연도 평균 4.086( $SD = 0.756$ ), 왜도 -0.476, 첨도 0.595로 분포의 비대칭성이 크지 않으며 비교적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구직효능감의 평균은 3.424( $SD = 0.637$ ), 왜도 0.782, 첨도 1.287로, 비교적 뾰족한 분포 형태이나 전반적으로 정규성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같이 각 변인의 분포는 왜도 및 첨도 기준으로  $\pm 1$  내외의 범위로 나타나, 통계분석에 필요한 정규성 가정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이를 통해 이후 수행될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회귀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간의 기초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차연도(2021년) 응답 데이터를 대상으로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기술통계에서는 1차연도와 2차연도 변수 모두의 분포 특성을 제시하였으나, 상관분석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변인 전이 분석(LTA) 구조를 고려하여 종속변인의 초기 상태와 예측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상관분석은 1차연도 변수에 한정하여 수행하였다.

<표 IV-2>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1. 진로성숙도_계획성	-				
2. 진로성숙도_독립성	.699***	-			
3. 진로성숙도_진로의사결정	.042	.016	-		
4. 자아존중감	.706**	.639**	.019	-	
5. 구직효능감	.527**	.467**	.336**	.612**	-

\*\* $p < .01$ , \*\*\* $p < .001$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계획성과 독립성 간에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 $r = .699, p < .001$ )이 나타나, 이들이 동일한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진로태도임을 보여준다. 계획성은 자아존중감( $r = .706, p < .01$ ) 및 구직효능감( $r = .527, p < .01$ )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독립성 또한 자아존중감( $r = .639, p < .01$ ), 구직효능감( $r = .467, p < .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진로의사결정은 계획성( $r = .042, p > .05$ ), 독립성( $r = .016, p > .05$ ), 자아존중감( $r = .019, p > .05$ )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구직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 $r = .336, p < .01$ )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주요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일부 변인은 낮거나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 구조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단계에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는 2.0 미만, 공차(Tolerance)는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 간 높은 선형 상관성이 없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회귀분석에서 계수 해석과 모형 타당성 확보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 및 특성 분석

연구문제 2번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이되는가?’에서 사용되는 잠재전이분석(LTA)의 사전 절차로서, 연구문제 1-1번에 해당하는 1차연도와 2차연도 각각에 대한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분석(LPA) 결과를 확인하였다. LT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잠재집단 간 전이확률을 추정하는 분석기법으로, 각 시점에서의 잠재프로파일이 선행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Collins & Lanza, 2010; Nylund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TA의 기반이 되는 조건부 잠재프로파일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1차연도와 2차연도 각각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을 중심으로 LPA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 가.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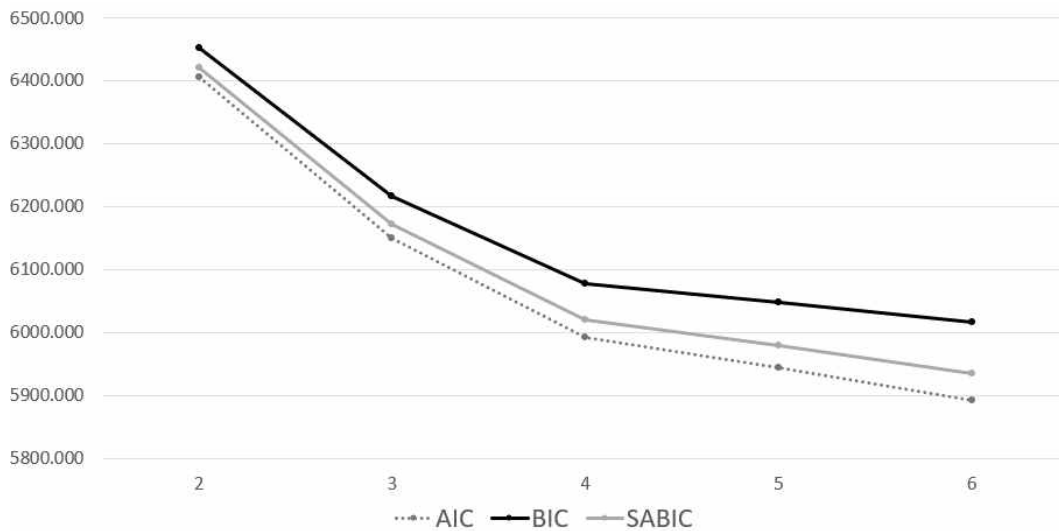
### 1) 1차연도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 및 특성

진로성숙도 수준에 따라 1차연도(2021년) 청년 니트 집단 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탐색하고자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다. LPA의 최적 잠재집단 수는 일반적으로 정보지수(AIC, BIC, SABIC), 분류 정확성(Entropy), 우도비 검정(LMR, BLRT), 최소 집단 크기,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권고된다(Muthén & Muthén, 2000; Nylund et al., 2007).

2개에서 6개 프로파일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정보지수는 잠재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감소율은 3개 프로파일에서부터 현저히 둔화되었다. 특히 BIC는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3.65%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3개에서 4개로 넘어갈 경우 -2.23%로 둔화되었고, 이후 5개(-0.48%), 6개(-0.52%)에서는 실질적인 감소 폭이 미미하였다. 이는 3개 모형 이후부터는 정보지수의 개선 폭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지수의 변화는 아래 <표 IV-3> 및 [그림 IV-1]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표 IV-3>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모형	AIC	BIC	SABIC	LMR (p)	BLRT (p)	Entropy
2	6405.159	6452.890	6421.132	.000	.000	0.707
<b>3</b>	<b>6150.518</b>	<b>6217.341</b>	<b>6172.881</b>	<b>.000</b>	<b>.000</b>	<b>0.760</b>
4	5992.497	6078.412	6021.248	.000	.000	0.773
5	5944.025	6049.033	5979.166	.016	.000	0.778
6	5893.314	6017.414	5934.844	.306	.000	0.757



[그림 IV-1] 1차연도 청년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정보지수 비교

또한, 각 모형의 분류 정확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 지수는 3개 집단 모형에서 0.760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4개(0.773), 5개(0.778), 6개(0.757) 집단 모형에서도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 값이 0.70 이상이면 모형의 분류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해석되며, 0.80 이상이면 우수한 분류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Muthén,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모형은 엔트로피 기준을 충족하여, 잠재집단별 분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평가하는 지표인 LM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과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는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p$ 값을 나타내었으나, BLRT는 실제로 잠재집단 수 증가에 매우 민감하여 대부분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Nylund et al., 2007). 또한, LMR 역시 단독 지표로 활용하기보다는 정보지수 및 집단 해석 가능성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권고된다(Nylund et al., 2007).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4개 모형에서는 최소 집단 비율이 약 9.4%로 나타나 해석의 복잡성이 증가하였으며, 5개 및 6개 모형에서는 최소 집단 비율이 1.1% 수준까지 급격히 낮아져,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최소 집단 크기 기준(전체의 5% 이상 또는 사례 수 5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매우 작은 프로파일이 생성되었다(Masyn, 2013; Wolf et al.,

2013). 이는 실질적인 잠재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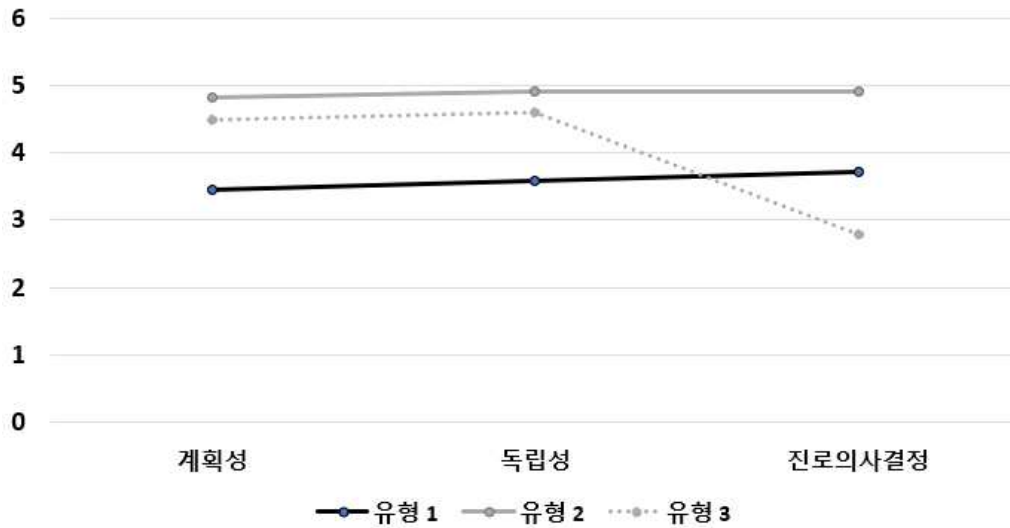
<표 IV-4>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분류율

구분		잠재프로파일 수					
		1	2	3	4	5	6
분류율 (명, %)	2	276(31.6)	598(68.4)				
	<b>3</b>	<b>326(37.4)</b>	<b>201(22.7)</b>	<b>347(39.9)</b>			
	4	253(28.9)	82(9.4)	372(42.6)	167(19.1)		
	5	350(40.1)	10(1.1)	237(27.1)	161(18.4)	114(13.1)	
	6	10(1.1)	103(11.8)	118(13.5)	292(33.4)	104(11.9)	247(28.3)

<표 IV-5>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모형 분류표

잠재프로파일	비율(%)	잠재프로파일 사후확률 평균		
		1	2	3
1	37.4	<b>0.887</b>	0.027	0.086
2	22.7	0.047	<b>0.897</b>	0.056
3	39.9	0.082	0.026	<b>0.891</b>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지수 개선의 둔화, 집단 비율의 적정성, 해석의 용이성, 진로성숙도 구성요인의 이론적 구조를 모두 충족하는 모형은 3개 프로파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최종 결정된 잠재프로파일 모형에 대한 분류 결과는 <표 IV-5>와 같았다. 1차연도 전체 청년 니트 중 잠재프로파일 1유형에는 약 37.4%, 2유형에는 22.7%, 3유형에는 39.9%가 각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프로파일에 속한 구성원의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평균은 모두 .890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개인이 속한 잠재집단에 고확률로 분류되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프로파일 1, 2, 3의 평균 사후확률은 각각 .887, .897, .891로, 집단 간 분류 명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개 프로파일 모형은 1차연도 청년 니트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있어 통계적 적합성과 실질적 해석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분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IV-2] 1차연도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표 IV-6>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평균 및 프로파일 명명

	유형 1 <저성숙형> (N=326, 37.4%)		유형 2 <고성숙형> (N=201, 22.7%)		유형 3 <결정유보형> (N=347, 39.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계획성	3.439	0.087	4.817	0.064	4.478	0.048
독립성	3.585	0.070	4.911	0.059	4.599	0.054
진로의사결정	3.714	0.048	4.905	0.063	2.778	0.083
전체	3.579	-	4.878	-	3.952	-

각 프로파일에 속한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IV-2] 및 <표 IV-6>과 같다. 진로성숙도의 세 하위요인(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잠재집단 간 뚜렷한 수준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명명하였다.

먼저 프로파일 1유형은 세 하위요인 모두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며(계획성 3.439, 독립성 3.585, 진로의사결정 3.714), 진로 방향에 대한 구체적 준비와 실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집단은 ‘저성숙형’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2유형은 계획성(4.817)과 독립성(4.911), 진로의사결정(4.905)에서 모두 매우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진로 목표 설정과 실행력, 자율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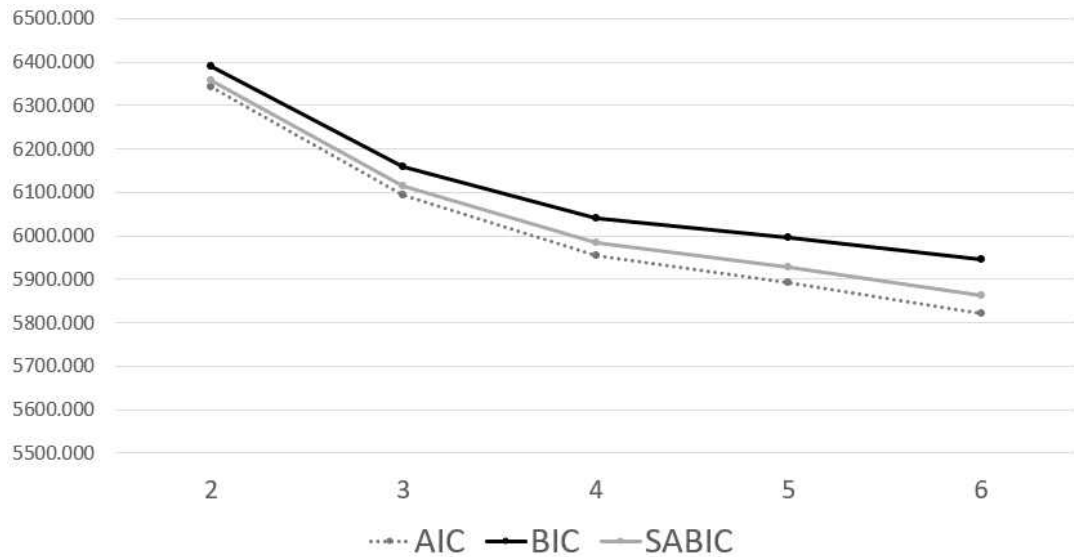
균형 있게 갖추어진 유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집단은 ‘고성숙형’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프로파일 3유형은 계획성(4.478)과 독립성(4.599)은 높은 반면, 진로의 사결정(2.778)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자율성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결정을 내리거나 확정 짓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결정유보형’으로 명명하였다.

## 2) 2차연도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 및 특성

다음으로 진로성숙도 수준에 따라 2차연도(2022년) 청년 니트 집단 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탐색하고자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다. 2개에서 6개 프로파일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정보지수는 잠재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4개 모형 이후부터 현저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BIC는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3.59% 감소하였고, 3개에서 4개로는 -1.94%로 둔화되었으며, 이후 5개(-0.73%), 6개(-0.86%) 모형에서는 감소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는 4개 모형을 기점으로 정보지수의 개선 폭이 제한되며, 과도한 분류로 인한 해석력 저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지수의 변화는 아래 <표 IV-7> 및 [그림 IV-3]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표 IV-7> 청년 니트의 2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모형	AIC	BIC	SABIC	LMR (p)	BLRT (p)	Entropy
2	6342.172	6389.903	6358.145	.008	.000	0.688
3	6093.736	6160.559	6116.098	.000	.000	0.779
4	5955.341	6041.256	5984.092	.016	.000	0.785
5	5891.712	5996.72	5926.853	.004	.000	0.808
6	5820.884	5944.984	5862.414	.033	.000	0.789



[그림 IV-3] 2차연도 청년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정보지수 비교

한편, 각 모형의 분류 정확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 지수는 3개 집단 모형에서 0.779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4개 집단 모형(0.785)과 5개 집단 모형(0.808)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6개 집단 모형에서는 0.789로 소폭 하락하였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값이 0.80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비교적 양호한 분류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Nylund et al., 2007).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5개 집단 모형이 가장 높은 분류 명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평가하는 LM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과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는 2개에서 6개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p$ 값을 나타내었으나, 이는 잠재프로파일 해석의 실효성과 모형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절대적 기준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아래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 및 6개 모형에서는 일부 집단의 비율이 0.6%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미세한 분류로 인한 해석 가능성 저하 및 실증적 활용도 약화가 우려되었다.

따라서 적합도 지표만을 기준으로 하면 4개 프로파일 모형도 선택 가능해 보이나, 정보지수 개선 폭의 급격한 둔화, 최소 집단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각 프로파일 간 패턴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 프로파일 모형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분류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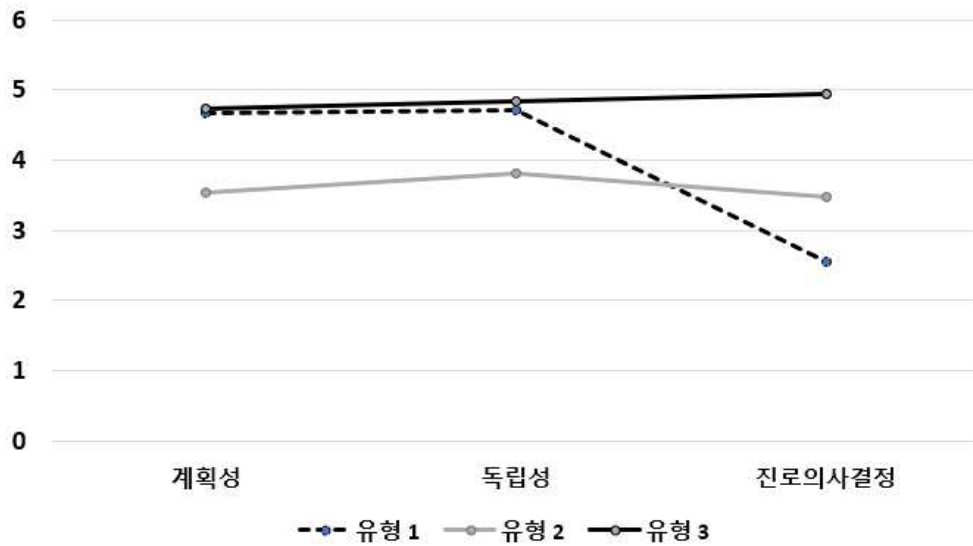
<표 IV-8> 청년 니트의 2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분류율

구분		잠재프로파일 수					
		1	2	3	4	5	6
분류율 (명, %)	2	259(29.6%)	615(70.4%)				
	3	333(39.8%)	283(31.4%)	258(28.8%)			
	4	313(35.8%)	75(8.6%)	245(28.0%)	241(27.6%)		
	5	298(34.1%)	235(26.9%)	5(0.6%)	87(10.0%)	248(28.4%)	
	6	5(0.6%)	91(10.4%)	224(25.6%)	128(14.7%)	290(33.2%)	135(15.5%)

<표 IV-9> 청년 니트의 2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모형 분류표

잠재프로파일	비율(%)	잠재프로파일 사후확률 평균		
		1	2	3
1	39.8%	0.923	0.060	0.017
2	31.4%	0.107	0.864	0.029
3	28.8%	0.039	0.040	0.921

최종 결정된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분류 결과는 <표 IV-9>에 제시되어 있으며, 2차연도 전체 청년 니트 중 프로파일 1유형은 약 39.8%, 2유형은 31.4%, 3유형은 28.8%로 분포하였다. 각 프로파일에 속한 개인의 사후확률 평균은 각각 0.923, 0.864, 0.921로 모두 0.860 이상으로 나타나, 집단 간 명확한 분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IV-4] 2차연도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표 IV-10> 청년 니트의 2차연도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평균 및 프로파일 명명

	유형 1 <결정유보형> (N=333, 39.8%)		유형 2 <저성숙형> (N=283, 31.4%)		유형 3 <고성숙형> (N=258, 28.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계획성	4.664	0.056	3.536	0.087	4.738	0.042
독립성	4.722	0.055	3.813	0.063	4.837	0.040
진로 의사결정	2.557	0.056	3.472	0.074	4.948	0.049
전체	3.981	-	3.607	-	4.841	-

한편, 각 잠재프로파일에 속한 집단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IV-4] 및 <표 IV-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세 하위요인(계획성, 독립성, 진로 의사결정) 모두에서 유형 간 뚜렷한 수준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규명하고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1유형은 계획성(4.664)과 독립성(4.722)은 높은 반면, 진로 의사결정(2.557)이 현저히 낮은 양상을 보여, 진로에 대한 준비와 자율성은 갖추고 있으나 최종 결단 또는 실행에는 어려움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유형은 ‘결정유보형’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2유형은 세 하위요인 모두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계획성 3.536, 독립성 3.813, 진로 의사결정 3.472)을 나타내며, 진로 방향에 대

한 준비도 및 주도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유형으로, ‘저성숙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 3유형은 계획성(4.738), 독립성(4.837), 진로의사결정(4.948)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진로 방향 설정과 실행력, 자율성이 균형 있게 갖추어진 이상적 유형으로 판단되어 ‘고성숙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2차연도에서도 세 프로파일은 진로성숙도의 상대적 수준(저·중·고)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1차연도와 비교했을 때 하위요인별 점수 간격에서는 일부 변화가 확인되었다. 결정유보형은 계획성과 독립성 점수가 1차연도(4.478, 4.599) 대비 2차연도(4.664, 4.722)에서 소폭 상승하며 고성숙형과의 차이가 줄어든 반면(1차연도: 약 0.26~0.31 → 2차연도: 약 0.07~0.12), 진로의사결정 점수는 1차연도(2.778)에서 2차연도(2.557)로 감소하여 고성숙형과의 차이가 확대되었다(1차연도: 약 2.17 → 2차연도: 약 2.39). 저성숙형은 세 하위요인이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하거나 소폭 낮아졌으며, 상대적 위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성숙형은 두 연도 모두에서 세 하위요인 전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일부 하위요인에서 프로파일 간 점수 간격이 조정되는 변화가 있었으나, 세 프로파일 간의 상대적 수준 구조 자체는 두 연도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 바, 본 연구는 1차·2차연도 모두 동일한 세 개의 프로파일로 분류하고 같은 명명 체계를 적용하였다.

## 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 분석

연구문제 1-2번에 따라 청년 니트 집단 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진로성숙도 프로파일 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차연도 청년 니트의 각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및 행동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성숙도의 수준 및 구조에 따라 어떠한 특성들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경제적 지원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구직활동 여부, 향후 근로의향 등 총 7개 변인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변인은 범주형으로 처리한 후 교차표 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IV-11> 청년 니트의 1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

변인			잠재프로파일 유형			$\chi^2$ (df)
			유형 1 <저성숙형>	유형 2 <고성숙형>	유형 3 <결정유보형>	
성별	남	N(%)	192(58.9)	95(47.3)	150(43.2)	17.287(2) <sup>***</sup>
	여	N(%)	134(41.1)	106(52.7)	197(56.8)	
연령	19세~21세	N(%)	85(26.1)	39(19.4)	60(17.3)	9.174(4)
	22세~25세	N(%)	150(46.0)	93(46.3)	174(50.1)	
	26세~29세	N(%)	91(27.9)	69(34.3)	113(32.6)	
경제적 지원 여부	있음	N(%)	180(55.2)	114(56.7)	202(58.2)	0.616(2)
	없음	N(%)	146(44.8)	87(43.3)	145(41.8)	
주관적 건강 상태	매우 안 좋음	N(%)	1(0.3)	0(0.0)	0(0.0)	21.142(8) <sup>**</sup>
	안 좋음	N(%)	14(4.3)	3(1.5)	8(2.3)	
	보통	N(%)	78(23.9)	27(13.4)	58(16.7)	
	좋음	N(%)	195(59.8)	131(65.2)	230(66.3)	
	매우 좋음	N(%)	38(11.7)	40(19.9)	51(14.7)	
구직 활동 여부	예	N(%)	10(3.1)	3(1.5)	17(98.5)	4.665(2)
	아니오	N(%)	316(96.9)	198(98.5)	330(95.1)	
향후 근로 의향	있음	N(%)	246(75.5)	170(84.6)	254(73.2)	9.627(2) <sup>**</sup>
	없음	N(%)	80(24.5)	31(15.4)	93(26.8)	
총계		N(%)	326(100)	201(100)	347(100)	

\*\* $p < .01$  . \*\*\* $p < .001$

분석 결과, <표 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chi^2 = 17.287$ ,  $df = 2$ ,  $p < .001$ ), 저성숙형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58.9%로 가장 높았고, 고성숙형과 결정유보형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각각 52.7%, 56.8%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chi^2 = 9.174$ ,  $df = 4$ ,  $p > .05$ ), 세 유형 모두에서 22~25세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성숙형은 26~29세의 비율이 34.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학력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chi^2 = 47.373$ ,  $df = 8$ ,  $p < .001$ ). 저성숙형에서는 고졸 이하의 비율이 54.3%였으며, 고성숙형에서는 대졸 이상의 비율이 52.2%로 나타났다. 결정유보형은 대졸 이상의 비율이 50.2%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 = 0.616$ ,  $df = 2$ ,  $p > .05$ ).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세 유형에서 각각 55.2%, 56.7%, 58.2%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 = 21.142$ ,  $df = 8$ ,  $p < .01$ ). ‘ 좋음 ’ 과 ‘ 매우 좋음 ’ 으로 응답한 비율은 고성숙형이 각각 65.2%, 19.9%였으며, 저성숙형은 59.8%, 11.7%, 결정유보형은 66.3%, 14.7%였다. 반면, ‘ 보통 ’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저성숙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직활동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 = 4.665$ ,  $df = 2$ ,  $p > .05$ ). 세 유형 모두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근로 의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 = 9.627$ ,  $df = 2$ ,  $p < .01$ ). 고성숙형은 ‘ 있음 ’ 으로 응답한 비율이 84.6%였으며, 저성숙형은 75.5%, 결정유보형은 73.2%로 나타났다.

#### 4.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전이분석

잠재전이분석(LTA)을 실시하기에 앞서, 1차·2차 시점에서 동일한 잠재프로파일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속형 지표 기반의 프로파일 평균동일성(mean-level invariance) 검정을 실시하였다(Muthén & Asparouhov, 2011). 이를 위해 (1) 프로파일 평균을 자유롭게 추정한 비제약 모형과 (2) 두 시점 평균을 동일하게 제약한 동일성 제약 모형을 비교하였다.

<표 IV-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모형 간 -2 로그우도 차이 검정은 유의하게 나타나 동일성 제약 모형이 통계적으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Delta LL = 35.52$ ,  $\Delta df = 9$ ,  $p < .001$ ). 그러나 연속형 지표 기반 LTA에서는 평균 차이에 대한  $\chi^2$  검정이 표본 크기와 지표수에 매우 민감하여, 실제 프로파일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동일

성 모형이 과도하게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Nylund-Gibson et al., 2014; Ryoo et al., 2018). 이러한 이유로 LTA 선행연구에서는 동일성 여부 판단 시 통계적 유의성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프로파일 형태의 일관성과 정보준거치(BIC)와 같은 대안적 지표를 함께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이선복, 2025).

본 연구 결과, 정보준거치(BIC)는 동일성 제약 모형에서 더 낮게 나타나(12,159.788 → 12,134.355), 동일성 제약 모형이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두 시점에서 도출된 잠재프로파일의 평균 패턴이 동일한 질적 구조(모양 및 방향성)를 유지하고 있어 형태 일관성 기준 또한 충족하였다.

특히 BIC는 혼합모형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모형 선택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며 (Nylund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BIC가 동일성 제약 모형에 우세한 적합도를 보인 점을 핵심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한 LTA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프로파일 간 전이를 해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므로, 프로파일 의미가 시점 간 유지되는 것이 해석가능성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며(Collins & Lanza, 2010; Nylund-Gibson et al., 2014), 동일성 제약 모형이 이러한 해석적 정합성을 가장 잘 보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lta LL$ 의 기각 결과만으로 동일성 모형을 배제하지 않고, 정보준거치와 프로파일 형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제약 모형을 잠재전이분석의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IV-12> 잠재프로파일 평균동일성 검정 결과

모형	자유모수	로그우도 (LL)	AIC	BIC	SABIC	모형 비교 통계
비제약 모형 (평균 자유추정)	32	-5971.525	12,007.049	12,159.788	12058.163	-
동일성 제약 모형 (평균 동일 제약)	23	-5989.287	12,024.574	12,134.355	12061.312	-
모형 비교	$\Delta df = 9$	-	-	-	-	$-2 \Delta LL = 35.52,$ $p < .001$

다음으로 앞서 실시한 연구문제 1번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2번에 해당하는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간 전이 양상을 분석하고자 잠재전이분석(LTA)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1차연도 및 2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각각의

3개 유형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동일한 집단 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LTA 모형을 설정하였다. LTA 분석 결과, 1차연도 각 유형에 속한 개인이 2차연도에 어떤 유형으로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전이확률행렬은 다음 <표 IV-13>과 같다.

<표 IV-13> 청년 니트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확률

잠재전이 확률(%)		2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결정유보형	고성숙형
1차연도 진로 성숙도	저성숙형	31.9	48.5	19.6
	결정유보형	19.4	15.9	64.7
	고성숙형	54.8	26.8	18.4

1차연도 ‘저성숙형’ 집단의 경우 2차연도 ‘결정유보형’으로 전이될 확률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유형인 ‘저성숙형’으로 유지될 확률은 31.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반면 ‘고성숙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19.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1차연도 ‘결정유보형’ 집단에서는 2차연도에도 동일한 유형으로 유지될 확률이 64.7%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고성숙형’으로 상향 전이될 확률은 19.4%, ‘저성숙형’으로 하향 전이될 확률은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연도 ‘고성숙형’을 기준으로 전이확률을 살펴보면, 동일한 유형을 유지할 확률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성숙형’으로 하향 전이될 확률은 26.8%, ‘결정유보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18.4%로 확인되었다.

<표 IV-14> 청년 니트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사례 수

잠재전이 사례 수(비율) (명(%))		2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결정유보형	고성숙형
1차연도 진로 성숙도	저성숙형	104(11.9)	158(18.1)	64(7.3)
	결정유보형	39(4.5)	32(3.7)	130(14.9)
	고성숙형	190(21.7)	93(10.6)	64(7.3)

청년 니트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간 전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표본 대비 잠재전이 집단별 사례 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먼저, 잠재전이 비율이 높은 집단을 보면 고성숙형에서 저성숙형으로 전이되는 비율(N=190, 21.7%), 저성숙형에서 결정유보형으로 전이되는 비율(N=158, 18.1%), 결정유보형에서 고성숙형으로 전이되는 비율(N=130, 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성숙형 집단 일부가 진로성숙도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하향 전이되고, 저성숙형 집단은 중간 수준인 결정유보형으로, 결정유보형 집단은 고성숙형으로 상향 전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상·중·하 수준의 구조가 일정 부분 유지되기도 하나, 전이 방향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낮은 수준의 전이 비율을 보이는 집단도 있었는데, 결정유보형에서 동일한 유형을 유지한 비율(N=32, 3.7%)과 결정유보형에서 저성숙형으로 하향 전이된 비율(N=39, 4.5%)이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고성숙형에서 결정유보형으로 전이된 사례(N=93, 10.6%) 및 저성숙형에서 고성숙형으로 전이된 사례(N=64, 7.3%)는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전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이사례 분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저성숙형 집단은 결정유보형(N=158, 18.1%)과 고성숙형(N=64, 7.3%)으로의 상향 전이가 다소 나타났으나, 동일 집단 유지(N=104, 11.9%)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다. 결정유보형 집단은 고성숙형으로의 상향 전이(N=130, 14.9%)가 가장 높았으며, 저성숙형으로의 하향 전이(N=39, 4.5%)나 동일 집단 유지(N=32, 3.7%)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성숙형 집단은 저성숙형으로의 하향 전이(N=190, 21.7%)가 가장 높았으며, 결정유보형으로의 전이(N=93, 10.6%)도 일정 비율 존재하였다. 동일 집단 유지(N=64, 7.3%)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5. 니트 상태 유지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잠재전이분석

연구문제 3번에 따라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확률이 니트 상태 지속 여부(이탈/유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니트 이탈 집단(1차연도에만 니트 상태)과 니트 유지 집단(1~2차연도 모두 니트 상태)을 구분하여 각각 잠재전이분석(LTA)을 실시하였다. 전이확률과 전이사례 수를 기준으로 1차연도 잠재유형이 2

차연도에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비교하였다.

<표 IV-15> 니트 이탈집단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확률

잠재전이 확률(%)		2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결정유보형	고성숙형
1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35.0	43.0	22.0
	결정유보형	19.0	13.5	67.5
	고성숙형	53.9	26.5	19.6

먼저 니트 이탈집단의 전이확률은 <표 IV-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연도 ‘저성숙형’은 2차연도에 ‘결정유보형’으로 전이된 비율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 유형 유지 비율은 35.0%, ‘고성숙형’으로의 전이 비율은 22.0%였다. ‘결정유보형’은 각각 19.0%가 ‘저성숙형’으로 하향 전이, 13.5%가 동일 유형을 유지, 67.5%가 ‘고성숙형’으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성숙형’은 53.9%가 ‘저성숙형’으로 하향 전이, 26.5%가 ‘결정유보형’으로 전이, 19.6%가 동일 유형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니트 이탈집단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사례 수 (N=545)

잠재전이 사례 수(비율) (명(%))		2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결정유보형	고성숙형
1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70(12.8)	86(15.8)	44(8.1)
	결정유보형	24(8.1)	17(3.1)	85(15.6)
	고성숙형	118(21.7)	58(10.6)	43(7.9)

또한, 니트 이탈집단의 전이 사례 수는 <표 IV-16>과 같다. 전체 545명 중 ‘고성숙형 → 저성숙형’ 전이가 118명(21.7%)으로 가장 많았고, ‘저성숙형 → 결정유보형’ 86명(15.8%), ‘결정유보형 → 고성숙형’ 85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저성숙형 → 고성숙형’은 44명(8.1%), ‘결정유보형 → 저성숙형’은 24명(8.1%)이었다. ‘고성숙형’ 유지 사례는 43명(7.9%), ‘결정유보형’ 유지 사례는 17명(3.1%)로 나타났다.

<표 IV-17> 니트 유지집단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확률

잠재전이 확률(%)		2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결정유보형	고성숙형
1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27.0	57.1	15.9
	결정유보형	20.0	20.0	60.0
	고성숙형	56.2	27.3	16.4

다음으로 니트 유지집단의 잠재전이를 분석하였으며, 전이확률은 <표 IV-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연도 ‘저성숙형’은 2차연도 ‘결정유보형’으로 전이된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고, 동일 유형 유지 비율은 27.0%, ‘고성숙형’으로 전이된 비율은 15.9%였다. ‘결정유보형’은 20.0%가 ‘저성숙형’으로 전이, 20.0%가 동일 유형을 유지, 60.0%가 ‘고성숙형’으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성숙형’은 56.2%가 ‘저성숙형’으로 전이, 27.3%가 ‘결정유보형’으로 전이, 16.4%가 동일 유형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8> 니트 유지집단의 1~2차연도 진로성숙도 간 잠재전이 사례 수 (N=329)

잠재전이 사례 수(비율) (명(%))		2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결정유보형	고성숙형
1차연도 진로성숙도	저성숙형	34(10.3)	72(21.9)	20(6.1)
	결정유보형	15(4.6)	15(4.6)	45(13.7)
	고성숙형	72(21.9)	35(10.6)	21(6.4)

<표 IV-18>은 니트 유지집단의 전이 사례 수를 보여준다. 전체 329명 중 ‘저성숙형 → 결정유보형’과 ‘고성숙형 → 저성숙형’ 전이는 각각 72명(21.9%)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결정유보형 → 고성숙형’은 45명(13.7%)이었다. ‘저성숙형 → 고성숙형’은 20명(6.1%), ‘결정유보형 → 저성숙형’은 15명(4.6%), ‘고성숙형’ 유지 사례는 21명(6.4%)으로 나타났다.

니트 이탈 집단과 유지 집단의 진로성숙도 전이유형 분포를 비교한 결과, 니트 이탈 집단은 상향 및 하향 전이를 포함한 다양한 전이 방향이 나타났으며, 전이 유형 간 빈도 차이도 비교적 완만하게 분포되었다. 반면 니트 유지 집단에서는 ‘저성숙형 → 결정유보형’, ‘고성숙형 → 저성숙형’과 같은 특정 전이유형의 빈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성숙형’ 유지 사례는 전체 사례 중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6. 청년 니트 진로성숙도 전이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구직효능감 예측 분석

연구문제 4번에 따라,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에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전이에 어떠한 예측력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LTA) 결과를 바탕으로 전이유형을 ‘상향 전이’, ‘유지’, ‘하향 전이’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수준이 상승한 경우를 ‘상향 전이’, 동일한 경우를 ‘유지’, 하락한 경우를 ‘하향 전이’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전이 기준은 <표 IV-19>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이유형 중 ‘유지’를 기준으로 ‘상향 전이’와 ‘하향 전이’로 구분하였으며, 각 전이 유형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이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각 변수의 효과는 비표준화 회귀계수(B)와 오즈비(OR), 유의확률( $p$ -value)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표 IV-19>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 유형의 정의 및 이동 관계

전이 유형	정의	이동 관계 예시
상향	2차연도 잠재프로파일 수준이 1차연도보다 상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숙형 → 결정유보형</li> <li>▪ 저성숙형 → 고성숙형</li> <li>▪ 결정유보형 → 고성숙형</li> </ul>
유지	1차연도와 2차연도의 프로파일 수준이 동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숙형 → 저성숙형</li> <li>▪ 결정유보형 → 결정유보형</li> <li>▪ 고성숙형 → 고성숙형</li> </ul>
하향	2차연도 잠재프로파일 수준이 1차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숙형 → 결정유보형</li> <li>▪ 고성숙형 → 저성숙형</li> <li>▪ 결정유보형 → 저성숙형</li> </ul>

<표 IV-20>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구직효능감의 예측력

참조집단: 전이유형 ‘유지’					
전이 유형	변수	B	S.E.	OR	p-value
상향	(intercept)	-0.104	0.580	0.901	.857
	자아존중감	-0.347	0.153	0.707	.024
	구직효능감	0.536	0.190	1.712	.005
하향	(intercept)	-1.416	0.665	0.243	.033
	자아존중감	1.284	0.171	3.612	.000
	구직효능감	-0.707	0.197	0.493	.000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먼저 구직효능감은 상향 전이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예측을 보였으며, 하향 전이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적 예측을 나타냈다. 구직효능감이 1단위 증가할 때 ‘유지’ 집단에 비해 ‘상향 전이’에 속할 오즈는 약 1.71배로 높게 예측되었고( $p < .01$ ), ‘하향 전이’에 속할 오즈는 약 0.49배로 나타나 오즈가 약 60%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p < .001$ ). 이는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상향 전이에 속할 상대적 가능성이 커지고, 하향 전이에 속할 상대적 가능성은 낮게 예측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상향 전이에 대해 부적 예측을, 하향 전이에 대해서는 정적 예측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1단위 증가할 때 ‘유지’에 비해 ‘상향 전이’에 속할 오즈는 약 0.69배로 나타나, 상향 전이에 속할 오즈가 약 29.3%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p < .05$ ). 반대로 ‘하향 전이’에 속할 오즈는 약 3.46배로 나타나 약 2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상향 전이에 비해 하향 전이에 속할 상대적 오즈가 더 크게 예측되는 방향을 보였으며, 이는 구직효능감과 상반된 예측 양상이다.

## V. 논의 및 결론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성숙도 수준과 변화,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청년 고용정책과 직업개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진로성숙도는 자기이해, 진로계획, 진로준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를 중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청년층의 진로발달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하다(김봉환 외, 2007). 그러나 선행연구는 주로 청년 니트의 현황이나 일부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단면적 탐색에 치중하였고(노현주, 김윤태, 2019; 박가열 외, 2023; 이민서, 김사현, 2021; 이정민, 2025; 황광훈, 2023),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구조적·중단적으로 진로성숙도의 변화 경로와 영향 메커니즘을 분석한 사례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특성과 변화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적 틀에 근거하여,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성숙도가 단일한 연속선상에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발달 경로와 구조적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그 전이 양상을 중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패널조사(YP2021) 자료를 활용하여 1차연도(2021년)와 2차연도(2022년)의 두 시점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년 이상 니트 상태를 유지했거나 1차연도에만 니트 상태였던 청년 874명이며, 이를 단기 니트와 장기 니트로 구분하여 각각의 진로성숙도 전이 양상과 영향 요인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진로성숙도의 측정 문항은 선행연구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진로심리이론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인 내 심리자원 가운데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진로성숙도 유형별 특성과 전이 경향에 대한 해석을 이론적 맥락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제공하는 이론적·정책적·방법론적 함의와 한계점을 검토하고, 향후 청년 니트 진로개입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 가.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프로파일 유형 및 특성

본 연구에서 1차연도와 2차연도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세 가지 잠재프로파일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첫 번째 유형인 ‘저성숙형’은 세 하위척도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집단이었다. 이 집단의 평균 점수는 6점 만점 대비 1차연도 계획성 3.439, 독립성 3.585, 진로의사결정 3.714로 나타나, 진로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능력, 독립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하는 태도, 실제 의사결정을 내려 실행하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특히 계획성 점수가 낮다는 것은 장기적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 부진함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독립성의 낮음은 진로 관련 판단에서 자기주도성보다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하며, 진로의사결정 점수가 낮다는 점은 상황적 기회나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리적·행동적 특성과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도 특징이 나타났다. 남성 비율이 58.9%로 높았으며, 연령은 주로 22~25세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54.3%로 절반을 넘었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다. 향후 구직의향은 75.5%로 다른 유형 대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심리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참여 의지와 실행역량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국내 청년 니트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은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을 유형화한 연구에서 ‘의사결정 부족형’과 ‘자포자기형’이 낮은 진로성숙도와 구직효능감, 향후 근로 의향의 위축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채희원(2023)의 연구에서도 니트 청년 가운데 과거 진로교육·진로지도 경험이 부족한 집단일수록 진로성숙도와 구직동기가 낮아, 진로계획의 부재와 소극적인 구직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졸 비진학 니트를 대상으로 한 백윤영과 홍지선(2024)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는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취약성이 결합된 상태를 드러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저성숙형 집단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저동기·진로 미숙·심리적 취약 유형과 심리적·행동적 특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론적 관점에서도 뒷받침된다. Crites(1973)는 진로의 미결정성을 정보 부족, 자기이해 부족, 의사결정 회피 등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저성숙형은 이 세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Super(1990)는 진로성숙을 생애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심리·행동 역량으로 정의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자기개념이 부분적으로만 형성되고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은 성별, 건강, 학력, 사회적 지원, 경제적 환경 등 배경 변인이 심리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진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저성숙형의 낮은 건강 인식과 구직 의향 부족은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결과기대 형성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부정적 배경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곽미선,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과 실천의 측면에서 저성숙형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개입이 필요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기이해와 자기개념 형성을 돕는 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로흥미검사, 가치관 탐색 워크숍, 개인 강점 탐색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소규모 목표를 부여해 성취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인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의 인턴십, 직무체험,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성공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건강 인식이 낮고 생활습관이 불안정한 청년에게는 신체·정신 건강 지원과 진로개입을 병행하는 통합 지원 체계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일본의 ‘지역유스 스테이션’ 처럼 상담, 직업훈련, 심리 치유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거나, 국내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장기 멘토링·동행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밀착형 개입을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 진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멘토링을 병행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심리적 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저성숙형 청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두 번째 유형인 고성숙형은 자기이해, 진로계획, 진로준비의 세 하위척도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1차연도 기준 계획성은 6점 만점에 4.817, 독립성 4.911, 진로의사결정 4.905로 측정되었으며, 세 영역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 탐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전략 수립,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계획성의 높음은 장·단기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로드맵의 존재를, 독립성의 높음은 자기주도적 가치판단과 선택 능력을, 그리고 진로의사결정의 높음은 기회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실행력을 의미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성숙·고준비 집단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은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을 유형화한 연구에서 높은 진로성숙도와 구직효능감, 향후 근로 의향을 동시에 보이는 ‘적극적 진로발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진로준비 행동이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채희원(2023)의 연구에서도 진로교육 경험을 가진 니트 청년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성숙과 구직동기가 높고, 이를 매개로 실제 구직활동이 촉진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이정현과 서은희(2024)는 고졸 비진학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프로그램 연구에서 진로탐색, 직업역량, 관계 형성, 심리·정서적 회복이 동시에 향상되는 ‘성장·전환형’ 참여자군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고성숙형 집단은 충분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기반으로 기회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진로 탐색-계획-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행 준비도가 높은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Crites(1973)는 진로성숙을 태도(attitudes)와 역량(competencies)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했는데, 고성숙형은 태도의 측면(목표 지향성·계획성·인내력)과 역량의 측면(정보탐색 및 분석력·효율적 의사결정·실행력)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진로준비에서 실행까지 전 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Super(1990)의 생애진로발달 이론에서 고성숙형은 성인 초기의 이상형—자기개념의 구체화, 다양한 역할 수행, 목표와 행동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유형이다. 또한,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 관점에서는, 이들은 높은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결과기대를 바탕으로 환경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목표를 구체화하고 행동 계획으로 전환한다(Lent et al., 1994).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성숙형의 프로파일은 ‘개인적 역량 × 환경적 기회’의 상호작용이 최적 수준에 도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진로발달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고성숙형이 진로 탐색·계획·실행의 전 과정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역량을 보유한 집단임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이들의 지속적 성장과 경력 발달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이와 관련해 고성숙형은 기초적인 취업지원보다 심화된 경력개발 지원이 효과적

일 수 있다. 산업별 고급과정, 전문자격 취득, 국제 인턴십, 연구·창업 프로젝트 등 도전적인 과제를 설계해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단순한 직무 진입을 넘어 중·장기적 경력성취와 전문성 확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업종 내 승진과 전직, 경력 전환까지 고려한 장기 경력설계·코칭 체계를 구축하면 고성숙형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발휘된다. 준비도가 높은 집단의 참여율과 성취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지자체 보고서에도 포착된다(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3). 예를 들어, 해외연수, 전문분야 자격과정, 창업지원 사업에서 이들은 높은 참여 지속률과 완주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고성숙형이 정책 현장에서 ‘성과 가능성이 높은 지원대상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에서는 고성숙형의 중·장기적 경력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의 역량이 안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심화 교육·경력개발·네트워크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번째 유형인 결정유보형은 자기이해 점수는 고성숙형과 유사하게 높지만, 진로계획과 진로준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진로에 대한 내적 탐색이나 성찰은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실행 준비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이론에 따르면(Crites, 1973), 진로결정은 자기이해를 토대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실행 전략 수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하위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진로행동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결정유보형은 이러한 연계 과정에서 ‘목표-실행’ 사이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어, 진로성숙도의 비대칭적 발달을 보여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집단이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전영창과 이선화(2024)는 청년 니트를 유형화한 결과, 졸업 후 구직활동에는 소극적이지만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 장래 희망 직업 보유, 향후 근로 의향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을 ‘유예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당장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를 이어가며 기회를 기다리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 역시 ‘진로 행동 정체군’을 식별하고, 이들이 진로정체감과 진로목표 명료성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기효능감과 불확실한 결과기대로 인해 현실적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의 결정유보형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특히 자기이해 수준이 높은

집단이 반드시 고성숙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노혜진(2021)의 청년 니트 생애사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적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학교, 노동시장, 사회 제도 등 복합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외적 요인이 결정유보형의 원인을 단독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청년 개인이 경험하는 내적 탐색과 심리적 요인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진로행동을 제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자기이해 수준이 충분하더라도 구조적 불확실성이나 자원 접근성의 한계가 실행 단계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정유보형의 특성 또한 이러한 내적 및 외적 요인이 겹쳐 나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경로로 이해될 수 있다.

결정유보형은 진로성숙도 이론을 적용할 때, Crites(1973)가 제시한 진로 미결정성 유형 가운데 ‘의사결정유보(decision-making delay)’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이해와 가치 탐색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그 결과가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Super(1990)의 생애진로발달 이론 관점에서도 이러한 집단은 ‘탐색기’에서 ‘정착기’로의 이행이 지체된 상태, 즉 전환기의 정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정유보형이 단순히 개인 내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자원과 환경적 조건의 불균형이 맞물린 전형적인 진로미결정 집단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결정유보형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환경적 제약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복합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정서적·인지적 특성은 목표 선택이나 실행의 부담을 증가시켜 결정을 미루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Gati et al., 1996). 동시에 정보 접근성 부족, 사회적 지지의 제약, 경제적 부담과 같은 환경적 조건은 이미 형성된 자기이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따라서 결정유보형의 진로성숙도 불균형은 내적 준비도와 외적 지원의 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개인-환경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진로발달 이론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내적 및 외적 요인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결정유보형은 단순히 연구상의 한 집단이 아니라, 정책과 실천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타깃군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자기이해 수준이 높고 일정한 준비도는 갖추고 있으나, 실행 단계

에서 제동이 걸리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교적 짧은 개입만으로도 상향 전이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동기 부여보다는, 행동 전환을 촉진하는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조절 훈련(self-regulation training)을 통해 단기 목표 달성과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고, 실행전략 훈련(implementation strategy coaching)을 통해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 절차를 설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서적 압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병행될 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개입 방향은 니트 청년의 변화과정이 ‘다시 일어설 용기’, ‘지원 프로그램 참여’, ‘목표를 차근차근 실행’과 같은 단계적 회복·행동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힌 오태희와 이혜은(2025)의 질적 메타요약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함께, 외적 자원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진로 멘토링, 실제 직무체험, 비형식 학습·경험 설계 등은 결정유보형이 직면한 환경적 장벽을 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2023) 보고서에도 나타났듯이, 일정 수준의 준비도를 갖춘 청년이 맞춤형 실습·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이후 취업 및 교육 진입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결정유보형이 적절한 실행 지원과 환경적 자원이 결합될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세 가지 잠재유형은 1차연도와 2차연도 모두에서 동일하게 도출되었으며, 진로성숙도의 구조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일정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조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시점 간 비교를 통해 각 유형의 비율 및 하위척도 평균값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형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그 구성과 분포에는 시기별로 다소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이 획일적·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혹은 집단별로 상이한 발달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성숙형은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차연도보다 2차연도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며, 하위척도인 계획성, 독립성, 진로의사결정의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획성과 독립성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진로의사결정은 소폭 상승하여, 진로의 방향 설정과 실행력의 균형이 한층 강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가 ‘자기이해-계획-결정 및 실행’의 순

차적 발달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숙한다는 이론적 설명(Crites, 1973; Super, 1990)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정유보형의 경우, 두 시점 간 집단 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하위척도별로는 계획성과 독립성이 소폭 상승한 반면 진로의사결정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는 자기이해와 자율성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여전히 미흡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진로성숙도의 하위 요소 간 정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균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성숙형은 두 시점 모두에서 세 하위척도 평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일부 항목에서 미세한 상승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 계획성과 독립성은 소폭 향상된 반면, 진로의사결정은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여전히 진로성숙도의 전반적 결여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인식 부족, 자아개념 형성의 지연, 사회적 지지의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장기적인 정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1차연도와 2차연도에 걸쳐 동일한 잠재유형 구조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유형의 비율과 하위척도 평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진로성숙도가 단순히 고·저 수준의 연속선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행동적·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다차원적 구성 개념임을 보여준다. 특히 결정유보형은 자기이해와 독립성은 높으나 진로의사결정이 낮은 불균형 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이는 Crites(1973)가 제시한 진로성숙 구성 요소 간의 조화로운 발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세 가지 진로성숙도 유형은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경로가 고정된 일률적 패턴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심리적 자원과 행동 특성, 환경적 지원 수준에 따라 여러 경로로 분기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저성숙형은 기초 역량과 심리·건강 자원이 취약한 집단, 결정유보형은 자기이해에 비해 실행이 지체되는 전환기 집단, 고성숙형은 준비된 인적 자원 및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각각 상이한 개입 목표와 전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청년 니트 진로지원 정책은 진로성숙도를 단순한 연속선상의 고·저 비교가 아닌, 잠재유형별 특성과 발달 경로에 기반한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원 배분과 프로그램 구성에서 유형별 우선순위와 역할을 보다 정교하

게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는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가 단일한 평균 수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발달 단계와 기능을 지닌 세 집단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저성숙형·결정유보형·고성숙형이라는 유형 구분은 단순한 기술적 분류를 넘어, 어떤 집단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선별 및 예방), 어떤 집단을 전환 지원의 핵심 대상으로 삼으며(집중 개입), 어떤 집단을 다른 청년을 돕는 촉진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연결 및 확산)에 대한 전략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 니트의 진로지원은 ‘누구를 먼저,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가’라는 정책적·실천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로성숙도의 잠재유형 구조를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나.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전이분석 및 전이 예측 요인

1차연도(2021년)와 2차연도(2022년)에 걸쳐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한 결과, 청년 니트 집단의 세 가지 잠재유형(저성숙형, 결정유보형, 고성숙형) 간에는 유지·상향·하향 전이가 모두 관찰되었으며, 특정 전이 방향이 일관되게 우세하다고 보기보다는 유형별로 상이한 변화 패턴이 확인되었다. 먼저 1차연도 저성숙형 집단은 31.9%가 동일 유형을 유지하였고, 48.5%가 결정유보형으로, 19.6%가 고성숙형으로 전이해 상향 이동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1차연도 결정유보형 집단은 64.7%가 고성숙형으로 이동하여 상향 전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4%는 저성숙형으로 하향 전이되었고, 15.9%만이 동일 유형을 유지하였다. 반면 1차연도 고성숙형 집단은 18.4%만이 동일 유형을 유지하였고, 26.8%는 결정유보형으로, 54.8%는 저성숙형으로 전이하여, 고성숙형에서의 하향 이동이 가장 두드러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이 구조는 청년기의 진로성숙도가 단선적이고 누적적인 성장 모델로 설명되기 어렵고, 심리적 자원·경험·환경 요인에 따라 상향과 하향 이동이 반복될 수 있는 비선형적 발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저성숙형과 결정유보형 집단에서 확인된 상향 이동은 자기이해 증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화, 사회적 지지망 확대, 상담·교육·일경험 참여 등 긍정적 경험이 축적될 때 진로성숙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 개입 연구들은 이러한 개입이 구직

동기와 진로성숙을 강화하고 회복 경험을 촉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오태희, 이해은, 2025; 채희원, 2023).

반면 고성숙형 집단에서 확인된 하향 이동은 목표 상실, 취업 좌절, 심리적 번아웃 등 부정적 사건이 누적될 경우 진로성숙도가 단기간에도 후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김미림 등(2019)이 대학생 진로성숙도 잠재집단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보고한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ition)’ 즉, 고수준 집단이 중·저수준 집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진로발달을 상승 중심의 안정적 과정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보다, 변화와 후퇴 가능성을 포함한 역동적·맥락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Super(1990)가 제시한 생애진로발달 이론 역시 개인의 진로는 다양한 경험과 환경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전이 양상을 뒷받침한다.

니트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전이 방향성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지집단과 이탈집단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니트 유지집단에서는 저성숙형이 결정유보형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 유형을 유지한 비율은 27.0%, 고성숙형으로 전이된 비율은 15.9%였다. 결정유보형은 20.0%가 ‘저성숙형으로 전이, 20.0%가 동일 유형을 유지, 60.0%가 고성숙형으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성숙형은 56.2%가 저성숙형으로, 27.3%가 결정유보형으로 전이되었으며, 동일 유형 유지 비율은 16.4%로 가장 낮았다.

사례 수 기준으로 <표 IV-1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저성숙형→결정유보형’과 ‘고성숙형→저성숙형’ 전이가 각각 72명(21.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결정유보형→고성숙형’ 전이가 45명(13.7%)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정유보형→저성숙형’ (15명, 4.6%)과 ‘고성숙형’ 유지(21명, 6.4%)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니트 이탈집단에서는 상향 전이가 두드러졌다. 저성숙형의 43.0%가 결정유보형으로, 22.0%가 고성숙형으로 전이되어 전체의 약 65%가 상향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결정유보형의 67.5% 역시 고성숙형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고성숙형은 53.9%가 저성숙형으로, 26.5%가 결정유보형으로 전이되었으며, 동일 유형 유지 비율은 19.6%로 나타났다. 사례 수 기준으로는 ‘고성숙형→저성숙형’이 118명(21.7%)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해당 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니트 유지집단에서는 특정 유형의 하향 전이가 두드러진 반면, 니

트 이탈집단에서는 상향 전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니트 지속 여부가 진로성숙도 전이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성숙도는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보이지만, 상향과 하향의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 가변적 구조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책 설계와 개입 과정에서는 니트 상태의 지속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니트 상태 유지집단의 경우 변화 동기를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상향 전이를 경험한 집단에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장기적 경력 성취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심화훈련 및 경력 설계와 같은 후속 지원이 요구된다. 반면 하향 전이를 보인 집단에는 심리적·행동적 개입과 함께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니트 상태 유지집단의 하향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선제적 개입, 관계망 형성, 직무 경험 제공을 결합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별화된 전략은 진로성숙도의 하위 구성요소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전이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전이의 심리적 예측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기능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성숙도가 시간 경과 속에서 어떠한 심리적·사회적 역학에 의해 조정·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상향 전이와 하향 전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으며, 특히 상향 전이에 대해서는 부정적, 하향 전이에 대해서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단순히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 일방향적 자원이 아니라, 그 질적 특성과 안정성, 즉 ‘어떤 형태의 자아존중감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니트라는 특수한 사회·심리적 맥락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특히 방어적 자아존중감(defensive or fragile self-esteem) 개념을 통해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노동시장 이탈, 반복적인 구직 실패, 사회적 고립, 낮은 사회적 기대 속에서 일부 청년 니트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방어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 Crocker와 Park(2004), Kernis(2003)가 지적하듯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외부 평가나 순간적 성취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이며, 변화 요구 상황에서는 자기개념 손상을 피하기 위해 회피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적 자아존중감의 현상은 Kernis(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높은 자존감을 보고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자기확신과 정서적 안정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이나 피상적 성취에 의존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변화 요구 상황에 직면하면 위협회피와 자기보호적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 Robins와 Beer(2001)는 이러한 불일치가 심리적 불안정성, 대인관계의 취약성, 충동적 행동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Trzesniewski 등(2003) 또한 방어적 자아존중감이 실패 회피, 부정적 정서조절, 비효율적 의사결정 패턴과 깊이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높은 자아존중감 → 상향 전이 억제’라는 결과는, 청년 니트의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이라기보다 불안정·방어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자아존중감의 수준보다 형태가 진로 전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결국, 청년 니트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상향 전이를 억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외형적으로 자신감을 보이지만 실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실행에는 소극적인 패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진로성숙도의 향상이 단순히 ‘자존감의 수준 상승’으로만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자아존중감의 질적 특성과 내면화 수준을 고려한 심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 관점에서도 자기평가가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환경적 지원 등이 함께 정렬되어야 하는데(Lent et al., 1994), 이러한 실행 기반 자원이 부족할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조차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방어적 안정성으로 기능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rites(1973)가 제시한 진로성숙도의 균형 모델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진로성숙도는 태도적 요인과 능력적 요인의 균형적 발달을 전제로 하며, 어느 한 요소가 결여되면 기대하는 진로 변화는 나타나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불균형의 함정을 보여준다. 즉, 자아존중감이라는 태도적 기반이 충분하더라도, 자기이해·정보탐색·의사결정·실행력과 같은 역량적 자원이 미비하다면 상향 전이는 제한되고, 오히려 회피적 방어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 국내 연구들도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뒷받침한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은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유형을 분석하며,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이 높아도 자기효능감과 실행력이 낮으면 ‘진로행동 정체군’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

였다. 이는 태도적 기반이 충분하더라도 실행역량이 결여되면 상향 전이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채희원(2023)은 진로교육 경험이 진로성숙과 구직동기를 높이지만, 그 효과가 실제 진로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진로준비 행동과 지속적인 실행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정현과 서은희(2024)는 고졸 비진학 니트가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관계 지지망 형성, 정서 회복, 목표 실행 경험이 강화되며 비로소 자기효능감-진로탐색-목표 실행이 유기적으로 상승하는 ‘성장·전환형’ 경로가 나타난다고 밝혀, 행동적·환경적 자원이 결합될 때 진로전환이 촉진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태도적 요인만으로는 진로성숙이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기 어렵고, 실행역량·경험·사회적 지지와 같은 능력적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상향 전이가 일어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결국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 전이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그 자체만으로는 상향 전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태도적 자원과 실행적 자원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자아존중감은 오히려 변화 회피와 방어적 안정성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한 진로개입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단순한 양적 향상보다, 그 질적 수준과 내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를 진로준비와 행동적 실행과 조화시키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방어적 자아존중감을 조기에 선별하여 자기개념의 내면화, 실패 경험의 재구조화, 점진적 성공 경험의 제공, 사회적 역할 학습 등을 지원하는 과정은 자아존중감을 ‘건강한 심리적 기반’으로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균형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청년 니트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로발달 경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의 관점에서는 자아존중감 그 자체만이 진로목표 설정과 행동 실현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환경적 지원 등과 동반적으로 발달할 때 진로목표 실현과 적극적 행동이 촉진됨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박민정, 2022; 윤정혜, 2015). 그러나 청년 니트의 경우, 이러한 요인 간의 정렬이 불충분하고, 자아존중감이 높더라도 이를 실행력 강화로 연결시키지 못할 때에는 회피적 전략, 행동의 위축, 진로 정체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청소년 및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환경 지원 등 복합적인 심리자원과 행동 역량이 동시에 발달할 때 진로

성속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상의 해석을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은 청년 니트의 진로성속도 전이에서 촉진과 억제 양면성을 지닌 심리적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이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목표 명료성, 실행전략, 환경적 자원 등과의 유기적 정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높은 자존감이 오히려 변화 가능성을 낮추는 심리적 방어기제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는 자존감의 단순한 ‘양적’ 향상보다는 그 ‘질’을 심리·행동 체계와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어적 자존감 성향을 조기 선별하고, 자아개념 내면화, 실패 경험의 재구조화, 사회적 역할 학습, 점진적 도전과제 부여 등을 통합한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청년 니트의 상향 전이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하향 전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편입과 지속 가능한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정서적·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심리적 자원이라면, 구직효능감은 이러한 기반을 실제 행동 변화와 결과로 연결하는 실행 관련 심리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구직효능감은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성속도 전이에서 상향 전이에 유의한 정적, 하향 전이에 유의한 부적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구직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이 진로전환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구직효능감이 높은 청년 니트는 직업정보 탐색, 면접 준비, 경력기술서 작성 등과 같은 구직 관련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환경적 제약이나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김현동, 한용성, 2012; 오현주, 오성욱, 2022). 반대로 구직효능감이 낮은 경우, 행동 시도 자체를 회피하거나 목표·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하위 수준의 진로성속도 유형으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정우진, 정승철, 2021).

이러한 경향은 자기효능감 이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Bandura(1977)는 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행동의 선택, 노력의 강도, 그리고 장애 극복 시의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구직과 같이 단계가 많고 부담이 큰 행동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 관점에서도 효능감은 진로 목표, 결과기대, 행동 실행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주요 심리 기제로 제시된다(Lent et al., 1994). 이러한 이론적 틀을 구직 맥락에 적용해 보면, 구직효능감이 높

을수록 행동 실행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어 행동의 질과 지속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상향 전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구직효능감이 하향 전이에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는 결과는, 효능감의 결핍이 단순한 정체 상태를 넘어 진로발달 수준의 실제 후퇴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과 일관된 결과가 확인된다. Kanfer 등(2001)의 메타분석에서는 구직효능감이 구직강도뿐 아니라 실제 고용성과에도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Hooft 등(2013)은 효능감과 자기조절 행동의 질이 단기적인 고용성과 더불어 취업 후 고용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김기민과 전지연(2023)은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유형을 분석하며, 구직효능감이 낮은 집단일수록 ‘진로행동 정체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목표 명료성과 진로정체감이 있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쉽게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효능감의 결핍이 행동 실행의 중단과 진로후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채희원(2023)은 진로교육 경험이 진로성숙과 구직동기를 높여 효능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제 구직행동의 질과 지속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이정현과 서은희(2024)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가 정서 회복과 관계 지지망 형성을 돕고, 이러한 회복 경험이 다시 구직효능감과 목표 실행 행동을 강화하는 ‘성장·전환형’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낮은 구직효능감이 구직회피, 행동 중단, 미설정된 목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효능감의 회복은 행동 실행력과 상향 전이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구직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구별되는 행동 실행 기반의 심리자원으로, 두 요인이 균형 있게 작용할 때 진로성숙도의 전이가 안정적으로 촉진된다.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안정과 자기인식의 토대를 제공한다면, 구직효능감은 이를 실제 행동과 성취로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직효능감이 부족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제공하는 정서적 자원이 실제 행동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방어적 성향과 결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Kernis, 2003). 반대로 구직효능감이 강화될 경우, 자아존중감이 제공하는 정서적 안정감과 자기개념의 기반이 행동 실행 과정과 보다 효과적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효능감이 행동의 선택과 지속성에 핵심적으로 작동한다는 SCCT의 설명을 고려할 때, 상향 전이와 같은 긍정

적 변화와도 관련될 여지를 시사한다(Lent et al., 1994).

이러한 결과는 정책과 실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청년 니트 지원은 단순한 태도적 변화나 자기평가의 고양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구직행동을 체득하게 하는 경험 기반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직무체험, 모의면접, 구직기술 훈련, 단계별 피드백 제공과 같은 실질적 경험을 통해 단기적 성취를 축적하고 이를 효능감 향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전략, 즉 정서적 안정 위에 실행역량을 쌓아 올리는 구조적 개입을 설계할 때,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전이는 보다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가.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청년 니트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의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유형 간 전이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전이와 관련된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예측적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시점 자료를 활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LPA), 잠재전이분석(LT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LR) 등 복합적 분석 절차를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진로성숙도의 다차원적 구조와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로성숙도를 고·저의 연속선상 개념이 아닌 상이한 발달수준과 구조를 지닌 유형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유형 간 시간적 이동이라는 동적인 변화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시점 기반 연구와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단순히 진로성숙도의 현황을 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이 개인 내 심리적 자원과 외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경로로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천적, 정책적, 방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주로 단일 시점에서의 개인 간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과 성격·동기·자기효능감 등 심리·사회적 변인 간 상관이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진로성숙도 수준이 연령, 성별, 학업성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외부 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거나, 고·저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김성경, 2008; 오석영, 2012). 이러한 접근은 진로성숙도의 관련 요인 탐색에 기여했으나, 진로성숙도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거나 구조가 재편성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를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 가능한 발달적 개념으로 간주하고, 개인 내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 종단적 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분석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측정 도구와 분석 절차를 통해 1차연도와 2차연도에 각각 진로성숙도의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잠재전이분석(LTA)을 활용하여 이들 유형 간의 전이 가능성과 방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점수 변화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하위 척도 간 결합 구조의 변화 양상까지 포착할 수 있었으며, 진로성숙도가 시간에 따라 정렬 상태를 달리하는 유형적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어 1차연도에 결정유보형으로 분류된 개인이 2차연도에는 고성숙형으로 전이된 경우, 이는 자기이해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진로계획성이나 실행성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구조적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진로성숙도가 단일한 고·저의 연속선상의 위치로만 설명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 여러 하위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정렬(alignment)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복합적·다차원적 구성 개념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Crites, 1973). 이와 같은 분석틀은 진로성숙도의 구조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조직될 수 있음을 드러내며, 진로성숙도를 이해하는 관점을 정태적 평가에서 동적 유형 분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진로성숙도 유형 간의 전이 비율과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의 진로발달 경로가 획일적인 선형 과정보다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자원과 환경 조건에 따라 상향·하향·유지 등 여러 형태의 변화 양상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성숙도를 단순히 점수 수준의 변화로만 파악하기보다는, 특정 시점에서 형성된 구조적 프로파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이되는지를 중심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한층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분석 접근은 Crites(1973)가 제안한 진로성숙도의 발달적 개념이나, Super(1990)가 강조한 생애 진로발달(life-span, life-space) 관점과도 일정 부분 연결된다. 특히 Super가 주장한 진로발달의 연속성과 전환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관찰된 다양한 전이 양상과 논리적으로 상응하며, 진로성숙도를 ‘시간 기반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정립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 연구에 시간적 변화와 구조적 유동성을 반영한 분석틀을 적용한 실증적 시도로서, 기존의 정태적 접근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진로성숙도 개념의 이론적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년 니트 집단 내 진로성숙도의 수준과 구조에 따라 세 가지 잠재유형(고성숙형, 결정유보형, 저성숙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 간 시간적 전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형화된 진로개입보다는 개인의 진로발달 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로성숙도가 낮은 집단을 단일하게 범주화하지 않고, 하위요인의 결합 구조에 따라 상이한 프로파일을 분리해 추출함으로써 청년 니트 집단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지적해온 ‘청년 니트 하위집단별 특성 차이’와도 맞닿아 있으며, 실천현장에서의 보다 정밀한 집단진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김기민, 전지연, 2023).

예컨대, 결정유보형 집단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독립성’과 ‘진로 의사결정’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계획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진로방향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이루어져 있음에도 이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진로개입 과정에서 개인의 자원 분포에 따라 중재의 방향과 내용을 달리 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청년 집단에 대해 목표 설정과 실행전략 훈련이 진로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임이 보고된 바 있다(정미경, 김수란, 2013). 따라서 결정유보형과 같은 집단에는 단기·중간·장기 목표 설정, 실행 계획 수립, 과정 모니터링 훈련 등 행동 유도 중심 개입이 상대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다수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이 자기이해 중심 활동에 머무는 한계를 보완하며, 개입의 단계별 세분화와 내용 정합성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동일한 진로유형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진로성숙도 수준이 낮아

지는 하향 전이 집단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는 단일 시점 평가에 근거한 일회성 개입의 한계를 보여주며, 시간 경과를 고려한 지속적·순환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전영창, 이선화, 2024). 특히 주목할 점은, 하향 전이를 경험한 집단 일부가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으나, 이후 발달수준이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진로상태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진로역량을 가진 집단에서도 퇴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훈련 현장에서는 초기 평가 결과만으로 개입의 필요성을 단정하기보다, 중장기적 모니터링 체계와 주기적인 재평가 절차를 병행하는 실천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진로상담, 진로교육,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실천 영역에서 유형 기반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청년 니트처럼 심리·사회적 배경과 진로역량이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커리큘럼이나 단선적 개입보다 개별 유형의 진로특성과 전이 경로에 기반한 차등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고성숙형 집단에는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 제공과 취업 연계를 중심으로, 결정유보형 집단에는 실행 촉진 및 행동전환 프로그램을, 저성숙형 집단에는 자기이해 증진과 진로탐색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를 단순한 수준 개념이 아닌 구조적 유형으로 접근하고, 그 변화 경로까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특성과 발달 양상에 기반한 개입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진로상담 및 진로 개입 실천 현장에서 ‘누가’·‘언제’·‘어떻게’ 개입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성숙도 수준과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태 변화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기존 청년 니트 정책의 한계와 향후 정교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와 해석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니트 관련 정책과 청년 고용 대책은 주로 학교/직업/훈련 참여 여부와 같은 외형적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비교적 획일적인 교육·고용 서비스 제공에 치중해 왔다(조권중 외, 2024). 이러한 접근은 청년 니트 내부의 이질성과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현실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의 세 가지 잠재유형(저성숙형, 결정유보형, 고성숙형) 도출과 시간적 전이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진로심리적 구성과 발달 양상에 따라 정책 대상 분류 및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우선, 진로성숙도를 기준으로 청년 니트를 유형화한 결과는 정책 설계에서 진로 상태 기반 분화 기준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획일적 대상 설정과 단일 커리큘럼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정책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성숙형 집단에는 조기 진입 및 경력 개발 중심의 직접적 일경험, 취업 매칭 지원 등 실질적 노동시장 연계 서비스가 적합할 수 있고, 결정유보형 집단에는 실행력 강화·목표 재설정·설계훈련·진로동기 강화 등 행동 지원 중심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저성숙형의 경우에는 자기이해 증진, 동기 형성, 기초생활습관 재정비, 사회적 자원 확충을 통한 기초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진로성숙도 유형의 시간적 전이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니트 상태 지속 집단의 하향 전이 경향과, 니트 상태 이탈집단의 상향 전이 가능성은 정책적 대응의 차별성과 시의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진로계획과 실행력 유지가 어려워지며, 심리적 안정성과 행동 동기가 퇴행하는 집단 역시 함께 증가함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니트 여부'나 단일 시점만을 고려한 지원정책보다, '상태의 지속·변화 가능성' 및 각각의 진로 발달 단계에 맞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기 발견 및 선제적 심리·행동 개입,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병행되는 정책 구조가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향상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의 상향 및 하향 전이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도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준다. 기존 니트 및 청년 취업 정책은 교육·고용·훈련 중심의 외적 자원 확충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본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내적 자원이 진로성숙도의 장기적 변화와 이행 경로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구직효능감이 결핍된 청년 니트는 진로성숙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장기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단순 고용 연계나 기술 훈련 중심의 개입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심리 기

반 프로그램(자기이해 증진, 실패 경험의 재구조화, 정서적 안정화, 동기 강화, 그룹 상담 등)과 진로개입(직업훈련, 맞춤형 경력개발 등)이 연계된 통합적 정책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결국, 본 연구는 청년 니트 정책이 단일 기준 및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진로심리적 상태와 발달 경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정책으로 정교화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향후에는 진로성숙도의 유형화 모델을 정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심리·사회적 자원 강화, 진로 전이 가능성 예측을 기반으로 한 조기 개입, 장기 유지 집단에 대한 심층적 모니터링, 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 다층적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 니트의 구조적 이질성과 개인 내적 특성, 진로 성장·퇴행의 동적 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실효성 높은 정책 정교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LPA), 잠재전이분석(LTA), 그리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LR)을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변화 양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실증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설계는 집단 내 이질성이 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리·행동상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청년 니트와 같은 대상을 연구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기존 진로심리 연구의 상당수는 진로성숙도나 관련 변인을 주로 정태적(단일 시점) 분석에 머물러 다루거나, 비교적 단순한 집단 분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김선경, 권일남, 2018; 송병국, 전주연, 2013; 황우람, Paek, 2024). 예를 들어, 김선경과 권일남(2018)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역량과 갈등조절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단일 시점 설문자료를 통해 주요 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했지만, 진로성숙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어떤 전이를 유발하는지와 같은 동적 메커니즘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PA를 활용하여 동일 시점에서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에 존재하는 구조적 이질성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LTA를 적용하여 유형 간 종단적 전이 경로와 전이확률을 추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통해 단일 시점 분석이 포착하지 못하는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과 전이 방향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었으

며,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조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LPA를 통해 청년 니트의 진로성숙도 잠재유형을 도출한 뒤, LTA를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유형 간 이동(상향·하향·유지) 및 전이확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 각 전이 경로에 미치는 심리적 자원(자아존중감, 구직효능감)의 예측력을 MLR로 계량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분석 과정 전반에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연속적 분석 절차를 통해, 각 방법론을 단순히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유형의 특성 파악에서 전이 경로 추적, 변화 예측요인 검증까지 일관된 논리 구조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성숙도의 구조적·동태적 특성과 변화 조건을 한층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연계된 종단·집단 분석은 청년 니트 집단처럼 구조적 이질성과 시간적 변화가 혼재한 현상을 일반적인 횡단 비교나 단순 집단 분류만으로는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준다. 또한, 진로심리 분야의 자료 구조와 해석 틀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설계는 진로성숙도뿐 아니라 진로정체감, 진로적응성, 자아개념 등 복합적인 진로 변인들을 다루는 다양한 심리사회 연구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진로 및 발달 관련 대규모 패널연구, 구조적 변인 추적 연구 등에서 참고할 수 있는 통합적 사례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 나.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청년 니트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의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시간경과에 따른 전이 양상 및 이를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진로발달 연구의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진로성숙도를 단일한 수준 지표가 아닌 다차원적 구조와 유형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구조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기존의 정태적·일회적 분석 관점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LPA-LTA-MLR로 이어지는 통합적 분석 설계를 통해 개인 내 발달 변화와 개인 간 차이를 동시에 조망하려는 방법론적 시도를 구현하였으며, 유형별로 상이한 전이 경로와 예측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맞춤형 진로 개입의 필요성을 실천 현장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니트 정의(정규 교육·고용·직업훈련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상태)를 적용하여 ‘진학준비’와 ‘취업준비’ 응답자를 분석에 포함하였다(김기민, 전지연, 2023; OECD, 2014). 다만 이러한 ‘준비 상태’의 포함 여부는 연구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일정한 제한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선택한 이유를 본문에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상의 다양성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둘째, 측정 도구와 자료 수집 방식에서 비롯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심리 변인(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구직효능감 등)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반응 일관성 오류, 그리고 개인의 자기인식 왜곡 등으로 인해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저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이나 구직효능감은 실제 행동 수준과 무관하게 자기 이상화 경향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의 일부 하위요인은 문항이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개인의 실제 진로발달 상태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분석 설계와 모형화 전략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 유형을 도출하고 전이 경로를 확인한 뒤, 전이확률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을 회귀 분석으로 파악했으나, 이때 활용한 예측 요인(자아존중감, 구직효능감)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개인 내 심리 특성 외의 다양한 환경·맥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전이확률을 설명하는 분석모형의 해석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YP2021 1·2차 자료에서는 진로성숙도 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예: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진로동기 등)에 대한 측정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료에서 제공되는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만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변수 선택은 진로성숙도 연구에서 두 요인의 이론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료 제약으로 인해 다른 잠재적 영향 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인 간 상호적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교차 지연효과 모형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을 분석하고, 역방향 관계인 진로성숙도가 자아존중감과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단방향적 분석 구조는 청년기의 진로발

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성과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니트 이탈·유지 집단을 분리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수행한 접근은 집단 간 전이확률 차이를 직접 검정하는 다집단 분석 방식과는 구별되므로, 해석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들은 연구결과 해석의 폭과 일반화 수준에 일정한 제약을 주며, 진로성숙도라는 발달 개념이 지닌 복잡성과 유동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 향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니트 정의(정규 교육·고용·직업훈련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상태)를 적용하여 ‘진학준비’와 ‘취업준비’ 응답자를 분석에 포함하였다(김기민, 전지연, 2023; OECD, 2014). 다만 이러한 ‘준비 상태’의 포함 여부는 연구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일정한 제한을 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 니트 패널 자료는 개인별 니트 지속기간의 정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는 1차연도 직전에 니트 상태에 진입하여 단기간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조사 이전부터 장기간 니트 상태를 유지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지’와 ‘이탈’ 범주는 엄밀한 이론적 분류 기준이라기보다 자료 구조에 기반한 실질적 구분에 가깝다. 이는 잠재전이 해석 시 전이 집단 간 심리적·사회적 특성의 이질성이 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 니트 지속기간의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거나, 경력 이력을 구조화한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니트 경력의 누적성과 그에 따른 진로발달의 이질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측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 또한 요구된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현실에서의 행동이나 상태보다는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특정 진로유형이 실제 행동과 불일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진로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라도 구체적인 실행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이는 진로성숙도의 구조와 수준 파악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행동 기반 평정 척도, 객관적 진로행동 지표, 심층 면담을 통한 맥락 확인 등을 병행하여 정량적 프로파일 해석의 실증적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설문지 기반 측정구조에서는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변수 간 중복성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잠재유형 도출 시 수치

적 차이가 의미적 차이로 직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수반할 수 있다.

넷째, 분석 설계 측면에서도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LPA-LTA-MLR 절차를 통해 유형 도출과 전이 분석을 수행했으나, 분석에 포함된 예측 요인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진로성숙도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정책 참여 경험, 지역·산업별 구직환경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을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전이 경로를 설명하는 변인이 일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단방향적 분석 구조를 채택하여, 예컨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와 관련되는 경로는 설정하였으나, 진로성숙도가 자아존중감과 관련될 가능성과 같은 역방향 관계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인 간 상호적 관련성을 분석하는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s)를 도입하면, 진로성숙도와 심리 변인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분석 설계 확장의 한 방안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간 전이 구조의 차이를 직접 검정할 수 있는 분석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 니트를 단일 집단으로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성별, 학력, 지역, 부모 배경 등 구조적 특성에 따라 진로발달 경로가 상이할 수 있다. 동일한 유형에 속하더라도 전이 방향과 확률이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집단별 비교 분석은 더욱 현실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졸과 대졸 집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단 간 전이 패턴을 비교하면, 정책 개입 방향을 세분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변인이 잠재전이 확률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직접 검정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잠재집단과 공변인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전이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공변인의 영향이 특정 잠재유형에서 더 강하게 또는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잠재유형별 전이 과정에서 공변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니트 집단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층 세밀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보완적 접근은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과정을 한층 정밀하게 이해하고, 맞춤형 실천 개입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진로심리학 연구의 방법론적 진전은 물론, 정책 설계와 진로지원 체계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고미나, 박재황. (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69-85.
- 고용노동부. (2023). **청년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 곽미선. (2018).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불확실성, 자기개념명확성,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통찰력 간의 구조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151-177.
- 구혜경. (2024). 청년 NEET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 지원, 진로정체성 및 구직활동의 구조적 관계. **기업경영리뷰**, 15(1), 299-321.
- 금재호. (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노동부 정책연구보고서.
- 금창민, 이해은. (2023). 청년 니트(NEET)의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5), 249-265.
- 김기민, 전지연. (2023). 청년 니트의 진로발달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진로교육연구**, 36(3), 1-22.
- 김기현. (2005). **니트(NEET): 일본청년무업자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3(5), 55-63.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배진우.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연구보고 18-R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희. (2022). 대학생의 취업불안, 구직 자기효능감, 학년,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진로계획의 구조적 관계. **교육논총**, 42(1), 101-121.
- 김민혜, 오인수. (2025).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 **미래교육학연구**, 38(2), 61-90.
- 김봉환. (2000).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봉환, 김아영, 차정은, 이은경. (2007).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8(2), 583-602.
- 김상은, 안세지, 김희진. (2017). 대학생용 구직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치료연구**, 9(2), 384-403.
- 김서현. (2023). 니트 청년의 고립과 연결의 뒤섞임 경험에 관한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 **인문사회과학연구**, 31(4), 51-90.
- 김선경, 권일남. (2018).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113-133.

- 김성경. (2008). 고등학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성별 및 학교계열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6), 145-170.
- 김소영, 유형근, 조용선. (2013).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다중지능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연구**, 26(2), 43-66.
- 김영미. (2018).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386-396.
- 김예수, 조봉환.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2(1), 87-103.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성과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17(4), 97-110. 한국노동연구원.
- 김현동, 한용석. (2012).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중요성. **노동정책연구**, 12(4), 1-24.
- 노현주, 김윤태. (2019). 한국 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영향 요인: 학력 수준별 비교 분석. **공공사회연구**, 9(4), 73-105.
- 노혜진. (2021). 니트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애사. **보건사회연구**, 41(2), 44-63.
- 노혜진, 남기철, 박미희, 이봉주, 이성학, 이신혜. (2019). 희망플랜(니트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변화과정. **청소년복지연구**, 23(3), 85-105.
- 류도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성의 구조 분석. **재활심리연구**, 28(4), 87-104.
- 문세연. (2023). 대학생의 구직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변화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취업진로연구**, 13(3), 19-40.
- 민성혜, 유영미 (2006). 대학생의 행동억제/활성화 체계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3(1) 81-95.
- 박가열, 황광훈, 김종성. (2023). 청년 니트 결정요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7(6), 105-124.
- 박금남. (2018).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1143-1162.
- 박민정. (2022). 학교밖 청소년의 부모 지지 및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 애착과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3), 471-485.
- 박진원, 한창근. (2024). 청년 니트의 유형별 취업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6(2), 253-278.
- 박혜숙, 전명남. (2014). 서울시 교육종단자료에 나타난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59-83.
- 백윤영, 홍지선. (2024). 고졸 니트(NEET) 청년의 ‘쉽’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4), 1439-1469.
- 서경희, 곽원준, 심지현. (2015).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취업진로연구**, 5(4), 57-88.
- 서우석. (2017). 포트폴리오형 진로개발프로그램이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23(1), 187-206.
-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3). **2023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연차보고서**.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송민경. (2011). 청소년기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329-347.
- 송병국, 전주연. (2013).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1), 235-264.
- 신성현, 전주성. (202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유형별 변화궤적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3(1), 135-163.
- 안성식, 박인숙. (2022).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2(2), 51-71.
- 양미란. (2008). 진로 집단 상담 활동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정의적 및 인지적 영역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1(2), 73-92.
- 여명숙. (2017). 실직자의 진로장벽,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7(1), 95-119.
- 오석영. (2012). 중학생의 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학희망계열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77-94.
- 오태희, 이혜은. (2025). 청년의 니트 경험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사회정의 상담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5(1), 35-66.
- 오현주, 오성욱. (2022). 미취업 청년층의 진로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구직태도 및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2), 47-72.
- 우예영, 박현정. (2024). 청년 취업자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구직효능감이 지니는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32(4), 43-63.
- 유준상, 서우석. (2013).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165-183.
- 유창민. (2017). 우리나라 성인의 이원적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논문집**, 10, 99-131.
- 윤소희, 김제현. (2023).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청년고용정책의 방향성 탐색 - 청년 니트(NEET)를 중심으로 -. **지방교육경영**, 26(2), 103-126.
- 윤정혜.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5(2), 29-46.

- 이경희, 윤미현. (2011).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1), 175-199.
- 이동욱. (2023). GSCA-SEM을 활용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문화와 융합**, 45(1), 471-483.
-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 (2010).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 구직 희망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3(1), 153-175.
- 이민서, 김사현. (2021). 청년 니트(NEET) 변화 유형 비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8(2), 71-101.
- 이상무, 최두식, 문병준. (2017). 취업커뮤니티 가입대학생의 성향에 따른 구직효능감의 차이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7(3), 83-107.
- 이선복. (2025).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청소년기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의 발달 유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8(1), 83-118.
- 이승진, 박지혜, 김소현, 정익중. (2024). 대졸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잠재계층 유형과 영향요인: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4(3), 359-382.
- 이정민. (2025).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현, 서은희. (2024). 고졸비진학 니트(NEET)청년이 자각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성과와 성과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일하는학교의 ‘꽃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7(2), 45-69.
- 이지혜, 남기범, 천성문. (2017). 역량프로그램이 청년구직자의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치료연구**, 9(3), 531-552.
- 전영창, 이선화. (2024). 청년니트(NEET)유형과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63(1), 329-350.
- 정미경, 김수란. (2013).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취업과의 관계에서 진로목표설정,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19(2), 123-144.
- 정여주, 권정숙. (2019). 청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직업가치관이 첫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4), 717-724.
- 정우진, 정승철. (2021). 대학생들의 진로 성숙도가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 구직 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성격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404-418.
- 전태련. (2016). **(함께하는) 교육학. 上, 논술이론편**. 캠퍼스.
- 조권중, 변금선, 이보경, 채황석, 신동훈, 정재현. (2024). **서울시 청년 니트(NEET) 실태 분석과 일자리 지원 정책방향** [서울연 2023-PR-37]. 서울연구원.
- 조대연, 김은비, 김경근, 정홍인. (2018).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 니트족의 유형화와 니트 탈출방안. **역량개발학습연구**, 13(2), 165-190.
- 지은주, 류한소, 이민아. (2024). 청년니트(NEET)의 자살생각 및 우울: 수도권과 비수도

- 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7(2) 33-55.
- 채구묵. (2018). **SPSS 와 AMOS 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개정판). 양서원.
- 채창균, 김기현, 남기곤, 오호영, 정재호. (2008). **유휴청년 연구** [연구보고서 2008-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희원. (2023). 청년 니트족의 진로교육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구직동기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3(3), 79-97.
- 최경미, 박지원. (2022). 사회적기업 종업원의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HRD연구**, 24(1), 329-361.
- 최솔, 장원섭. (2024). 청년 니트(NEET)의 고독과 성장경험에 대한 일의 교육적 의미 탐색. **Andragogy Today**, 27(2), 37-63.
- 최원석, 김표민. (2021).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진로탐색 집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59, 23-42.
- 최윤미,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171-187.
- 최인희. (2019).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진로성숙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 후기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교육평가연구**, 32(1), 155-181.
- 최진수, 정혜원. (2021).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 : 전공계열의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359-372.
- 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통계청. (2023b).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은행. (2024).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한국은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규철, 이현심. (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967-995.
- 한정아. (2023).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중·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 영향 요인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6(2), 329-351.
- 홍윤경, 최혜진. (2024).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다중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1), 5-28.
- 황광훈. (2023). 청년층의 주거와 가구배정이 청년니트 이행에 미치는 영향. **토지주택연구**, 14(3), 1-15.

- 황우람, Paek, Y. J. (2024). 후기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와 사회이동성 인식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7(3), 63-90.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H. Freeman.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ell, D. N. F., & Blanchflower, D. G. (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241-267.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Bergman, L. R., & Trost, K. (2006). The person-oriented versus the variable-oriented approach: Are they complementary, opposites, or exploring different worlds? *Merrill-Palmer Quarterly*, 52(3), 601-632.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Brandstätter, V., & Herrmann, M. (2015). Goal disengagement in emerging adulthood: The adaptive potential of action cri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0(2), 117-125.
- Bray, B. C., Lanza, S. T., & Tan, X. (2014). Eliminating bias in classify-analyze approaches for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1(1), 1-11.
- Clark, S. L.,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Addiction*, 104(1), 92-100.
- Coles, B., Godfrey, C., Keung, A., Parrott, S., & Bradshaw, J. (2010). *Estimating the life-time cost of NEET: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University of York.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Wiley.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W. H. Freeman.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1), 42-61.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92-414.
- Crites, J. O. (1973). Career maturity. *NCME Measurement in Education*, 4(2), 8-15.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CTB/McGraw-Hill.
- Dias, J. G., & Vermunt, J. K. (2006). Bootstrap methods for measuring classification uncertainty in latent class analysis. *Statistica Neerlandica*, 60(4), 449-466.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 W. Norton.
- Eurofound. (2012). *NEETs –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20). *EU Youth Employment Support: A bridge to jobs for the next generati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stat. (2024). *Young people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and training (NEET) by sex and age*. Eurostat Statistics Database.
- Feinstein, L., & Hammond, C. (2004). The contribution of adult learning to health and social capital. *Oxford Review of Education*, 30(2), 199-221.
- Furlong, A., et al. (2003). *Youth transitions: Patterns of vulnerability and processes of social inclusi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 Gati, I., & Asher, I. (2001). Prescreening for career counseling: A decision-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97-408.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eiser, C. (2012). *Data analysis with Mplus*. Guilford Press.
- Germeijs, V., & De Boeck, P. (2002). A measurement scale for indecis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career indecision and other types of indeci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2), 113-122.
- Goldman-Mellor, S., Caspi, A., Arseneault, L., Ajala, N., Ambler, A., Danese, A., Fisher, H., Hucker, A., Odgers, C., Williams, T., Wong, C., Moffitt, T. E., & the E-Risk Study Team. (2016). Committed to work but vulnerable: Self-perceptions and mental health in NEET 18-year-olds from a contemporary British cohor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7(2), 196-203.
- Guan, Y., Deng, H., Sun, J., Wang, Y., Cai, Z., Ye, L., Fu, R., Wang, Y., Zhang, S., & Li, Y. (2013). Career adaptability, job search self-efficacy and outcomes: A three-wave investigation among Chinese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 Vocational Behavior*, 83(3), 561-570.
- Haddock, G., & Gebauer, J. E. (2011). Defensive self-esteem impacts attention, attitude strength, and self-affirmation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6), 1276-1284.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self-esteem*. Guilford Press.
- Heatherton, T. F., & Polivy, J.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95.
- Hinton, P. R., McMurray, I., & Brownlow, C. (2004). *SPSS explained* (1st ed.). Routledge.
- Hipp, J. R., & Bauer, D. J. (2006). Local solutions in the estimation of growth mixture models. *Psychological Methods*, 11(1), 36-53.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Hirschi, A. (2011). Career-choice readines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2), 340-348.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anfer, R., Wanberg, C. R., & Kantrowitz, T. M.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5), 837-855.
- Kelly, K. R., & Lee, W. C. (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2), 302-326.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Koen, J., Klehe, U.-C., & Van Vianen, A. E. M. (2012). Training career adaptability to facilitate a successful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3), 395-408.
- ILO. (2020). *Youth and COVID-19: Impacts on jobs, education, rights and mental well-bein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2024).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2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órin, M., Ryan, L., D' Angelo, A., & Kaye, N. (2019). De-individualising the 'NEET problem':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5), 412–427.
- Marsh, H. W., & Craven, R. G. (2006). Reciprocal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formance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Beyond seductive pleasure and unidimensional perspectiv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 133–163.
- Masyn, K. E. (2013). Latent class analysis and finite mixture modeling. In T. D. Little (Ed.), *The Oxfor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s: Vol. 2. Statistical analysis* (pp. 551–611). Oxford University Press.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John Wiley & Sons.
- Muthén, B. O. (2001).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In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1–54). Psychology Press.
- Muthén, B., & Asparouhov, T. (2011). *LTA in Mplus: Transition models for latent variables using continuous or categorical indicators*. Mplus Web Notes: No. 13.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7). *Mplus user's guide* (5th ed.). Muthén & Muthén.
- Muthén, L. K., & Muthén, B. O.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McGraw-Hill.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Nylund-Gibson, K., Grimm, R., Quirk, M., & Furlong, M.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 OECD. (2019). *Investing in Youth: Korea, Investing in Youth*. OECD Publishing.
- OECD. (2021).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Navigating the COVID-19 Crisis and Recovery*. OECD Publishing.
- Orth, U., Erol, R. Y., & Luciano, E. C. (2018). Development of self-esteem from age 4 to 94 year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44*(10), 1045-1080.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1), 147-154.
- Paabort, H., Flynn, P., Beilmann, M., & Petrescu, C. (2023). Policy responses to real world challenges associated with NEET youth: A scoping review. *Frontiers in Sustainable Cities*, *5*, Article 1154464.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 Patton, W., & Lokan, J. (2001). Perspectives on Donald Super's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1-2), 31-48.
- Pignault, A., Rastoder, M., & Houssemand, C.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Psychological flourishing as a mediator. *European Journal of Investigation in Health, Psychology and Education*, *13*(9), 1553-1568.
- Priyashantha, K. G., Dahanayake, W. E., & Maduwanthi, M. N. (2023). Career indecis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Humanities and Applied Social Sciences*, *5*(2), 79-102.
- Robins,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s about the self: Enhancing mental health. *Psychological Science*, *12*(2), 115-11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dolph, C. W., Lavigne, K. N., & Zacher, H. (2017). Career adaptability: A meta-analysis of relationships with measures of adaptivity, adapting responses, and adaptation res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8*, 17-34.
- Ryoo, J. H., Wang, C., Swearer, S. M., Hull, M., & Shi, D. (2018). Longitudinal model building using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 example using school bullying data.

*Frontiers in Psychology, 9*, 675.

- Saito, T. (2013). *Hikikomori: Adolescence without end* (J. Angles,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aks, A. M., & Ashforth, B. E. (1999).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job search behaviors on the employment status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335-349.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61-673.
- Schmitt, N. (1996). Uses and abuses of coefficient alpha.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50-353.
- SEU (Social Exclusion Unit). (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HM Government.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Harper & Row.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Jossey-Bass.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05-220.
- Van Hooft, E. A. J., Wanberg, C. R., & Van Hove, G. (2013). Moving beyond job search quantity: Towards a conceptualization and self-regulatory framework of job search quality. *Organizational Psychology Review, 3*(1), 3-40.
- Vanhalst, J., Luyckx, K., Scholte, R. H. J., Engels, R. C. M. E., & Goossens, L. (2013). The development of loneliness from mid- to late adolescence: Trajectory classes, predictors, and outcomes. *Journal of Adolescence, 36*(6), 1295-1302.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Wang, J., & Wang, X. (202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2nd ed.). Wiley.
- Wolf, E. J., Harrington, K. M., Clark, S. L., & Miller, M. W. (2013). Sample siz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An evaluation of power, bias, and solution proprie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3(6), 913-934.